



2016년 상고사 토론회

한국 상고사의 쟁점
왕검성과 한군현

2016.3.22 **화** 13:30~18:00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2016년 상고사 토론회

일정	시간	발표자	주제
【개회식】 사회 : 이성제 (한중관계연구소 고중세연구실장)	13:00~13:30	등록	
	13:30~14:00	〈환영사·축사·기념촬영〉 • 환영사 :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축 사 : 이종찬 우당장학회 이사장	
【제1부-발표】 사회 : 김현숙 (한중관계연구소 고중세연구실)	14:00~14:30	조법종 (우석대 역사교육과)	고조선 왕검성 위치 논의와 쟁점
	14:30~15:00	박성용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한나라 군사작전으로 본 위만조선 왕검성 위치 고찰
15:00~15:20 휴식			
【제2부-발표】 사회 : 김은국 (한중관계연구소 고중세연구실)	15:20~15:50	정인성 (영남대 문화인류학과)	일제강점기 토성리토성(낙랑토성)의 발굴과 출토유물 재검토 - 봉니와 낙랑예관을 중심으로
	15:50~16:20	복기대 (인하대 융합고고학과)	한군현의 문헌 기록과 고고학 자료 비교 - 낙랑군을 중심으로
16:20~16:30 휴식			
【종합토론】 사회 : 서영수 (단국대 명예교수)	16:30~18:00	발표자 전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목 차

• 환영사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05
• 축 사	이종찬 (우당장학회 이사장)	07
• 발표 1	고조선 왕검성 위치 논의와 쟁점 조법종 (우석대 역사교육과)	15
• 발표 2	한나라 군사작전으로 본 위만조선 왕검성 위치 고찰 박성용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61
• 발표 3	일제강점기 토성리토성(낙랑토성)의 발굴과 출토유물 재검토 - 봉니와 낙랑예관을 중심으로 정인성 (영남대 문화인류학과)	97
• 발표 4	한군현의 문헌 기록과 고고학 자료 비교 - 낙랑군을 중심으로 복기대 (인하대 융합고고학과)	133

[환영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호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재단 행사에 참석해 주신 우당장학회 이종찬 이사장님, 그리고 어려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발표와 토론, 사회를 맡아 주신 다섯 분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늘 우리 상고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를 빛내 주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상고사 연구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우리 역사의 밑바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고사 연구는 기본 자료로써 활용 가능한 사료가 많지 않고, 관련 유적은 소재지가 중국 국경 내이거나 혹은 북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료와 유적에 관한 연구자들의 해석의 여지가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상고사 연구만큼 학자들 사이에 관점과 해석상의 이견이 크고, 소통을 필요로 하는 분야도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재단은 학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한 곳에 모아 격의 없는 학문적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작년 12월 17일 ‘한국 상고사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상고사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상고사의 쟁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상고사 연구를 위해 앞으로 어떤 주제와 연구 방법이 필요한지, 부족한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과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올 한해 동안 우리 재단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한국 상고사의 핵심 쟁점들을 선정하여 각 분기별로 집중 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개방적이고 발전적인 학문적 논의를 통해 소모적이고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던 그동안의 간극을 좁히는 한편, 우리 상고사에서 오랫동안 꼬여 있던 매듭이 풀려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학문은 타협이 아닌 부단한 논쟁을 통해 얻어지는 결실이라고 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나아가 상고사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원고를 작성하시고 토론을 맡아 주신 조범중, 박성용, 정인성, 복기대 선생님, 그리고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아 주신 서영수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고 준비한 재단의 여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봄기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 호 섭

[축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주최하는 2016년 상고사 토론회에 참석하여 축하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회를 거듭하면서 우리 역사학계에서 서로 다른 주장들이 어떤 공통된 시각과 가치로 발전하게 되리라 믿고 싶습니다.

나는 최근 오늘 이 토론회에 참석하고 계신 영남대학교 정인성 교수께서 한겨레신문에 연재물로 기고하신 일본 식민사학자 야쓰이 세이지(谷井 濟一)가 남긴 비망록을 소개한 글을 세심하게 잘 읽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내가 설명하기 어렵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려던 1900년대 초, 일본의 한 20대의 청년 대학생이 벌써 <임나일본부>에 대하여 글을 썼고, 이를 한반도에서 직접 실증하고자 경주 고분을 발굴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비록 역사왜곡을 작심하고 나서기는 하였지만 어쨌든 당시 일본 젊은이들의 용기와 역사 연구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생이 야쓰이 한 사람이 아니라 많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면서 “이런 일본의 젊은이들이 있었기에 잠자고 있던 조선왕국을 삼키는데 주저함이 없었겠구나.” 하는 감탄 아닌 비탄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청년시절 정보장교로 근무할 당시, 중국 집안현(集安縣)에서 발견된 광개토대왕비를 일본의 정보장교가 변조했다는 문서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일본의 군사정보기관이 한반도와 중국 대륙을 침략하기 위해 사전에 광범하고, 집요하게 역사변조를 했다는 사실에 놀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후 재일교포 사학자 이진희(李進熙) 교수의 글을 읽고 광개토대왕비 변조설에 대하여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제강점기’라 하지만 나는 ‘대일항쟁기’라 정정하여 말하고 싶습니다. 당시 나는 항쟁가문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때 어른들이 하신 말씀들을 지금 회고해 보면, 모두 악랄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것이 화제였습니다. 나의 종조부인 초대부통령 성재 이시영(省齋 李始榮)옹은 1934년 중국에서 일본 고등계 경찰과 헌병의 수배를 받으면서도 중국과 일본 양국의 역사왜곡에 대하여 저항했습니다. 당시 중국인 역사학자 황염배(黃炎培)¹⁾가 『조선(朝鮮)』이란 책을 출간했는데 그의 교육배경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완전히 일본의 식민사학자의 입장에서 서술했습니다. 성재는 이를 분개하여 『感時慢語 -駁黃炎培之韓史觀-』²⁾이란 책을 써서 반박하였습니다.

이런 역사전쟁에 나섰던 분은 비단 성재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선열들은 모두 공통된 사관으로 무장하여 싸웠고, 심지어 체포되어 옥중에 가뒀어도 국내의 언론에서 그분들이 저술한 역사를 원고로 받아 신문에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료를 옥중영치금으로 보내서 다시 용기를 갖고 역사 연구를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런 내외의 일치된 ‘우리역사 찾기’ 운동의 불꽃은 ‘우리 말 찾기 운동’과 더불어 끊임없이 점화되어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막대한 연구비와 현대적인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마음껏 역사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는 우리 옛 역사의 고지도(古地圖)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음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뿐입니까? 아직도 일본이 왜곡한 역사에 대하여 올바른 역사로서 대항하지 못하고, “임나일본부가 한반도에 있었느니, 없었느니”에 대하여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나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근래, 일본의 우익 세력들이 또 다시 대대적으로 역사를 정치에 종속시켜 서술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소름이 끼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黃炎培 (1879~1963) 중국 江蘇省 川沙縣 출신, 일본 유학하여 교육학 전공, 귀국하여 江蘇省 教育司長, 중일전쟁 중에는 국민참정회 상임위원,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무원 부총리 겸 경공업부장,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저서로는 『延安歸來』, 『朝鮮』이 있다.
2) 성재 이시영 옹의 저서 『감시만어(感時慢語 -駁黃炎培之韓史觀-)』, 부제 자체가 ‘황염배의 한국 사관을 반박한다.’로 되어있다. 원문은 한문으로 저술되었다. 1983년 4월 17일 일조각에서 이를 한글로 번역하여 출간

조국이 광복을 찾은지 70주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 동안 이웃나라들은 제각기 자국의 국가 이익을 위하여 대대적으로 역사작업을 하면서 건강부회(牽強附會)식으로 동북아의 역사를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는 이런 역사왜곡에 대항하여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야말로 아무런 무장도 갖추지 못한 채 죽창(竹槍) 들고 총포로 무장한 외세에게 대항하다가 무참히 희생된 의병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희망하는 바는 다른 나라와 같이 국가 우위의 '간교한' 역사를 만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역사, 동북아에서 상식이 통하는 공통된 역사, 변조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과거와 현재를 이으면서 올바른 대화가 가능한 그런 글로벌한 역사를 정립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 사업들이 바로 우리 선열들이 찾고자 했던 역사, 지금도 우리 국민 대부분에게 전수해 내려오면서 가슴속에 품고 있는 역사를 역사답게 찾아달라는 작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비단 나만의 희망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국민의 소망인 것입니다.

2016년 3월 22일

광복회 이사 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이 중 찬

<일러두기>

* 이 자료집은 동북아역사재단 2016년 상고사토론회 "한국 상고사의 쟁점: 왕 검성과 한군현"의 발표문을 모은 것입니다. 각 발표문에서 제시된 해당 주제에 대한 관점과 연구결과, 제안 등은 발표자 개인의 견해이며, 재단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발표 1>

고조선 왕검성 위치 논의와 쟁점

조법종 (우석대 역사교육과)

고조선 왕검성 위치 논의와 쟁점

조법중 (우석대 역사교육과)

서 언

고조선관련 논의는 전통 역사학계에서 고조선 영역의 범위와 중심지 특히, 도읍 王儉城의 위치 등이 핵심적 쟁점으로 현재까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고조선의 위치와 도읍에 대한 논의내용은 특히, 溟水, 王儉城 및 樂浪郡의 위치 등 역사지리적 공간에 대한 논의가 문헌검토를 통해 주로 진행되었고 일제 강점기 대동강연안에서 확인된 중국계유물의 확인은 낙랑군 위치의 평양 고정과 함께 고조선 중심지 및 도읍 논의를 한반도내에서 구하는 입장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민족사학자들의 논의와 1950-1970년대 북한학계에 의한 고조선 요동중심설의 확산, 1980년대 일부 한국학계에서의 수용은 재야의 관심과 함께 고조선 중심지 논의를 더욱 다변화시켰다. 한편, 1980년대말 고조선 중심지 이동설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1993년 북한학계의 단군릉 발굴을 통한 고조선 중심왕검성=평양설의 재등장과, 대동강문화론의 전개 등은 기존 고조선 중심지 논의를 평양설, 요동설, 이동설 등으로 더욱 다기화 하였다.

한편, 1992년 한중수교이후 적극 수용된 중국 고고학계의 성과는 고조선 논의에 대한 문헌사적 입론을 현장 확인과 연결시켜 요동, 요서지역과 관련된 고고학적 체계를 바탕으로 문헌사와의 결합을 통해 고조선의 영역과 중심지 논의를 보다 입체적으로 제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기존 논의에서 간과된 점은 왕협성과 낙랑군의 위치를 동일한 공간으로 전제하고 파악하는 논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낙랑군 설치시점과 왕협성 붕괴시점

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 공간을 나누어 놓고 봐야 한다는 논의³⁾가 적절히 규명되고 이들 논의가 정착되었어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없이 왕험성 및 낙랑군의 위치 논의가 여전히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핵심사료에 나타난 패수, 왕험성, 낙랑군의 위치 정황과 고고학적 검토를 바탕으로 고조선의 중심지와 도읍에 대한 기왕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기》 조선전과 공신제후표를 비교해 위만조선 봉괴시점과 낙랑군 등 군현 설치 상황을 파악해 왕험성과 낙랑군의 위치가 다를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⁴⁾

1. 위만조선 지리관련 사료검토

1) 《사기》 조선전

《史記》 115 朝鮮列傳55

朝鮮王滿者，故燕人也。

自始全燕時嘗略屬真番、朝鮮，為置吏，築鄣塞。

秦滅燕，屬遼東外徼。

漢興，為其遠難守，復修遼東故塞，至泃水為界，屬燕。

燕王盧綰反，入匈奴，滿亡命，聚黨千餘人，魑結蠻夷服而東走出塞，渡泃水，居秦故空地上下部，稍役屬真番、朝鮮蠻夷及故燕、齊亡命者王之，都王險。

會孝惠、高后時天下初定，遼東太守即約滿為外臣，保塞外蠻夷，無使盜邊；諸蠻夷君長

3) 趙法鍾, 2000, 〈衛滿朝鮮의 崩壞時點과 王險城, 樂浪郡의 位置〉, 《韓國史研究》 110

趙法鍾, 2000, 〈衛滿朝鮮의 對漢戰爭과 降漢諸侯國의 性格〉, 《先史와 古代》 14.

4) 본 발표문은 연구사적 쟁점 검토를 중심으로 진행하여 기존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재정리하였음.

조법중, 1999 〈고조선 관계 연구의 현황과 과제〉 《단군학연구》 1

조법중, 2002 〈고조선의 영역과 그 변천〉 《韓國史論》 34, 국사편찬위원회

조법중, 2006 〈중국학계의 고조선연구검토 - 동북공정 전후시기 연구를 중심으로 -〉 《韓國史學報》 제25호

조법중, 2011, 〈식민주의적 고조선사 인식의 비판과 과제〉 《한국고대사연구》 61 한국고대사학회

欲入見天子，勿得禁止。以聞，上許之，以故滿得兵威財物侵降其旁小邑，真番、臨屯皆來服屬，方數千里。

傳子至孫右渠，所誘漢亡人滋多，又未嘗入見；真番旁衆國欲上書見天子，又擁闕不通。

元封二年，漢使涉何譙諭右渠，終不肯奉詔。何去至界上，臨涓水，使御刺殺送何者朝鮮裨王長，即渡，馳入塞，遂歸報天子曰〈殺朝鮮將〉。上為其名美，即不詰，拜何為遼東東部都尉。朝鮮怨何，發兵襲殺何。

天子募罪人擊朝鮮。其秋，遣樓船將軍楊僕從齊浮渤海；兵五萬人，左將軍荀彘出遼東：討右渠。右渠發兵距險。左將軍卒正多率遼東兵先縱，敗散，多還走，坐法斬。樓船將軍將齊兵七千人先至王險。右渠城守，窺知樓船軍少，即出城擊樓船，樓船軍敗散走。將軍楊僕失其衆，遁山中十餘日，稍求收散卒，復聚。左將軍擊朝鮮涓水西軍，未能破自前。

天子為兩將未有利，乃使衛山因兵威往諭右渠。右渠見使者頓首謝：〈願降，恐兩將詐殺臣；今見信節，請服降。〉遣太子入謝，獻馬五千匹，及饋軍糧。人衆萬餘，持兵，方渡涓水，使者及左將軍疑其為變，謂太子已服降，宜命人毋持兵。太子亦疑使者左將軍詐殺之，遂不渡涓水，復引歸。山還報天子，天子誅山。

左將軍破涓水上軍，乃前，至城下，圍其西北。樓船亦往會，居城南。右渠遂堅守城，數月未能下。

左將軍素侍中，幸，將燕代卒，悍，乘勝，軍多驕。樓船將齊卒，入海，固已多敗亡；其先與右渠戰，因辱亡卒，卒皆恐，將心慙，其圍右渠，常持和節。左將軍急擊之，朝鮮大臣乃陰間使人私約降樓船，往來言，尚未肯決。左將軍數與樓船期戰，樓船欲急就其約，不會；左將軍亦使人求間卻降下朝鮮，朝鮮不肯，心附樓船：以故兩將不相能。左將軍心意樓船前有失軍罪，今與朝鮮私善而又不降，疑其有反計，未敢發。天子曰將率不能，前〔及〕〔乃〕使衛山諭降右渠，右渠遣太子，山使不能割決，與左將軍計相誤，卒沮約。今兩將圍城，又乖異，以故久不決。使濟南太守公孫遂往〔征〕〔正〕之，有便宜得以從事。遂至，左將軍曰：〈朝鮮當下久矣，不下者有狀。〉言樓船數期不會，具以素所意告遂，曰：〈今如此不取，恐為大害，非獨樓船，又且與朝鮮共滅吾軍。〉遂亦以為然，而以節召樓船將軍入左將軍營計事，即命左將軍麾下執捕樓船將軍，并其軍，以報天子。天子誅遂。

左將軍已并兩軍，即急擊朝鮮。朝鮮相路人、相韓陰、尼谿相參、將軍王暎相與謀曰：〈始欲降樓船，樓船今執，獨左將軍并將，戰益急，恐不能與，（戰）王又不肯降。〉陰、

映、路人皆亡降漢。路人道死。

元封三年夏，尼谿相參乃使人殺朝鮮王右渠來降。王險城未下，故右渠之大臣成巳又反，復攻吏。左將軍使右渠子長降、相路人之子最告諭其民，誅成巳，以故遂定朝鮮，為四郡。封參為漕清侯，陰為荻苴侯，映為平州侯，長 [降] 為幾侯。最以父死頗有功，為溫陽侯。

左將軍徵至，坐爭功相嫉，乖計，弃市。樓船將軍亦坐兵至洌口，當待左將軍，擅先縱，失亡多，當誅，贖為庶人。

太史公曰：右渠負固，國以絕祀。涉何誣功，為兵發首。樓船將狹，及難離咎。悔失番禺，乃反見疑。荀彘爭勞，與遂皆誅。兩軍俱辱，將率莫侯矣。

【索隱述贊】衛滿燕人，朝鮮是王。王險置都，路人作相。右渠首差，涉何調上。兆禍自斯，狐疑二將。山、遂伏法，紛紜無狀。

2) 《前漢紀》 5)

(元封)二年冬十月。行幸雍。祠五畤。春正月。行幸緱氏。遂至東萊。夏四月。祠太山。至瓠子。臨決河。令從臣等將軍已下。皆負薪塞河。作瓠子之歌。赦所過徒。賜孤獨高年米。行還。築通天台于甘泉。作飛廉館于長安。公孫卿言仙人可見。陛下每在常處。故不見。故作通天台以候神。

朝鮮王反。殺遼東太守。募天下死罪擊朝鮮。朝鮮本秦時屬遼東。漢興以為其遠難守。故遼水為塞。盧縮之反也。燕人衛滿亡命。聚黨千餘人在遼。居秦故地。稍稍侵屬其東小蠻夷而王之。地方數千裏。保塞外為臣。傳子到孫。至右渠抗命不賓。故於是而伐之。六月。甘泉宮中生芝草九莖。上嘉之。乃赦天下。作芝房之歌。

秋。作明堂於太山下。遣樓船將軍楊僕。左將軍荀彘。將應募罪人擊朝鮮。又遣將軍郭昌等平西南夷未服者。以為益州郡。

三年春。作角抵戲。以享外國朝獻者。三百余里內人皆觀。夏。朝鮮斬其王右渠以降。以

5) 《前漢紀》는 원 명칭이 《漢紀》인데 후한의 학자荀悅(148-209)의 저작이다. 漢獻帝가 《左傳》 형식을 참조해 기전체 《漢書》를 편년체 형식으로 축약해 바꾼 編年體 단대역사서이다.

其地为乐浪临屯玄菟贞番四郡。杨仆坐失亡多。免为庶人。荀彘坐争功弃市。秋七月。济西王瑞薨。

前汉孝武皇帝纪 14

3) 《三國志》 인용 《魏略》

侯準既僭號稱王，為燕亡人衛滿所攻奪，

[一]魏略曰：昔箕子之後朝鮮侯，見周衰，燕自尊為王，欲東略地，朝鮮侯亦自稱為王，欲興兵逆擊燕以尊周室。其大夫禮諫之，乃止。使禮西說燕，燕止之，不攻。

後子孫稍驕虐，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取地二千餘里，至滿番汗為界，朝鮮遂弱。

及秦并天下，使蒙恬築長城，到遼東。時朝鮮王否立，畏秦襲之，略服屬秦，不肯朝會。

否死，其子準立。二十餘年而陳、項起，天下亂，燕、齊、趙民愁苦，稍稍亡往準，準乃置之於西方。

及漢以盧綰為燕王，朝鮮與燕界於涇水。

及綰反，入匈奴，燕人衛滿亡命，為胡服，東度 涇水，詣準降，說準求居西界，（故）

[收] 中國亡命為朝鮮藩屏。

準信寵之，拜為博士，賜以圭，封之百里，令守西邊。

滿誘亡黨，衆稍多，乃詐遣人告準，言漢兵十道至，求入宿衛，遂還攻準。準與滿戰，不敵也。

將其左右宮人走入海，居韓地，自號韓王。

[二]魏略曰：其子及親留在國者，因冒姓韓氏。準王海中，不與朝鮮相往來。其後絕滅，今韓人猶有奉其祭祀者。漢時屬樂浪郡，四時朝謁。

[三]魏略曰：初，右渠未破時，朝鮮相歷谿卿以諫右渠不用，東之辰國，時民隨出居者二千餘戶，亦與朝鮮貢蕃不相往來。

4) 위만조선과 한의 공간 사료검토

위만 망명을 전후한 시기의 《사기》와 《전한기》, 《삼국지》 인용 魏略자료를 도표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시기		사건	공간명칭						
			요동군	요동고새	패수	연장예진)요동외요진고공지상하장	만연한	조선서계	왕림성
燕易王 BC323	燕自尊 為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 稱為王, 欲 與兵逆擊燕 以尊周室							
燕昭王 BC312- 279	全燕時	略屬真番朝鮮 燕乃遣將秦 開攻其西方.. 朝鮮遂弱	取地二 千餘里			置吏築鄣 塞	至滿番 汗為界		
BC222	秦滅燕	時朝鮮王否 立畏秦襲之 略服屬秦	蒙恬築 長城到 遼東			屬遼東外 徼 朝鮮本秦 時屬遼東			
BC209 -202	陳項起	天下亂						燕齊趙 民愁苦 稍稍亡 往準 準乃置 之於西 方	
B.C202	漢興	為其遠難守 漢興以為其 遠難守 漢以盧縮為 燕王		復修 遼東故 塞 故遼水 為塞 朝鮮與 燕界於 涓水	至涓水 為界屬 燕				
BC195	燕王盧	滿亡命聚黨		東走出	渡涓水	居秦故空			

		千餘人魑結 蠻夷服而		塞		地上下郭			
		燕人衛滿亡 命。聚黨千 餘人			在遼	居秦故地			
	箱反入 匈奴	燕人衛滿亡命 為胡服			東度 涿 水詣準降			說準求居 西界.. [收] 中 國亡命為 朝 鮮 藩 屏.. 準信寵之 拜為博士 賜 以 圭 封之百里 令守西邊	
								稍 役 屬 真 番 朝 鮮 蠻 夷 及 故 燕 齊 亡 命 者 王 之 滿 誘 亡 黨 衆 稍 多 詐 遣 人 告 準 言 漢 兵 十 道 至 求 入 宿 衛 遂 還 攻 準	都王險
								(準)將其 左右官人 走入海居 韓地	
BC194 -180	孝惠高 后時		遼東太 守即約 滿為外 臣			侵 隄 其 旁 小 邑 眞 番 臨 屯 皆 來 服 屬 方 數 千里			
8 4 년 경과	傳子至 孫右渠					所誘漢亡 人滋多			
BC10 9	元封二 年	天子募罪人擊 朝鮮 其秋遣樓船將 軍楊僕從齊浮 渤海 兵五萬人 左將軍荀彘出 遼東討右渠	遂歸 報 天子 ..拜 何 為 遼 東 東 部 都 尉 ← 朝 鮮 怨 何 發 兵 襲 攻 殺 何	← 馳 入 塞	← 涿 水 使 御 刺 殺 送 何 者 朝 鮮 裨 王 長 即 渡	← 何 去 至 界 上		← 漢 使 涉 何 謙 諭 右 渠 終 不 肯 奉 詔	

				右渠發兵阻險 左將軍卒正多率遼東兵先縱敗散多還走坐法斬 左將軍擊朝鮮沮水西軍未能破自前					樓船將軍將齊兵七千人先至王險 右渠城守窺知樓船軍少即出城擊樓船樓船軍敗散走
				衛山因兵威往諭右渠	遣太子獻馬五千匹及饋軍糧人衆萬餘持兵方渡沮水..				
BC108	元封三年夏			左將軍破沮水上軍 濟南太守公孫遂往〔正〕之		乃前			至城下圍其西北樓船亦往會居城南 右渠遂堅守城數月未能下
		尼谿相參乃使人殺朝鮮王右渠來降						王險城未下故右渠之大臣成已又反復攻吏	
BC107 ?		右渠子長降相路人之子最告諭其民誅成已							以故遂定朝鮮為四郡

2. 고조선 중심지 논의⁶⁾

고조선은 학자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조선(단군조선), 후조선(기자, 예맥) 및 위만조선으로 구분되어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고조선관련 연구⁷⁾의 핵심적 쟁점사항은 각 시기별 영역과 도읍지관련 내용으로 전통사학이래 평양 중심설, 요령중심설, 요령-평양이동설 등 세 가지 입장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⁸⁾ 그런데 고조선 중심지에 대한 인식이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근대 일본학계는 낙랑문제⁹⁾와 연결지어 한반도설을 체계화하려 하였고 북한학계는 자체 위치논쟁이후 요령설¹⁰⁾을 견지하다¹¹⁾ 단군릉 발굴 이후¹²⁾ 평양지역에서 요녕지역으로 확장하였다는 인식으로 급변하였다. 한편, 중국학계는 기본적으로 ‘기자조선’문제를 중심으로 중국계 세력에 의한 고조선 사회구성을 주로 검토하며 이들 세력의 범위문제등과 연결하여 요령, 평양설 등을 제기하고 있다.¹³⁾

이같은 논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검토를 바탕으로 각 국가 및 시기별 연구내용을 압축적으로 검토하여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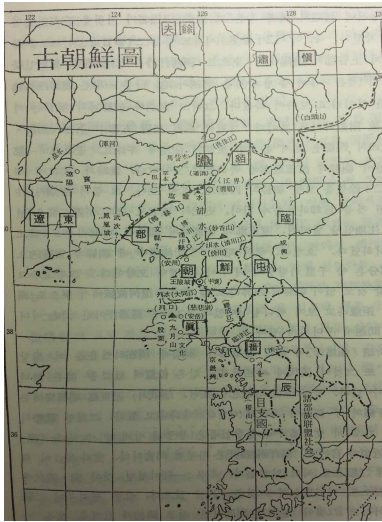
-
- 6) 조법중, 2015, <고조선의 중심지 및 도읍관련 논의와 쟁점>, 《고조선과 위만조선의 연구쟁점과 대외교류》 학연문화사
- 7) 노태돈, 1989, <고조선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상고사-연구현황과 과제-》, pp.185~192
 김정배, 1997,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
 조법중, 1999, <고조선 관계 연구의 현황과 과제> 《단군학연구》 1
 김정배, 2003, <고조선 연구의 현황과 과제> 《단군학연구》 9 ;
 박선미, 2006, <근대사학 이후 고조선사 연구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학보》 23
 동북아역사재단-고조선사연구회 편, 2009 《고조선사 연구 100년-고조선사 연구의 현황과 쟁점-》
- 8) 서영수, 1988,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시민강좌》 2
 노태돈, 1990, <고조선의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한국사론》 23
 오강원, 1996·97, <고조선 위치비정에 관한 연구사적 검토(1·2)> 《백산학보》 48·49
 조법중 2002, <고조선의 영역과 그 변천> 《韓國史論》 34, 국사편찬위원회
 송호정, 2010, <고조선의 위치와 중심지 문제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58.
 박준형, 2012, <대동하-서북한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변동과 고조선의 위치>, 《한국고대사연구》, 66,
 서영수 외, 2009, 《고조선사연구 100년-고조선사 연구의 현황과 쟁점-》, 학연문화사
 단국대동양학연구원, 2015, 《고조선과 위만조선의 연구쟁점과 대외교류》, 학연문화사
- 9) 조법중, 1992, <樂浪問題(平壤地域文化)에 대한 일본역사학계의 인식검토>, 《송갑호선생화갑기념사학논총》:2006,
 《고조선 고구려사연구》, 신서원
 오영찬 2006 《낙랑군 연구》 사계절
 조법중, 2011, <식민주의적 고조선사 인식의 비판과 과제> 《한국고대사연구》 61 한국고대사학회
- 10) 리지린, 1963, 《고조선연구》
- 11) 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 1991 《조선전사》 2,
 12) 박진욱 1994, <단군릉 발굴정형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4년
- 13) 조법중, 2006, <중국학계의 고조선연구검토 - 동북공정 전후시기 연구를 중심으로 -> 《韓國史學報》 25
 이성규, 2011, <중국사학계에서 본 고조선>, 《한국사시민강좌》 49

1) 고조선 재한반도설

고조선의 영역을 한반도를 중심으로 大洞江 유역에서 찾는 견해는 크게 중국측 학자들이 유지한 견해와 대부분의 우리 나라 전통 학자들 및 일본학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먼저 北魏 酈道元(469-527)은 《水經注》를 통해 平壤=樂浪郡 朝鮮縣=(王險城)인식을 부각시켰다.¹⁴⁾ 또한 《史記索隱》에 인용된 薛瓚도 王險城과 樂浪郡을 연결짓고 있으며¹⁵⁾ 이후 唐代에 편찬된 《括地志》 등에서 이와 같은 이해를 고착하고¹⁶⁾ 杜佑의 《通典》에서 정설로서 자리잡게 되었다.¹⁷⁾

한국측 기록은 《三國遺事》를 기록한 一然의 견해가 첫 견해로 나타나고 있다. 일연은 檀君朝鮮에 대한 기록에서 대부분의 지명을 平壤을 중심한 지역과 연결시키고 있다.¹⁸⁾ 또한 조선초기에 편찬된 《東國通鑑》이나 《東國輿地勝覽》¹⁹⁾에서도 古朝鮮의 중심지는 압록강 이남으로 비정되고 있다.



<그림 1> 이병도, 1976,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p.69

고조선의 대동강 중심설에 대한 일제강점기 일본역사학자들의 古朝鮮 이해는 前漢 武帝가 위만조선을 붕괴시키고 세운 '漢四郡'이 중심이 된 내용이다. 따라서 일본학자들의 고조선에 대한 구체적인 개별연구는 거의 전무한 대신 樂浪 등을 중심한 '漢四郡의 歷史'가 고조선사를 대치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古朝鮮 및 樂浪의 역사지리문제와 관련된 논의는 단군 및 고조선의 역사공간을 한반도내에 국한시켜 이해하려는 인식이 투영되어 가급적 한반도내에 관련 지역을 설정하는 인식내용을 보여주었다. 먼저, 역사지리 문제로서 제기된 것은 秦의 長城이 끝나는 곳이 어

14) 《水經注》 溟水, “溟水出樂浪鏤方縣東南過臨溟縣東入於海……余訪蕃使 言城在溟水之陽 其水西流逕故樂浪朝鮮縣 卽樂浪郡治 漢武帝置 而西北流 故地理志曰 溟水西至增地縣入海”.

15) 《史記》 朝鮮傳, “臣瓚云 王險城在樂浪郡溟水之東也” 《漢書》 地理志 “臣瓚曰 王險城在樂浪郡溟水之東 此自是險瀆也 師古曰 瓚說是也”

16) 《正義》 潮仙二音括地志云 高麗都平壤城 本漢樂浪郡王險城 又古云朝鮮地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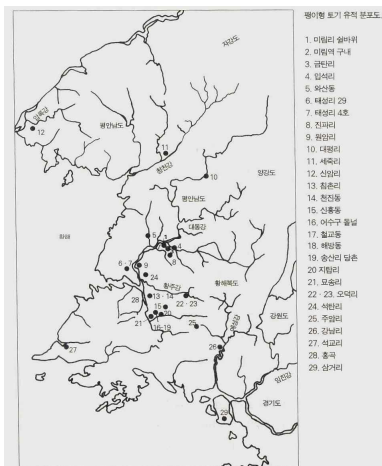
17) 《通典》 邊防典凡十六卷 卷一百八十五 邊防一 東夷上 序略, “秦并天下 其淮 泗夷皆散爲人戶·其朝鮮歷千餘年 至漢高帝時滅·武帝元符中 開其地 置樂浪 等郡 … 高麗本朝鮮地 漢武置縣 屬樂浪郡 時甚微弱·後漢以後 累代皆受中 國封爵 所都平壤城 則故朝鮮國王險城也”

18) 《三國遺事》 권1, 紀異 古朝鮮. 일연은 阿斯達은 開城 주변, 太白山은 妙香山으로 비정하고 檀君이 도읍한 平壤城을 西京 즉 현재의 平壤으로 지적하고 있다.

19) 《東國輿地勝覽》 51, 平壤府 建置沿革.

다인가 라는 점이다. 溟水와 洌水의 위치문제였다. 먼저 洌水의 경우 1916년 今西龍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보고된 ‘粘蟬縣碑’의 발견위치가 평안남도 龍岡郡으로서 이것의 존재가 大同江을 洌水로 보게한다는 점에서 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으나²⁰⁾ 溟水의 경우 예성강,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 등으로 파악하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패수는 연장성의 동단문제와 위만의 고조선진입 및 전한 무제와의 전쟁과정에서 계속 등장한 중국세력과 고조선의 경계로서 일본학자들도 많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패수의 위치에 대해서는 那珂通世가 대동강설을 제시한 이래²¹⁾ 稻葉岩吉도 이를 따랐다.²²⁾ 그러나 津田左右吉²³⁾, 白鳥庫吉²⁴⁾은 漢魏시대는 압록강, 隋唐시대는 대동강이라는 설을 제시하였고 今西龍은 粘蟬碑 발견을 근거로 패수=청천강, 열수=대동강설²⁵⁾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 송호정, 2003, 전게서 p.99

이와 함께 漢郡縣의 위치문제에 대한 논의는 樂浪의 경우 大同江일대로 고분유적 등에 의해 확정된 상황에서 眞番郡의 위치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일본인 학자들은 이를 식민지배의 역사적 설명도구로 활용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1930년대 집중적으로 발굴된 낙랑 유적의 중국계 유물, 유적을 결정적 근거로 활용하였다.²⁶⁾

한편 李丙燾는 위만 조선인설을 제기하고 4군의위치에 대해 낙랑군은 조선의 중심지였던 대동강 유역 일대, 진번군은 현 황해도 일대, 임둔군은 함남 일대, 현도군은 압록강 중류 일대로 비정하였다.²⁷⁾

20) 今西龍, 1929, <洌水考>, 《朝鮮支那文化の研究》; 1937,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21) 那珂通世, 1894 <朝鮮樂浪玄菟帶方考> 《史學雜誌》5-4 東京大學文學部內史學會
 22) 稻葉岩吉, 1910, <秦長城東端及王險城考> 《史學雜誌》21-2 東京大學文學部內史學會
 23) 津田左右吉, 1912, <溟水考>, 《東洋學報》2卷 2號
 24) 白鳥庫吉, 1912, <漢の朝鮮四郡疆域考>, 《東洋學報》2-2 東洋學術協會
 25) 今西龍, 1916, <眞番郡考> 《史林》1-1 史學研究會; 1937,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26) 조법중, <한사군문제(平壤지역문화)에 대한 일본역사학계의 인식검토> (《송갑호선생화갑기념사학논총》, 1992).
 27) 李丙燾, 1929, <眞番郡考> 《史學雜誌》40篇 5號
 李丙燾, 1930, <玄菟郡及臨屯郡考> 《史學雜誌》41篇 4,5號
 이병도, 1976,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조인성, 2009 <이병도의 《한국고대사연구》—한사군·삼한의 역사지리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55.
 조인성, 2009, <이병도의 한국고대사연구와 식민주의사학의 문제 - 《한국고대사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144
 권오중, 2010, <낙랑군 연구의 현황과 과제>, 《낙랑군 호구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조법중, 2011, <식민주의적 고조선사 인식의 비판과 과제> 《한국고대사연구》61
 李基東, 2012, <李丙燾 선생의 韓國 고대 역사지리 연구와 그 學術史的 위치> 《震檀學報》116

宋鎬晟은 大凌河 - 遼河를 경계로 요서지역 夏家店 上層文化의 담당자는 山戎族의 문화이고 요동지역 遼寧式 銅劍文化의 담당자는 濊貊族 계통의 문화로 규정한 뒤 遼東지역 청동기 문화를 고조선과 관련된 문화로 보았다.²⁸⁾ 특히, 지석묘, 미송리형 토기 및 팽이형토기로 특징되는 이 지역 문화 중 미송리형 토기문화는 예맥계통의 문화이고 서북한을 중심으로 분포한 팽이형토기문화는 조선의 문화라고 보고 燕과의 관계 속에서 기원전 4세기경 고조선은 濊貊族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였고 기원전 3세기 燕의 공략에 의해 淸川江 이남 지역에서 고조선은 국가적 성장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하였다.²⁹⁾ 이후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하는 논고를 통해 고조선 평양 기원 및 중심설을 유지하고 있다.³⁰⁾

한편, 북한학계에서는 도유호를 중심으로 일련의 고고학 관련 학자들이 60년대 초반 평양지역의 유적 유물에 입각하여 平壤中心說을 주장하였으나 요동설로 공식적 입장이 정리된 이후 이 같은 견해가 제기되지 못하다가 최근 檀君陵 발견이 공식적으로 공표되면서 새로운 입장으로 재등장하고 있다.³¹⁾ 즉, 북한학계는 단군조선의 초기영역이 평양을 중심으로 한반도에서 시작하여 遼河, 松化江 상류로 확대되었다고 보았다. 이후 後朝鮮(箕子朝鮮) 시기에는 중국과의 경계선이 灤河유역으로 확대된 후 燕과의 갈등, 秦과의 갈등이 지속되었고 漢대에는 현재의 大凌河를 溟水로 파악하여 이를 경계로 漢과 대립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漢이 침공한 곳은 副首都인 요동지역의 王儉城으로 이곳에 漢四郡이 설치된 것으로 보았다.³²⁾

한편 2005년 낙랑구역에서 발견된 낙랑군의 計簿라고 이해되어지는 樂浪郡 初元四年 縣別戶口簿 木簡의 발견은 마지막 도읍지 왕검성의 평양설을 확인시켜주는 자료로 파악되고 있다.³³⁾

28) 宋鎬晟, 〈古朝鮮 國家形成 過程 研究〉(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9).

29) 송호정, 2003, 《한국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p.p.193-208

30) 송호정, 2010, 〈고조선의 위치와 중심지 문제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58.

31) 북한의 사회과학원은 平壤의 근교에 있는 강동군 강동읍의 대박산에 존재한 무덤에 대하여 1993. 10. 2. 〈단군릉 발굴보고〉를 발표하고 10월 12일 〈단군 및 古朝鮮에 관한 학술 발표회〉를 개최하여 이 무덤이 단군릉임을 확정지었다(이형구 편, 《단군을 찾아서》, 1993, 살림터 ; 북한문제연구소편, 《북한의 단군릉 발굴관련 자료》, 1993).

32) 사회과학출판사, 1999 《고조선력사개관》

33) 손영중, 2006, 《조선단대사-고구려사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p.118-124.

손영중은 초원4년 락랑군 현별 호구수에 관한 목간이 락랑구역 귀틀무덤에서 나온 것은 락랑군 아전인 피장자가 락랑군에서 문제가 있어 락랑국으로 망명하여 문헌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윤용구, 2007, 〈새로 발견된 樂浪木簡 - 樂浪郡 初元四年 縣別戶口簿 〉 《韓國古代史研究》 46, 한국고대사학회

윤용구, 2009, 〈평양 출토 〈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簿〉 연구〉, 《목간과 문자연구》 3, 한국목간학회

권오중 외, 2010, 《낙랑군 호구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0

2) 고조선 재요동설

고조선 요동중심설은 중국측 기록 중 위만조선의 수도인 王險城이 險瀆에 위치하고 있다는 견해로 대표된다. 즉, 裴駰의 《史記集解》에서는 後漢代 徐廣의 견해를 인용하여 昌黎에는 險瀆縣이 있다고 하였다.³⁴⁾ 한편, 唐代 司馬貞이 찬술한 《史記索隱》에서는 徐廣의 말과 후한대 應昭의 주를 인용하여 요동의 險瀆縣이 朝鮮王의 舊都邑이라고 기록하고 있다.³⁵⁾

이러한 이해는 王險城이 遼東지역의 險瀆縣 지역에 있으며 이곳이 조선왕의 舊都邑이라는 인식으로 요약된다.

한국 측 기록 중 고조선의 중심지를 요동지역에 설정하는 견해는 權擘의 《應制詩註》에 나타나고 있다. 이후 洪汝河는 《東國通鑑提綱》에서 眞番을 遼陽에 비정하고 溟水도 遼河로 비정하여 요동중심설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申景濬, 李瀾 등이 고조선의 중심지를 요동지역으로 비정하고 있다.³⁶⁾ 이러한 견해는 申采浩, 崔南善, 安在鴻, 鄭寅普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고조선의 요동중심설은 1960년대 초 이후 북한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³⁷⁾ 요동설과 관련된 북한학계의 일련의 연구과정은 요동설, 평양설 및 이동설로 나뉘어 진행된 논쟁의 기간을 거쳐 리지린으로 대표되는 요동설로 정착되었다.³⁸⁾

북한학계가 파악한 중국 진한대 요수=난하, 패수=대릉하, 왕검성위치는 대릉하와 요하 사이 의무려산 이남 반산³⁹⁾으로 보거나 요동 개평⁴⁰⁾으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한편, 북한학계에서는 1970년대에는 고고학적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고조선의 역사상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특히, 고조선의 실체에 대한 접근에 있어 고고학적 성과를 문헌 연구성과와 결합하여 고조선의 공간에 대한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기원전 2세기 古朝鮮西邊=溟水=大凌河로, 溟水=遼河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왕검성은 요하하류 해

34) 《集解》 徐廣曰 昌黎有險瀆縣也

35) 《漢書》 志 28下 地理志8下 索隱 韋昭云 〈古邑名〉·徐廣曰 〈昌黎有險瀆縣〉·應劭 注 〈地理志遼東險瀆縣 朝鮮王舊都〉 應劭曰 朝鮮王滿都也·依水險 故曰險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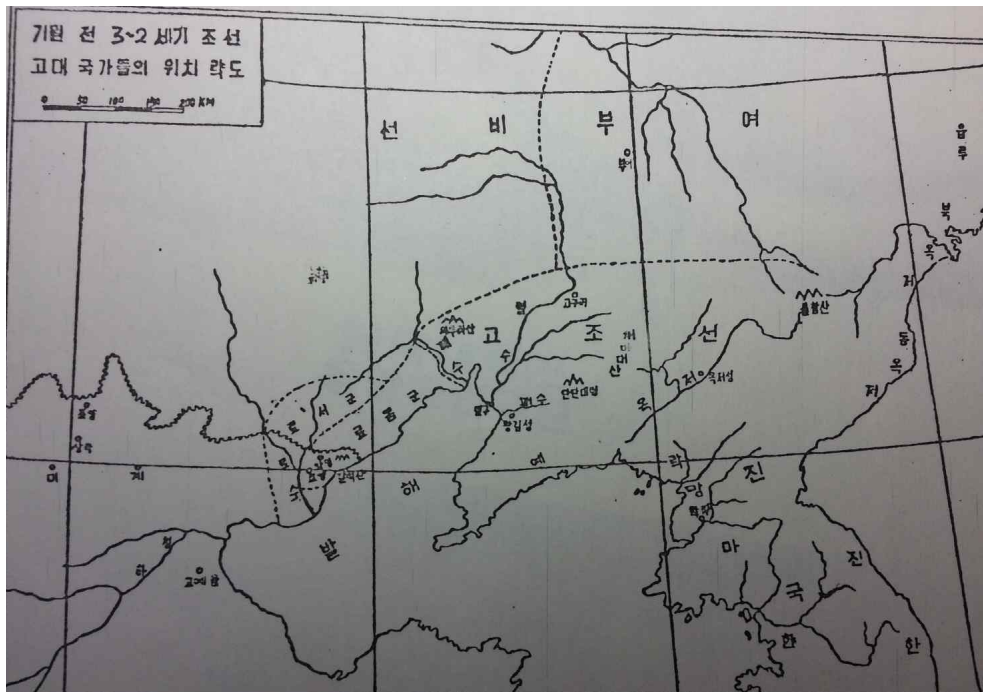
36) 韓永愚, 《朝鮮後期 史學史研究》(一志社, 1989).

37) 徐榮洙, 앞의 논문(1988), 28-32쪽.

38) 조범중, 〈북한의 古朝鮮사 인식체계에 대한 고찰〉(《북한의 우리고대사 인식》 I, 대륙연구소, 1991).

39) 림건상, 1963, 〈고조선의 위치에 대한 고찰〉, 《고조선토론논문집》, 과학원출판사.

40) 리지린, 1963, 《고조선연구》, 학우서방



<그림 3> 리지린, 1964, 『고조선연구』, 학우서방

성과 개평사이의 지역으로 상정하였는 바 이는 이미 리지린 등에 의해 제시되었던 것을 반복한 것이다. 결국 이 같은 고조선 인식 틀은 요동중심설이 고고학적으로 확립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기존 평양지역의 樂浪문화를 ‘馬韓의 文化’로 새롭게 설정하여 이해하였다.⁴¹⁾ 그러나 이 견해는 북한이 가장 중시해야 할 평양의 성격이 모호해지는 문제를 야기하였고 따라서 1970년대 주체사관이 강조되며 평양이 부각되자 평양을 고조선과 연결지어 고조선의 부수도 개념을 부각하는 인식으로 다시 수정되었다.⁴²⁾ 또한 고조선을 포함한 예, 맥, 한족의 공통기반문화로서 비파형단검문화를 구체화하여 비파형단검이 중국동북지방의 요동지방, 요서지방; 길림·장춘지방 ; 한반도 서북부·서남부 등에서 발견되어 비파형단검문화가 고조선 한 나라의 문화일 뿐만 아니라 전체 고대 조선족의

41) 리순진·장주협, 1973, 《고조선문제연구》.

이같은 인식은 요동중심설의 입장에서 위만에게 쫓긴 준왕이 망명한 지점으로서 평양을 상정하여 청천강-예성강을 계선으로 갖는 지역에 독자적인 馬韓의 문화가 존속되었음을 주장한 견해로 고조선인식에서 가장 큰 난제였던 평양지역문화를 새롭게 이해한 독특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견해는 이미 신채호의 《전후삼한고》에 나타나고 있는 전삼한 북삼한의 인식체계와 대비될 수 있는 견해로 북한학계의 고조선인식체계의 기본구도가 민족주의역사학자로 운위되는 신채호의 견해를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일면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42)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고조선문제연구논문집》, 사회과학출판사

이는 고조선의 영역을 요동지역을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은 같으나, 그 남쪽계선에 대해서는 청천강이 아닌 예성강으로 바뀌고 있는 점이다. 즉, 종래 마한의 문화로 이해하였던 평양지역의 문화를 고조선과 일정하게 구별되는 독자문화로 파악하였던 인식이 수정되었던 것이다.

문화라는 인식을 제시하였다.⁴³⁾ 이같이 고조선의 요동중심과 평양지역을 재 강조하는 북한학계의 요동중심설은 1993년 <단군릉> 발굴 및 재건을 기회로 고조선 평양중심+요동지역 확장설로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되었다.⁴⁴⁾

한편, 평양일대 낙랑유적에 대해서는 고조선 종말이후 고조선유민의 독자적 중심지이며⁴⁵⁾ 2600여 개의 발굴된 묘는 나무곽무덤⁴⁶⁾, 귀틀무덤⁴⁷⁾, 벽돌무덤⁴⁸⁾등으로 이들은 중국의 것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독자적인 무덤양식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일본인들에 의해 낙랑군 재평양설의 논거가 되었던 봉니와 점제현비석에 대한 기왕의 위조설을 비석과 封泥의 성분분석으로 통해 재천명하였고⁴⁹⁾ 무덤 반출 도장에 대해서는 교역과 포로의 유품으로 파악하는 전통견해를 답습하였다.⁵⁰⁾ 또 발굴된 성곽유적과⁵¹⁾ 비단유물도 중국식이 아님을 강조하여⁵²⁾ 이 지역의 문화와 주민이 중국과는 구별되는 존재임을 주장하였다.

이 같은 인식은 기존 식민사학적 인식의 중요 논거들에 대한 초기적 비판을 방법을 달리하여 진행한 것으로 낙랑군 재요동설에 입각한 인식에 부응하기 위한 논리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북한학계는 요령설 입증을 위해 요서, 요동지역 청동기문화 전체를 고조선의 영역으로 인식하였고⁵³⁾ 이 같은 견해는 단군릉 발굴이전까지는 북한의 공식입장으로 유지되었다.⁵⁴⁾ 그러나 1993년 단군릉 발굴이후 평양중심설로 급선회되고 요동지역은 발전과정

43)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역사고고학연구실, 1987, 《비파형단검문화에 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44)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민족의 단일성에 대한 확증 단군릉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93-4

허종호 등, 1999, 《고조선력사개관》, 사회과학출판사.

리순진, 장우진, 서국태, 석광준, 2001, 《大同江文化》 외국문출판사.

장우진, 2002, 《조선민족의 원시조 단군의 유골 감정보고》, 사회과학출판사.

조범중, 1999, 전개논문.

하문식, 2009, <북한학계의 고조선 연구성과와 과제> 《고조선사 연구100년》 학연문화사

45) 안병찬, 1995 <평양일대 락랑유적의 발굴정형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95-4

46) 리순진, 1996 <평양일대 나무곽무덤의 성격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96-1

47) 리창언, 1996 <귀틀무덤을 남긴 정치세력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96-1

48) 한인덕, 1995 <서북조선의 벽돌무덤의 성격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95-4

49) 김교경, 정강철, 1995 <물성분석을 통하여 본 점제비와 봉니의 진면모>, 《조선고고연구》 95-4 점제비: 1913. 룡강군 해운면 운평동 (현재 온천군)발견.

용강군 일대 화강석과 성분다름.- 룡하지방 화강석위조 이동.

봉니: 현재의 온천군 성현리 토성근방 흙이 아니고 락랑토성근방 흙으로 만들어졌다.(글자비ט) 현재까지 북한 발굴시 한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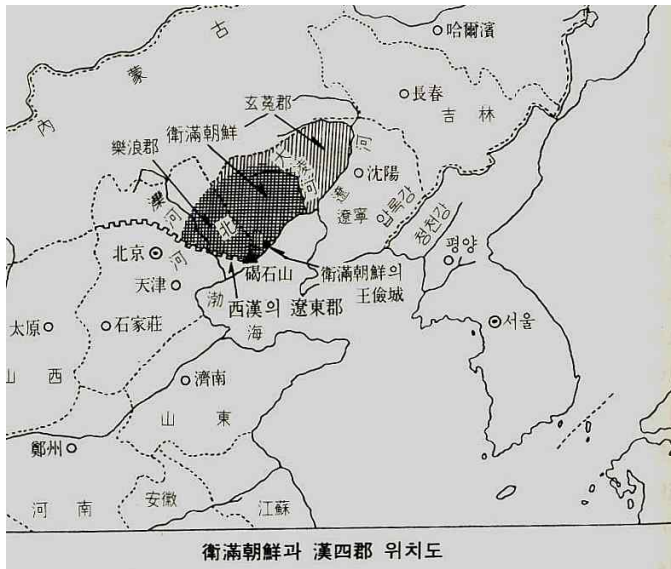
50) 박진욱, 1995 <락랑유적에서 드러난 글자있는 유물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95-4

51) 남일룡, 1996 <평양일대 고대토성의 축조연대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96-1

52) 조희승, 1996 <평양 락랑유적에서 드러난 고대 비단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96-1

53) 박진욱, 1988, 《조선고고학전서》, 과학백과사전출판사.

54)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1991 《조선전사》 2



<그림 4> 윤내현 위만조선과 한사군 위치도
윤내현, 1993, 《고조선연구》, 일지사. p.394

에서 확대된 것으로 이해하는 혼란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한국학계에서는 尹乃鉉이 북한학계의 요동설에 일부 내용을 변화시킨 입장을 표방하였다.⁵⁵⁾ 특히, 낙랑군=위만조선=기자조선으로 파악하는 인식을 전제로 기자 일족이 난하 하류 유역으로 망명해 고조선의 거수국이 되었고 위만이 그 자리에 위만조선을 세웠다고 보아 위만조선 건국지를 난하 하류지역으로 보았다.⁵⁶⁾

그런데 최근 2005년 낙랑구역에서 발견된 樂浪郡 初元四年 縣別戶口簿 木簡의 발견은 위만조선이 끝까지 요동지역에 존재하였다는 인식에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⁵⁷⁾

3) 고조선 중심지 이동설

고조선 중심지 이동설은 요동설과 평양설의 절충적 측면이 강한 견해로서 두 지역에 공존하는 고조선 관련 문헌 및 고고학적 자료의 해석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즉, 전기 고조선의 중심지는 요동지역으로 설정하고 후기에는 중국세력의 확장에 따른 영역 축소라는 이유로서 한반도 서북지역으로 이동하였다는 논리이다.

북한학계에서는 1950년대 이 같은 인식이 제기되었다. 정세호는 고조선 요동-한반도 이동인식을 문헌자료 검토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⁵⁸⁾ 즉, 《史記》 朝鮮列傳, 蘇秦列傳,

55) 尹乃鉉, 《古朝鮮研究》, 一志社, 1995.

56) 윤내현, 1993, 《고조선연구》, 일지사. p.p.360-367

57) 손영중, 2006, 《조선단대사-고구려사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p.118-124.

尹龍九, 2007, <새로 발견된 樂浪木簡 - 樂浪郡 初元四年 縣別戶口簿 -> 《韓國古代史研究》 46

손영중은 초원4년 락랑군 현별 호수수에 관한 목간이 락랑구역 귀틀무덤에서 나온 것은 락랑군 아전인 피장자가 락랑군에서 문제가 있어 락랑국으로 망명하여 문헌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윤용구, 2007, <새로 발견된 樂浪木簡 - 樂浪郡 初元四年 縣別戶口簿 > 《韓國古代史研究》 46, 한국고대사학회

윤용구, 2009, <평양 출토 <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簿> 연구>, 《목간과 문자연구》 3, 한국목간학회

58) 정세호, <자료> <사기를 중심한 고조선의 위치에 관하여>, 《역사과학》 1956년 2호.

夏禹本紀등을 근거로 고조선의 西界가 碣石山임을 지적하고, 匈奴列傳에 나타난 秦開의 고조선 침략에 의해 서기전 108년경에는 濊貊朝鮮의 종족이 大凌河沿岸 및 襄平以東地域에 존재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溟水를 大凌河로 이해하고 遼水명칭의 변동을 지적하면서 고대의 遼수는 纒河임을 지적하고 고조선 영역의 변화를 지적하였다.

첫째, 燕나라 昭王시기이전(서기전 323-서기전 281)은 上谷, 纒河중심—동해안 鴨綠江까지의 지역.

둘째, 秦開침략에 의한 西邊 1-2千里 상실후(서기전 281-서기전 202)에는 上谷를 상실하고 襄平이동부터 鴨綠江에 이르는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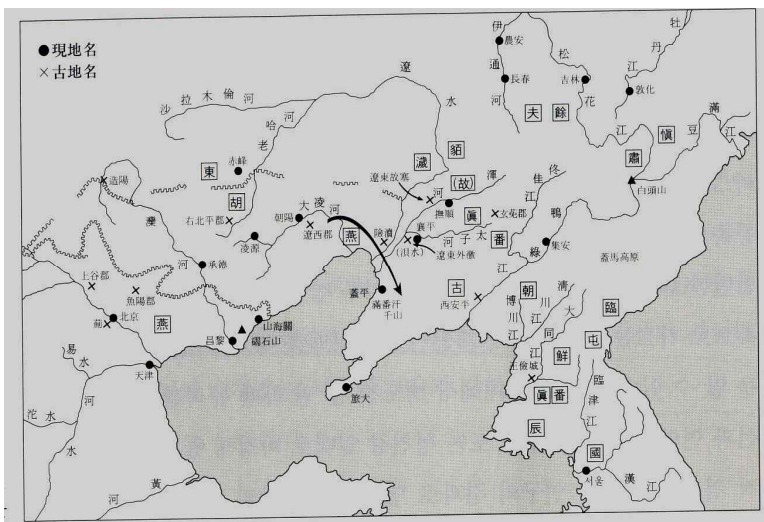
셋째, 秦나라가 燕나라를 멸하고 난후 漢나라가 일어나던 시기(서기전 202-서기전 194)는 大凌河이동에서 부터 西部朝鮮지역.

넷째, 서기전 194년 衛滿朝鮮이 고조선의 서계인 大凌河부터 鴨綠江이서 지역을 침략하여 古朝鮮은 鴨綠江以東地域에 국한되고 漢武帝가 서기전 108년에 위만조선지역을 략취하여 그곳에 漢4郡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같은 견해는 이후 전개되는 고조선관련 논쟁에서 제시되는 주요 논점들을 거의 망라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즉, 고조선 요동중심설이 근거로 활용되는 《史記》 등의 자료 분석과 정치상황변화에 따른 영역변화 인식은 고조선의 영역변화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체계가 거의 완성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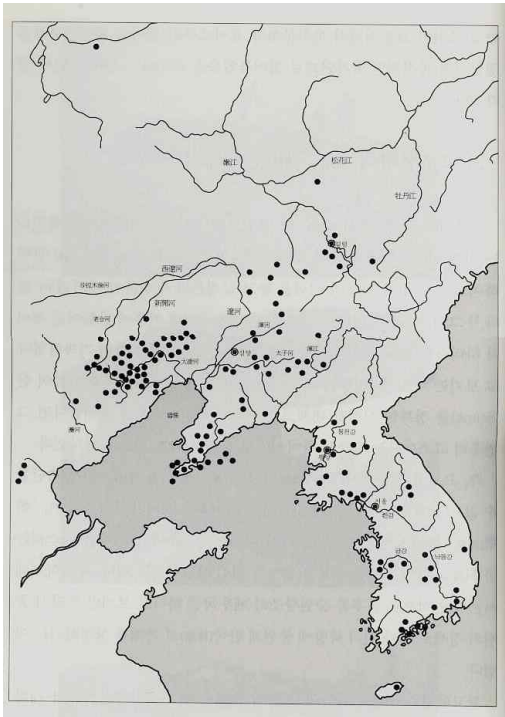
한편, 한국학계에서는 箕子族團의 존재를 중시한 견해로서 千寬宇는 사료에 나타난 箕子東來說을 중시하여 이를 箕子族의 이동이란 관점에서 이해하였다.⁵⁹⁾ 金廷鶴은 遼寧地方 靑銅器文化의 담당자는 朝鮮族인데 燕의 침략으로 古



<그림 5> 서영수, <古朝鮮의 對外關係와 疆域의 變動> (《東洋學》 29, 동양학연구소, 1999) ; 2007, <고조선의 발전과정과 강역의 변동>, 《고조선의 역사를 찾아서》, 학연문화사. p.44, <연의 동진과 만변한>

59) 천관우, 《古朝鮮三韓史研究》, 一潮閣, 1989, p.p10-13.

朝鮮의 세력이 약해져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기원전 4~3세기경에는 古朝鮮의 영역이 遼東에서 한반도의 서북부에 걸쳐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⁶⁰⁾ 李亨求는 殷末周初에 大凌河유역에 周族으로부터 밀려난 殷王族인 箕子를 대표로 하는 殷의 遺民들이 箕子조선을 건국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기자조선은 기원전 12-11세기경 箕子の 이주로부터 기원전 2세기초 朝鮮王 準에 이르기까지 거의 천 년을 이어 왔다고 하였다.⁶¹⁾



<그림 6> 김정배, 2000, <동북아의 비파형동검문항에 대한 종합적 고찰>, 《국사관논총》 88, p.82

徐榮洙는 고조선사를 선고조선(왕국) 식/ 고조선왕국 초기-중기-후기/ 후조선(위만조선)으로 체계화하고 전성기의 고조선의 강역은 대체로 요동반도를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大凌河 유역에서 東胡와 만나고 남쪽으로는 대동강 유역을 경계로 辰國과 이웃하며 북쪽과 동쪽으로 濊貊, 夫餘, 眞番, 臨屯, 肅慎과 접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고조선 중기 기원전 3세기초 연과의 전쟁에서 패해 만변한 즉 오늘날의 천산산맥-대릉하 영역을 상실하고 진번과 함께 남하하여 중심지를 대동강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하였다.⁶²⁾

盧泰敦은 기원전 3세기 초까지 고조선의 중심부는 요동에 있었다고 하였다. 전기 고조선의 중심지는 海城縣의 서남쪽과 蓋平縣을 포괄하는 지역의 어느 곳에 있었고 燕의 기습적인 공격을 받은 고조선은 그 중심지를 한반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파악하였다.⁶³⁾

金貞培는 기존에 진행된 고조선관련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고조선에 대한 고고학 및 문헌에 대한 종합적 정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동북아 靑銅器 文化 및 支石墓文化 등 중국, 한국, 일본학계의 고고학적 연구성과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통해 고조선사에

60) 김정학, 《韓國上古史研究》, 범우사, 1990, p.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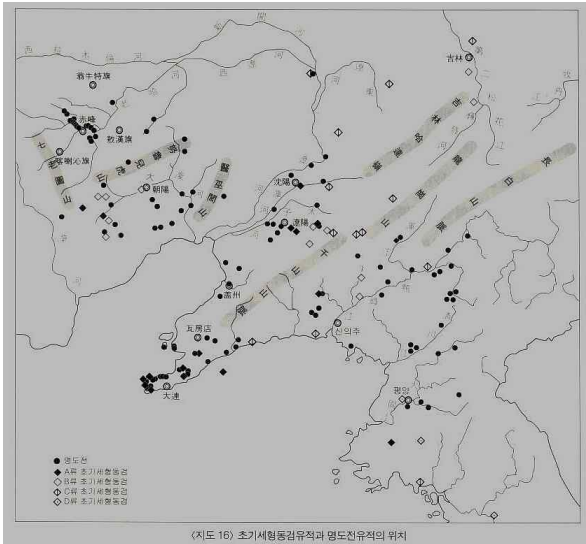
61) 이형구, <韓國民族文化의 시베리아起源說에 대한 再考> (《東方學志》 69, 1990) 12쪽.

62) 서영수, <古朝鮮의 位置와 疆域> (《韓國史市民講座》 2, 1988) 45-49쪽.

서영수, <古朝鮮의 對外關係와 疆域의 變動> (《東洋學》 29, 동양학연구소, 1999)

서영수, 2007, <고조선의 발전과정과 강역의 변동>, 《고조선의 역사를 찾아서》, 학연문화사 p.p.49-50

63) 노태돈, <古朝鮮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韓國史論》 23, 1990) 42-53쪽.



<그림 7> 박선미, 2009, 전계서, p.270

대한 체계적 인식 틀을 제시하였다. 특히, 동북아 琵琶形銅劍文化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지석묘와 석관묘의 전통이 위주가 된 요동지역의 묘제에서 전형적인 비파형동검과 미송리형토기(橫耳附鼓頸壺) 등이 함께 나타나므로 이 지역에서 古朝鮮 가운데 濊貊朝鮮(소위 ‘箕子朝鮮’)의 위치를 찾고 중심지를 거론해야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단군릉 발견 이후 진행된 북한학계의 고조선 관련 연구내용에 대한 비판과

문제점을 제시하여 고조선사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구체적 역사체에 대한 이해의 방향을 정리하였다.⁶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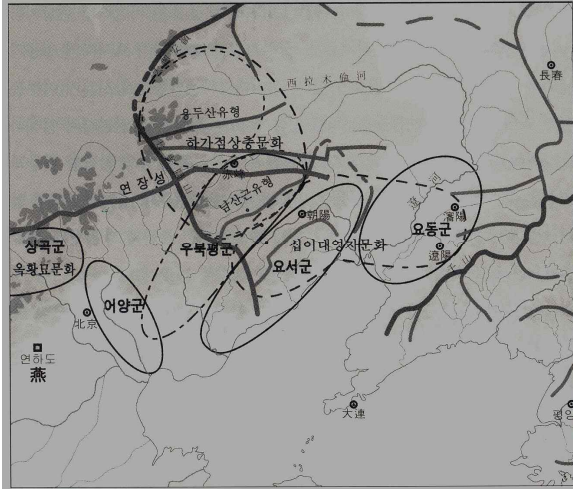
한편, 비파형동검의 기원지에 대한 요서, 요동설에 대해 카자흐스탄의 서북부와 남부 러시아 지역의 휘도롭 청동기문화와 연결 짓고 석관묘 문화 또한 휘도롭-카라스크-내몽고-만주, 한반도로 영향이 미쳤음을 제기하였다. 또한 요서의 하가점상층문화는 예맥족의 소산이 아닌 유목적 성격을 띤 산융, 동호족의 문화로 파악하고 요동의 비파형동검과 미송리형토기, 지석묘, 석관묘의 분포가 요하-의무려산을 넘지않는다는 범위를 고조선과 연결 지어 파악할 것을 제안하였다.⁶⁵⁾ 그리고 이동론적 인식의 근간인 《위략》기사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한반도 중심론적 입장을 제기하였다.

趙法鍾은 衛滿朝鮮의 완전한 붕괴시점이 기원전 108년이 아닌 기원전 107년이며 이 같은 사실은 위만조선의 도읍인 王險城이 함락되기 전에 樂浪郡이 王險城과는 다른 곳에 설치되어 王險城과 樂浪郡이 병존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⁶⁶⁾ 이는 낙랑군이 王險城에 설치되었다는 기존 통설에 배치되는 것으로 王險城은 기원전 107년 설치된 玄菟郡설치지역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파악하였다. 한편, 金南中은 연화보 세족리문화에 대한 검토를 통해 王險城이 현재의 평양지역이 아닌 압록강 유역 고구려

64) 金貞培, 1999 〈東北亞의 琵琶形銅劍文化에 대한 綜合的 研究〉 《國史館論叢》 88.

65) 김정배, 2010, 《고조선에 대한 새로운 해석》, 고대 민족문화연구원, p.452, 520-537

66) 趙法鍾, 〈衛滿朝鮮의 崩壞時點과 王險城, 樂浪郡의 位置〉 (《韓國史研究》 110, 2000) 및 〈衛滿朝鮮의 對漢戰爭과 降漢諸侯國의 性格〉 (《先史와 古代》 14, 2000).



<그림 9> 요서지역 청동기문화와 연의 5군, 배진영, 2005, <연국의 오군설치와 그 의미-전국시대 동북아시아의 세력관계>, 『중국사연구』 36. 조진선, 2010, <요서지역 청동기문화의 발전과정과 성격>,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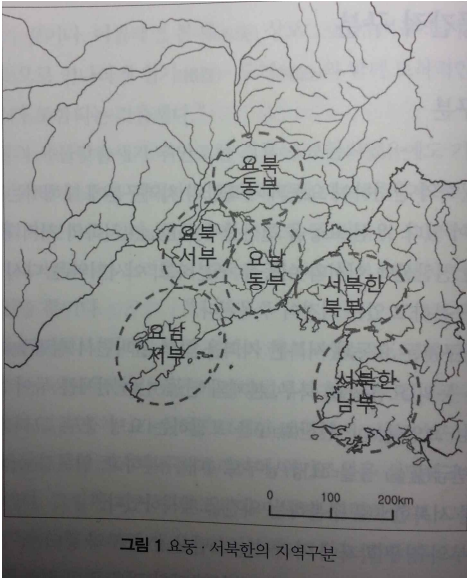


그림 1 요동·서북한의 지역구분
 <그림 10> 이청규, 2015, <요동, 서북한의 초기 철기문화와 위만조선>, 《고조선과 위만조선의 연구쟁점과 대외교류》p.312

될 수 있다고 보았다.⁷⁴⁾

《전한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해 하나로 보고 고조선과 진의 경계는 압록강으로 보고 한서 지리지의 낙랑군 패수현의 패수는 청천강으로 보았다.⁷¹⁾

조진선은 배진영의 연 5군 설정지역과 서영수의 5군중 요서, 요동군지역이 고조선이 상실한 영토라는 인식⁷²⁾을 수용해 하가점상층문화와 십이대영자문화의 갑작스런 종말은 진개의 동호, 고조선 침입과 결부되며 하가점상층이 동호, 십이대영자문화가 고조선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았다.⁷³⁾

이청규는 하가점상층문화는 동호 또는 산용 혹은 넓은 의미의 예맥집단의 것으로 보고 십이대영자문화를 고조선 또는 예맥의 문화로 파악해 동방계 청동기를 표지로 볼 경우 고조선의 중심지는 대릉하 상류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요동지역의 지석묘와 대석개묘 축조집단을 고조선으로 볼 경우 이 문화는 비과형청동기문화의 핵심이 아니라고 보았다.

결국 고조선의 역사실체에 대응하는 문화는 기원전 1천년기 중반 심양 정가와자문화로서 이는 이중구연점토대토기와 흑도장경호를 공반하며 동경을 공반해 서북한 평양 신성동유적과 연결되는데 이 문화가 고조선의 중심 집단의 것으로 파악

71) 박준형, 2015, <위만조선의 영역과 인구>, 《고조선과 위만조선의 연구쟁점과 대외교류》 학연문화사

72) 배진영, 2005, <연국의 오군설치와 그 의미-전국시대 동북아시아의 세력관계>, 《중국사연구》 36.

73) 조진선, 2010, <요서지역 청동기문화의 발전과정과 성격>,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p.184-186



〈그림 9〉 기원전 3세기 요령-서북한 지역의 전국연문화 범위와 토착 유형의 분포

〈그림 11〉 기원전 3세기 요령-서북한 지역의 전국연문화 범위와 토착 유형의 분포, 오강원, 2013, 〈청동기-철기시대 요령,서북한 지역 물질문화의 전개와 고조선〉, 《동양학》 53. 단국대 동양학연구원.p.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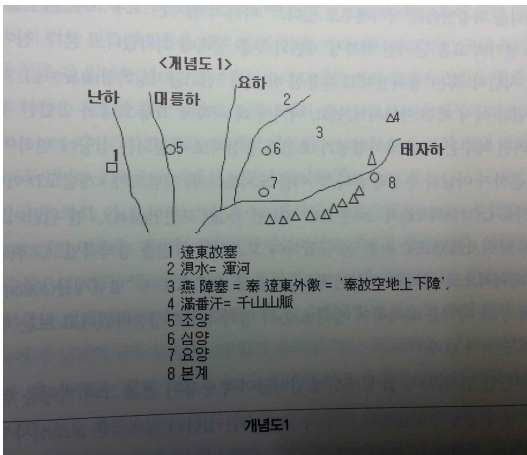


그림 18 박경철,〈고조선 대외관계 진전과 위만조선〉, 《고조선과 위만조선의 연구쟁점과 대외교류》 학연문화사, p.473

의 문화라고 보았다. 이를 토대로 정가와자 유형이 준왕 이전의 고조선이며 기원전 4세기 요서 객좌지역의 남동구문화가 위략에 등장하는 조선후 기사와 부합하는 존재로 보았다. 또 심양의 정가와자 유형도 고조선의 문화인데 이들 두 개의 조선이 별도로 존재하며 기원전 3세기 초 진개의 공격과정에서 모두 복속되었다고 보았다.⁷⁶⁾

박경철⁷⁷⁾은 고고학계의 입장을 수용해 기원전 8-6세기 십이대영자유형 문화세력이

이 같은 논점은 앞서 다뉴경을 표지로 한 청동기문화의 위치변화를 고조선 중심지 이동론과 연결해 파악하려는 입장과 연결된다. 즉, 기원전 8세기 대릉하유역에 조문경 전기, 기원전 6-5세기 요하중류에 조문경 후기가 그리고 기원전 4-3세기 조세문경이 압록강-대동강금강으로 마지막으로 세문경이 기원전 2세기 대동강-영산강-일본

구주에서 등장하는 양상과 연결 지어 보았다.⁷⁵⁾

오강원은 청동기-철기시대 전기 요령-서북한지역의 물질문화가 기원전 3세기 전국의 연문화가 요서 전역과 요동 심양지구에서 토착문화를 대체하고 대련에서는 토착문화와 공존하였으나 태자하-혼하-소자하-혼강유역과 대동강-채령강유역에서는 토착전통이 유지되었다고 보고 대동강-채령강유역의 정백동유형 전기의 문화가 준왕조선과 위만조선

74) 이청규, 2011, 〈고조선과 요하문명〉, 《한국사시민강좌》 49, p.p.85-91

75) 이청규, 2007, 〈청동기를 통해서 본 고조선과 주변사회〉, 《고조선의 역사를 찾아서》, p.112

76) 오강원, 2013, 〈청동기-철기시대 요령,서북한 지역 물질문화의 전개와 고조선〉, 《동양학》 53.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조양 중심으로 존재하였고 기원전 6-5세기 심양지역이 비파형동검문화의 중심지로 부각되어 정가와자유형문화가 발조선으로 인식되었다고 보았다. 한편 기원전 4세기경 연과의 경계인 만번한은 천산산맥이며 연의 요동군치인 양평은 요양이 아닌 하북성 계현의 무종일대로 비정하였다. 또한 개념도에 보이듯이 패수를 혼하로 설정하였다.

3. 위만조선 붕괴시점 검토⁷⁸⁾

1) 《사기》 및 《한서》 본기, 열전에 나타난 붕괴시점

《史記》와 《漢書》 朝鮮傳등 사료⁷⁹⁾에 나타난 내용은 元封 3년(기원전 108년) 여름 前漢 武帝의 衛滿朝鮮 정벌이 종결되고 漢四郡이 동시에 개설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기술방식을 보면 이는 사건을 압축적으로 정리한 내용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A-1) 元封三年夏 尼谿相參乃使人殺朝鮮王右渠來降 王險城未下 故右渠之大臣 成巳又反復攻吏 左將軍使右渠子長降 相路人之子最告諭其民 誅成巳 以故遂定朝鮮 爲四郡

《史記》 115 列傳55 朝鮮列傳

A-2) (元封)三年 夏 朝鮮斬其王右渠降 以其地爲樂浪 臨屯 玄菟 眞番郡

《漢書》 6 本紀6 武帝紀

A-3) 元封三年夏 尼谿相參 乃使人殺朝鮮王右渠來降 王險城未下 故右渠之大臣成巳又反復 攻吏 左將軍使右渠子 長降 相路人子最 告諭其民 誅成巳 故遂定朝 鮮爲眞番 臨屯 樂浪 玄菟四郡

《漢書》 95 列傳65 西南夷兩粵朝鮮傳

상기 사료에 의하면 元封 3년(기원전 108년)에 衛滿朝鮮이 붕괴되고 樂浪郡등 4개

77) 박경철, 2015, <고조선 대외관계 진전과 위만조선>, 《고조선과 위만조선의 연구쟁점과 대외교류》 학연문화사

78) 본 부분은 발표자의 趙法鍾, 2000, <衛滿朝鮮의 崩壞時點과 王險城, 樂浪郡의 位置>, 《韓國史研究》 110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하였음

79) 본 논문에서 사용한 중국사료는 臺灣 中央研究院에서 제공하는 중국원전 검색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것이다.(http://www.sinica.edu.tw) 원문은 臺北 鼎文書局 點校本 《二十四史》를 중앙연구원에서 입력한 것임.

漢郡縣이 王險城을 포함한 기존의 위만조선 영역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있다.

그런데 《漢書》五行志의 내용을 보면 한군현이 동시에 개설된 것이 아니라 3개의 군이 먼저 설치되고 차후에 1군이 추가되었음을 추측케 하는 기록이 제시되고 있다.

A-4) 元封六年秋 蝗 先是 兩將軍征朝鮮 開三郡

《漢書》27下 志 第7下 五行志

이 사실은 《史記》朝鮮傳등에 나타난 동시에 4군을 설치하였다는 내용과는 배치되는 내용으로 顏師古는 武帝紀에는 4개의 군을 설치했다고 하였는 데 이곳에서는 3개라고 하였으니 아마도 기록하는 자가 오류를 범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기왕의 인식을 강조하였다.⁸⁰⁾

그러나 이는 《漢書》地理志에 나타나고 있는 樂浪郡, 玄菟郡관련 기록과 연결될 때 잘못된 기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A-5) 樂浪郡 武帝元封三年開 莽曰樂鮮 屬幽州 戶六萬二千八百一十二 口四十萬 六千七百四十八 有雲鄣 縣二十五

《漢書》28下 志8下 地理志

A-6) 玄菟郡 武帝元封四年開 高句驪 莽曰下句驪 屬幽州 戶 四萬五千六 口二十二萬一千八百四十五 縣三

《漢書》28下 志8下 地理志

상기 사료A-5에 의하면 樂浪郡은 앞서의 인식대로 元封 3년(기원전 108년)에 설치되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반면 A-6에서는 玄菟郡이 1년 뒤인 元封 4년(기원전 107년)에 개설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료에 입각할 때 漢四郡은 결코 동시에 개설된 것이 아니라 “1년의 時差”를 두고 설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1년 시차의 의미에 대해 기왕의 연구자들은 크게 주목하지 않

80) 師古曰 武紀云 以其地爲樂浪 臨屯 玄菟 眞番郡 是四郡也 而此云三 蓋傳寫志者誤
《漢書》卷二十七中之下 志 第七中之下 五行志 注

았다. 顔師古와 같이 이를 부정하거나 단지 樂浪, 眞番, 臨屯등 3군이 위만조선의 영역에 원봉 3년 설치되었고 원봉 4년의 玄菟郡 설치는 高句麗등을 통제하기 위해 과거 蕤君南閭가 투항하여 설치하였던 蒼海郡지역에 1년 뒤 설치한 것으로 이해하는 인식이 제시되었다.⁸¹⁾ 그러나 1년의 시차가 있는 군현 설치는 衛滿朝鮮과 漢과의 전쟁성격과 위만조선의 붕괴시점 그리고 이후 설치된 漢郡縣의 성격과 位置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발표자는 이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료로서 기존에 주목받지 못하였던 《史記》의 建元以來侯者年表에 나타난 내용과 《漢書》의 景武昭宣元成功臣表의 내용분석을 통해 사실의 재구성을 진행하였다.⁸²⁾ 본 발표는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史記》〈朝鮮傳〉과 〈功臣表〉 비교를 통해 본 붕괴시점

衛滿朝鮮과 漢의 전쟁 과정 중 漢으로 投降한 존재들은 초기부터 漢과 화의를 주도했던 자들로서 그들의 투항논의 및 과정은 《史記》와 《漢書》 朝鮮傳에 주로 나타나고 있다. 《漢書》의 내용은 《史記》를 기본적으로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史記》 朝鮮傳에 나타난 내용을 단락을 지어 사건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1) 左將軍已并兩軍 卽急擊朝鮮

2) 朝鮮相路人 相韓陰 尼谿相參 將軍王峽 相與謀曰 始欲降樓船 樓船今執 獨左將軍并將 戰益急 恐不能與 王又不肯降

3) 陰、峽、路人皆亡降漢 路人道死

B-4) 元封三年夏 尼谿相參 乃使人殺朝鮮王右渠來降

B-5) 王險城未下 故右渠之大臣成巳又反 復攻吏

B-6) 左將軍使右渠子長降⁸³⁾ 相路人之子最 告諭其民 誅成巳 以故遂定朝鮮 爲四郡⁸⁴⁾

81) 李丙燾, 1976 〈玄菟郡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169-176

82) 趙法鍾, 2000 〈衛滿朝鮮의 崩壞時點과 王險城樂浪郡의 位置〉, 《韓國史研究》 110

83) 《史記》와 《漢書》의 기록에서 右渠王의 아들이름이 長, 長降, 長略, 張各등으로 표시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편의를 위해 長降으로 통칭한다.

84) 《史記》조선전의 내용과 《漢書》 조선전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른 부분의 사료내용은 거의 동일한 것에 비해 이 부분은 《漢書》에서 眞番, 臨屯, 樂浪, 玄菟라는 구체적인 명칭이 추가되어 있다.

B-7) 封參 爲漻清侯 陰爲荻菑侯 峽爲平州侯 長降爲幾侯 最以父死頗有功 爲溫陽侯

《史記》 115 列傳55 朝鮮列傳

상기 사료에 나타난 위만조선 항한세력의 투항과정이 세 차례로 나뉘어져 진행되었다.

1) 朝鮮相路人 相韓陰 將軍王峽이 투항

2) 元封三年夏 尼谿相參이 우거왕을 살해하고 투항

3) 우거피살후에도 왕험성에서 끝까지 저항하였던 成已를 右渠王의 아들 長降과 路人 아들 最가 백성을 통해 죽이고 투항하고 4군설치

이들 투항세력은 제후로 봉해졌는데(이하 降漢諸侯로 약칭) 이들이 제후로 봉해진 기록이 《史記》의 建元以來侯者年表와 《漢書》의 景武昭宣元成功臣表에 시간대별로 진행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史記》와 《漢書》에 수록된 위만조선의 降漢諸侯表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史記》 20 表8 建元以來侯者年表

國名	侯功	元封	太初以後
平州 索隱表在梁父	以朝鮮將 漢兵至降 侯	三年四月 丁卯 侯峽元年 四年 侯峽薨 無後 國除	
荻菑 索隱 表在勃海	以朝鮮相 漢兵至圍之降 侯	三年 四月 侯朝鮮相 韓陰 元年	
漻清 索隱表在齊 漻音獲 水 名在齊	以朝鮮尼谿相 使人殺其 王右渠來降 侯	三年 六月 丙辰 侯朝鮮尼谿相 參 元年	
幾 索隱音機表在河東	以朝鮮王子 漢兵圍朝鮮 降 侯	四年 三月 癸未 侯 張略 歸義元 年 六年 侯張略使朝鮮 謀反 死 國 除	
溫陽 索隱表在齊 志屬南陽	以朝鮮相路人 漢兵至 首 先降 道死 其子侯	四年 三月 壬寅 康侯子最元年	太初二年 侯最死 無後 國除

<표 3> 《漢書》 景武昭宣元成功臣表

號諡姓名	功狀戶數	始封	(위치)
將 梁侯 楊僕	以樓船將軍 擊南越椎鋒卻敵 侯	三月 乙酉封 四年元封 四年 坐爲將軍擊朝鮮畏懦入竹二萬箇 贖完爲城旦	
平州侯 王峽	以朝鮮將 漢兵至 降侯 千四百八十戶	三年 四月丁卯 封 四年薨 亡後	梁父
荻苴侯 韓陶	以朝鮮相將 漢兵圍之 降侯 五百四十戶	四月丁卯封 十九年 延和二年 薨 封終身 不得嗣	勃海
漑清侯 參	以朝鮮尼谿相 使人殺其王 右渠降 侯千戶	六月 丙辰 封 天漢二年 坐匿朝鮮亡虜 下獄病死	齊
幾侯 張略(降)	以朝鮮王子 漢兵圍朝鮮降 侯	三年(月) 癸未封 六年 使朝鮮謀反 略(降)死	河東
涅陽康侯 最	以父朝鮮相 路人 漢兵至 首先降 道死 子侯	三月 壬寅封 太初元年薨 亡後	齊

<표 4> 《史記》 朝鮮傳과 《史記》 功臣表 내용 대비

《史記》 功臣諸侯表의 내용	《史記》 朝鮮傳의 내용
원봉 3년(B.C.108) 4월 丁卯(13일) : 장군 王峽 상 韓陰봉후	B-1 원봉3년(B.C.108) 左將軍 荀彘에 의한 공격강화 B-2 朝鮮相 路人、相 韓陰、尼谿相 參、將軍 王峽의 투항논의진행 B-3 韓陰、王峽、路人の 漢 투항과 路人の 道死
원봉 3년(B.C.108) 6월 丙辰(3일) : 尼谿相 參 봉후	B-4) 원봉3년 여름(元封 三年 夏) , 尼谿相 參이 朝鮮王 右渠를 살해하고 投降 B-5) 王險城은 아직 복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右渠의 大臣인 成巳가 계속 공격진행
원봉 4년(B.C.107) 3월 : 癸未(4일) 右渠王子 張略(降), : 壬寅(23일) 朝鮮相 路人の 아들 最 봉후	B-6) 左將軍이 右渠의 아들 長降과 相 路人の 아들 最로 하여금 백성들을 설득시켜 成巳를 주살 비로소 朝鮮을 평정하고 4郡 설치. B-7) 5후국설치

이들 사기와 한서 공신표의 내용과 사기 조선전의 사건 전개과정을 표로 대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상기 표에 나타난 《史記》와 《漢書》 양 사서의 朝鮮傳과 功臣表의 내용을 비교할 때 가장 주목되는 점은 漢에 투항한 위만조선의 지배층들이 제후로 봉해진 시기가 각각 다르다는 사실이다. 즉, 양 史書의 朝鮮傳에서는 전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개관하여 서술한 반면 諸侯功臣表에서는 구체적인 시간을 명기하여 전후 관계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대비표에서 확인된 가장 중요한 사실은 衛滿朝鮮의 실질적인 붕괴는 元封 4년 3월 즉 기원전 107년 3월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앞서 정리한 것처럼 위만조선은 右渠王이 암살된 元封 3년 6월에 붕괴된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王險城을 거점으로 1년남짓 한과의 전쟁을 지속하였던 成巳가 元封 4년 3월에 피살된 후에 위만조선이 완전히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위만조선 정벌의 주역이었던 樓船將軍 楊僕과 左將軍 荀彘가 元封 4년에야 비로소 우거왕의 아들 長降등에 대한 諸侯봉후와 함께 전투패배에 대한 처벌로서 樓船將軍은 庶人으로 강등되고 左將軍은 극형인 棄市刑을 당하고 있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B-8) 樓船將軍楊僕 坐失亡多 免爲庶民 左將軍荀彘 坐爭功 棄市

《漢書》卷六 本紀 第六 武帝紀

B-9)

將梁侯 楊僕	以樓船將軍 擊南越 椎鋒卻敵侯	三月乙酉封 四年 元封四年 坐爲將軍 擊朝鮮畏懦 入竹二 萬箇 贖完爲城旦
--------	-----------------	---

《漢書》卷十七 表 第五 景武昭宣元成功臣表

즉, 상기 표에서 확인되듯이 漢은 투항세력에 대해 투항직후 바로 諸侯로 봉하였다. 이 사실을 감안할 때 우거왕자 長降과 노인 아들 最에 대한 제후 封侯가 元封 4년 3월에 진행되었고 樓船將軍 楊僕에 대한 처리와 左將軍 荀彘에 대한 처리가 元封 4년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위만조선의 마지막 붕괴는 元封 4년 3월 즉, 기원전 107년 3월이었다.

이 같은 사실의 확인은 단순히 위만조선의 붕괴시점이 1년뒤로 연장되었다는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위만조선과 한과의 전쟁성격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며 한사군 특히, 樂浪郡, 玄菟郡의 위치와 성격에 대한 기존인식이 변화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결국, 衛滿朝鮮 연구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되지 않았던 戰爭의 성격과 내용 그리고 《史記》의 建元以來侯者年表와 《漢書》景武昭宣元成功臣表의 내용을 검토하여 종래의 연구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던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衛滿朝鮮의 崩壞時點은 元封 3년(기원전 108년)이 아니라 그보다 1년 뒤인 元封 4년(기원전 107년)이라는 사실이다. 이같은 사실은 단순히 붕괴시기가 1년 연장된다는 측면 뿐 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문제가 새롭게 인식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위만조선의 도읍인 王險城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인식되었던 樂浪郡은 위만조선의 도읍인 王險城이 함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元封 3년(기원전 108) 6월 右渠王이 살해되고 尼谿相 參이 투항한 시점에 개설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사실은 漢四郡의 실체가 위만조선을 완전히 정복한 뒤에 개설하고자 하였던 圖上計劃일 가능성과 함께 王險城과는 관계없는 지역에 樂浪郡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漢이 설치한 樂浪郡은 王險城이 아닌 별도의 지역에 단지 衛滿朝鮮을 복속하였다는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각하기 위하여 朝鮮, 溟水등 관련지명을 포괄하여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는가가 문제이다. 이때 설정 가능한 지역이 위만조선이 교류를 차단하였던 眞番傍衆國 지역이 주목된다. 즉, 漢의 주된 관심은 위만조선의 匈奴와의 軍事的 연결차단과 漢과의 交易를 희망하는 세력들과의 지속적 연결이었다. 위만조선의 붕괴는 군사적 위협요소의 제거로 결과되었고 주변 정치체와의 交易 및 統治體系로의 포섭은 기왕에 이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던 존재로서 이를 계속 수행케 하였다고 생각된다. 즉, 樂浪郡은 이들과의 실질적인 교류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군으로서 眞番傍衆國중 하나인 존재였던 “樂浪”에 개설되었다고 추정해보았다. 즉, 한사군의 명칭은 위만조선에 복속되었던 존재들의 명칭으로 특히 玄菟의 경우 眞番國이란 기록이 있으며 樂浪의 경우 기원전 178년경에 이미 중국계통 유이민 세력집단이 중심이 되어 존재하였음이 확인되어 이들 존재를 漢郡縣체계에 편입시켜 한4군을 형성하였다고 생각된다.

한편, 王險城은 원봉 4년 즉, 기원전 107년 3월경에 함락되었고 직후에 玄菟郡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종래 우리가 이해했던 것과는 달리 王險城은 오히려 기원전 107년에 개설된 玄菟郡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 같은 사실은 위만조선세력들이 복속후에도 지속적인 저항을 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데 그같은 저항대상으로 玄菟郡이 부각되었고 결국 수차례에 걸친 郡治의 이동이 이같은 군사적 충돌과 降漢諸侯들의 모반사건 등의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위만조선의 공식적인 붕괴시점은 元封 4년 즉, 기원전 107년으로 우리가 통상 이해하고 있는 기원전 108년보다 1년뒤에 王險城이 함락된 후이다. 한편, 漢이 개설한 漢四郡은 衛滿朝鮮에 服屬된 勢力들의 명칭을 활용한 것으로 樂浪郡은 王險城 함락 1년 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왕험성과는 다른 지역인 “樂浪”지역에 설치되었다고 추정된다. 이같은 이해가 수용된다면 기존의 衛滿朝鮮 및 漢四郡問題를 인식하는 인식틀이 수정되고 새로운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한편, 발표자의 이 같은 이해에 대해 한나라에서 진행된 공신후 표의 봉후 시점과 사건의 발생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특히 성기 반란 종식에 공을 세운 장극과 최의 봉후와 관련해 그 봉후 자체 및 등급과 관련해 긴 기간의 논쟁이 있었을 가능성, 공신후 표 외의 다른 기록과의 정합성 등의 이유로 찬성하기 어렵다 견해가 제기되었다.⁸⁵⁾ 그런데 반론의 근거가 사건 발생순서에 정연하게 대응되어 진행된 위만조선관련 봉후표에 대한 것이 아닌 한무제가 순행 중에 진행되어 체계적이지 않은 남월관련 봉후기록 등을 예로 들어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례로 유추한 것은 적절한 예가 아니라고 파악된다. 특히, 현도군이 원봉4년 즉, 기원전107년에 설치된 것이 명확하며 누선장군 양복이 전쟁패배에 대한 책임으로 서인으로 강등된 처벌 또한 기원전 107년인데도 이를 모두 108년에 진행된 것처럼 표현한 사기 조선열전의 문제점에 대한 답은 생략한 채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김병준교수의 반론은 납득키 곤란하다.

85) 김병준, 2008, 〈漢이 구성한 고조선 멸망 과정〉. 《한국고대사연구》, 50, 5-50.

4. 낙랑과 왕험성의 위치

1) 낙랑명칭과 지역

漢이 衛滿朝鮮을 정벌하고 설정한 漢 4郡의 명칭은 주지하듯이 樂浪, 眞番, 臨屯, 玄菟이다. 眞番과 臨屯은 사료 D-1)에서 확인되듯이 이미 위만조선에 복속되었던 眞番과 臨屯의 명칭을 사용한 것이었다.

D-1) 會孝惠 高后時 天下初定 遼東太守卽約滿爲外臣 保塞外蠻夷 無使盜邊 諸蠻夷君長 欲入見天子 勿得禁止 以聞 上許之 以故滿得兵威財物侵降其旁小邑 眞番 臨屯 皆來服屬 方數千里

《史記》卷一百一十五 列傳 五十五 朝鮮列傳

문제는 樂浪과 玄菟인데 종래 이 명칭에 대해서는 뚜렷한 근거가 제시되어있지 않았다.

玄菟의 경우 十二支獸의 方位와 관련시켜 낙랑의 동쪽(兔)이란 의미의 명칭으로 이해하거나 漢 武帝가 검은 토끼를 祥瑞로 하였다는 견해가 있으며, 李丙燾는 丸都和 연결시켜 이해하였다.⁸⁶⁾ 그러나 이는 眞番, 臨屯의 명칭 예를 감안할 때 위만조선에 복속되었던 위만조선의 地名이나 복속 政治勢力의 名稱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漢에 대항하였던 〈朝鮮〉이란 명칭은 축소 격하시켜 낙랑의 속현명칭으로 사용하고 대신 漢에 우호적이었던 존재들의 명칭을 부각하고 위상을 고양하는 방식으로 郡縣名을 부여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이 같은 입장에서 玄菟 및 樂浪과 관련된 다음 사료가 주목된다.

D-2) 自始全燕時 嘗略屬眞番朝鮮

索隱如淳云 燕嘗略二國以屬己也 應劭云 玄菟 本眞番國

《史記》115 列傳55 朝鮮列傳

86) 李丙燾, 1976 〈玄菟郡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상기 D-2) 사료에서는 後漢代 사람인 應劭가 玄菟가 본래 眞番國이었다는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다. 이는 玄菟가 眞番에 예속된 지명이거나 “眞番傍衆國”중의 하나였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앞서 강조되었듯이 위만조선을 공략하면서 漢은 협조세력에 대한 배려로서 그 명칭을 군명으로 사용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지명이 아닌 정치체 명칭이었을 것이고 應劭가 말한 대로 “眞番國” 즉, 진번지역에 존재한 정치체의 명칭으로 파악된다.

樂浪 또한 이같은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역시 眞番傍衆國중의 한 존재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 사료는 그 같은 가능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D-3) 王景字仲通 樂浪蚡邯人也 八世祖仲 本琅邪不其人 好道術 明天文 諸呂作亂 齊哀王襄謀發兵 而數問於仲 及濟北王興居反 欲委兵師仲 仲懼禍及 乃浮海東奔樂浪山中 因而家焉 父閼 爲郡三老 更始敗 土人 王調殺郡守劉憲 自稱大將軍 樂浪太守 建武六年 光武遣太守王遵將兵擊之 至遼東 閼與郡決曹史楊邑等 共殺調迎遵 皆封爲列侯 閼獨讓爵 帝奇而徵之 道病卒

《後漢書》卷七十六 列傳 第六十六 循吏列傳 王景

사료 D-3)에 나타난 내용은 後漢 光武帝 建武6년(A.D.30) 樂浪에서 발생한 王調의 반란을 진압할 때 협조한 王閼에 대한 기록이다.

사료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王閼의 8대祖가 되는 王仲이 본래 琅邪⁸⁷⁾ 不其人 즉 지금의 山東반도 밀쪽 지역 사람으로 濟北王 興居의 반란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여 바다를 건너 동쪽으로 도망와서 樂浪의 山中에서 집안을 이루어 살았다는 내용이다. 이 濟北王 興居의 반란사건은 前漢 文帝 3年 즉 기원전 178년 가을의 사건이었다.⁸⁸⁾

따라서 상기사료는 樂浪이란 지명이 이미 樂浪郡이 설정되기 70여 년 전에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⁸⁹⁾ 또한 이 사료의 내용은 衛滿朝鮮과 별개로 존

87) 琅邪는 春秋末 越國의 都城으로 현재 山東 膠南縣 西南이다.

88) 文帝三年秋 天下旱 是歲夏 匈奴右賢王寇侵上郡 詔丞相灌嬰發車騎士八萬五千人詣高奴 擊右賢王走出塞 其秋 濟北王興居反 使大將軍討之 皆伏誅 《漢書》志27上 五行志 7上

89) 樂浪명칭이 기원전 178년에 존재하였음을 알려주는 사료가 《後漢書》라는 사실은 《後漢書》 편찬시기에 이미 존재한 낙랑의 명칭을 전대의 사실을 설명하면서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상정된다. 그러나 사료내용은 보면 이 내용은 後漢 明帝시 汴渠 건축으로 활약한 낙랑출신 王景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부분으로 王景집안이 대대로 유지한 가문의 전승이나 기록을 바탕으로 이 내용이 소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처음 망명하였던 王仲이 자신의 망명지를 나름대로 선택하였을 것이고 중국내 정치적 변화가 영향받지 않을 곳을 선택하였

재한 樂浪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며 樂浪이 漢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명칭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다. 즉, 王仲이 피난한 곳이 위만조선 지역이었다면 피신 지역이 朝鮮으로 명기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樂浪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樂浪〉이란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이곳이 中國系 避難民들이 집중된 곳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漢四郡의 名稱은 기존 위만조선에 포섭되었던 정치적 존재들의 명칭이자 그들의 郡縣 위치설정 또한 이들의 정치적 영역이 고려되어 설정되었다고 생각된다.⁹⁰⁾

한편, 이 같은 樂浪의 위치와 성격을 확인케 하는 존재가 衛滿朝鮮이 漢과 ‘擁闕不通’케하여 관계를 차단하였던 “眞番傍衆國”이다. 이들은 한의 위만조선 정벌의 대표적 이유였던 경제적 교역의 실제적 대상으로서 한은 일찍부터 이곳의 물산을 교류하고 있었다.

E-1) 夫燕亦勃碣之間 一都會也 南通齊趙 東北邊胡 上谷至遼東 地踔遠 人民希 數被寇大與趙代俗相類 而民雕悍少慮 有魚鹽棗栗之饒 北鄰烏桓 夫餘 東縮穢貉朝鮮眞番之利

《史記》卷一百二十九 列傳 第六十九 貨殖列傳

樂浪郡은 사료에 나타나고 있듯이 漢과의 교역활동 수행에 적합한 세력에 설치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즉, 樂浪郡은 위만조선이 붕괴된 후 기왕의 眞番 옆의 여러 정치적 세력들이 漢帝國과의 交易을 진행함에 있어 중계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眞番 옆의 衆國” 가운데 친중국적 존재와 연결되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한편, 《說文解字》에 나타나고 있는 다음 사료들은 이같은 추정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즉, 《說文解字》 魚部에서 설명하고 있는 여러 물고기들 중 대부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산출지를 밝히는 注記가 달려 있는 것 가운데 다음 내용이 주목된다.

鮓 魚名 出 葦邪頭國

魴 魚名 出 葦邪頭國

다고 생각된다. 그런 지리적 상황에 대응되는 곳은 중국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바로 받는 위만조선지역보다는 더 내륙지역에 망명하였을 것이며 그곳이 이전부터 망명한 중국계 세력에 의해 형성된 樂浪이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곳도 앞서 진번, 임둔 현도와 마찬가지로 정치체명칭이었다고 파악된다.

90) 樂浪과 樂浪郡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논할 계획임.

鱠 魚名 出 樂浪潘國

鮠 魚名 ...出 遼東

鯨 魚名 出 樂浪潘國

鮠 魚名 出 樂浪潘國

鮠 魚名 出 樂浪潘國

鮠 魚名 出 樂浪潘國

鱣 魚名 出 樂浪潘國

鮮 魚名 出 貉國

鱣 魚名 皮有文 出 樂浪東曉

즉, 물고기의 산출지를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葦邪頭國, 樂浪潘國, 貉國 등과 같이 ‘國’이 붙어 이들이 독립적인 정치체임을 확인 시켜주는 존재와 遼東, 樂浪東曉 등과 같이 遼東郡지역 또는 樂浪郡의 東曉縣⁹¹⁾과 같이 군현의 명칭으로 표현한 존재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다. 《說文解字》가 後漢初에 만들어진 것을 감안할 때 이들 기록은 바로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郡縣과 독립적인 존재로 漢에 조공을 바친 존재들은 명확히 구분하였다고 파악된다. 주목되는 것은 樂浪郡의 東曉縣과 대비되는 樂浪潘國의 존재이다. 이를 진번과 연결시켜 파악한 견해도 있다.⁹²⁾ 또한 낙랑군에 예속된 주변 정치체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표현된 葦邪頭國, 貉國등의 표현을 감안할 때 樂浪潘國이란 표현은 樂浪지역의 潘國 또는 ‘樂浪潘國’으로서 적어도 낙랑군과는 별개의 독립적 정치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즉, 낙랑으로 표현된 존재는 樂浪郡과 함께 樂浪潘國같은 존재가 후한시기에도 병존하고 있었다. 또한 潘國이란 표현은 이것이 眞番과 연결되는 표현임을 보여준다. 이같은 사실은 낙랑과 진번이 밀접한 연결 속에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즉, 한나라는 기왕의 위만조선이 역할하였던 기능 가운데 군사적 外臣의 성격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어 단순히 漢과의 交易을 대행할 수 있는 정치적 존재에게 漢郡縣의 명칭을 부여하였다고 추정된다. 이때 그같은 기능을 수행한 존재가 기왕의 親漢的 性格을 유지하였던 세력 즉, 한계 유이민 집단이 집중된 지역으로서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한

91) 《漢書》卷二十八下 志 第八下 地理志 樂浪

92) 今西龍, 1937 〈樂浪郡 位置考〉, 《朝鮮古史の研究》

지역에 교역거점의 기능을 부여하였다고 생각되며 그 위치는 진번지역과 밀접한 지역에 위치하였다고 파악된다.

2) 낙랑군=왕험성인식의 고착화

낙랑위치에 대한 후대시기 첫 논의는 수경주를 만든 역도원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北魏 酈道元(469-527)은 《水經注》를 통해 平壤=樂浪郡 朝鮮縣=(王險城)인식을 부각시켰다.⁹³⁾

“淇水出樂浪鏤方縣東南過臨淇縣東入於海……余訪蕃使 言城在淇水之陽 其水西流逕故樂浪朝鮮縣 卽樂浪郡治 漢武帝置 而西北流 故地理志曰 淇水西至增地縣入海”.

《水經注》 淇水

또한 《史記索隱》에 인용된 薛瓚도 王險城과 樂浪郡을 연결짓고 있으며⁹⁴⁾ 이후 唐代에 편찬된 《括地志》 등에서 이와 같은 이해를 고착하고⁹⁵⁾ 杜佑의 《通典》에서 정설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⁹⁶⁾

한편 고구려시기 평양지역을 낙랑과 연결 지어 이해하는 내용이 존재하였다.

十四年, 冬十月, 侵樂浪郡, 虜獲男女二千餘口.

三國史記 卷第十七 高句麗本紀 美川王

高句麗常以春三月三日, 會獵樂浪之丘, 以所獲猪鹿, 祭天及山川神. 至其日, 王出獵, 羣臣及五部兵士皆從. 於是, 溫達以所養之馬隨行.

三國史記 卷第四十五 列傳 第五 溫達

93) 《水經注》 淇水, “淇水出樂浪鏤方縣東南過臨淇縣東入於海……余訪蕃使 言城在淇水之陽 其水西流逕故樂浪朝鮮縣 卽樂浪郡治 漢武帝置 而西北流 故地理志曰 淇水西至增地縣入海”.

94) 《史記》 朝鮮傳, “臣瓚云 王險城在樂浪郡淇水之東也” 《漢書》 地理志 “臣瓚曰 王險城在樂浪郡淇水之東 此自是險瀆也 師古曰 瓚說是也”

95) 《正義》 潮仙二音括地志云 高驪都平壤城 本漢樂浪郡王險城 又古云朝鮮地也

96) 《通典》 邊防典凡十六卷 卷一百八十五 邊防一 東夷上 序略. “秦并天下 其淮 泗夷皆散爲人戶 其朝鮮歷千餘年 至漢高帝時滅武帝元狩中 開其地 置樂浪 等郡 … 高麗本朝鮮地 漢武置縣 屬樂浪郡 時甚微弱後漢以後 累代皆受中國封爵 所都平壤城 則故朝鮮國王險城也”

상기 사료에 따르면 낙랑이 고구려에 복속되었으며 앞서 북위에 사신으로 온 고구려 사신을 직접 찾아가 질문을 해 낙랑과 평양지역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다. 즉, 고구려사신이 이를 확인해 주었다는 내용이다. 물론 본문 내용 가운데 어디까지가 고구려 사신의 말인가에는 논란이 있지만 余訪蕃使 言城在湏水之陽 其水西流逕故樂浪朝鮮縣 卽樂浪郡治 漢武帝置 而西北流 故地理志曰 湏水西至增地縣入海 내용 중 적어도 고구려 평양성이 패수의 북쪽에 있으며 패수가 서쪽으로 흘러 낙랑조선현을 지난다는 내용은 확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온달조에 나오는 기록에서 확인되듯 평양 천도이후인 평원왕(559-590)때 고구려는 3월 3일 樂浪之丘에서 사냥을 해 국가적으로 천 및 산천신에 제사지내는 의식을 거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39년으로 추정⁹⁷⁾되는 延嘉七年銘 高句麗佛像에 나타난 명문내용에서 평양지역이 낙랑으로도 불렸음을 알 수 있다.

延嘉七年歲在己未高麗國樂良 東寺主敬弟子僧演師徒卅人 造賢劫千佛流布第廿九回現
義佛比丘供養

《譯註 韓國古代金石文》1 高句麗 佛像 銘文/ 延嘉七年銘 金銅光背

따라서 평양일대 지역을 낙랑으로 인식하는 내용이 고구려시기에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30년대 집중적으로 발굴된 대동강 연안에서 발견된 중국계 유물, 유적은 낙랑유적으로 파악되면서 낙랑위치 결정의 결정적 근거로 활용되었다.⁹⁸⁾

97) 연가 7년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419년 장수왕=7년설(李昊榮, p.103), 479년 장수왕=67년설(손영중, p.357), 539년 안원왕=9년설(金元龍, p.156), 599년 영양왕=10년설(黃壽永, p.173) 등으로 견해가 갈라지고 있다.

金元龍, 1964 <延嘉七年銘金銅如來像 銘文> 《考古美術》5-9; 1987 《韓國美術史研究》一志社

黃壽永, 1964 <高句麗金銅佛像의 新列二座> 《李相伯博士回甲紀念論叢》; 1973 《韓國佛像의 研究》三和出版社; 1989 《韓國의 佛像》文藝出版社

손영중, 1966 <금석문에 보이는 삼국시기의 몇 개 년호에 대하여> 《역사과학》1966-4; 1991 《북한의 우리 고대사 인식》1 대륙연구소출판부

李昊榮, 1979 <中原高句麗碑 題額의 新讀> 《史學志》13

98) 조법중, <한사군문제(平壤지역문화)에 대한 일본역사학계의 인식검토> (《송갑호선생화갑기념사학논총》, 1992).

2) 왕험성의 지리적 상황

왕험성 붕괴시점과 낙랑군 설치시점이 9개월에 가까운 시차가 존재한다는 발표자의 주장이 허용된다면 결국 낙랑군과 왕험성의 위치문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 왕험성 함락을 전제로 왕험성만을 포위한 채 왕험성이 있는 공간주변을 낙랑군으로 선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거왕이 죽은 이후에도 왕험성을 거점으로 성기에 의해 계속 항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특히, 군설치라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확실한 장악을 전제로 한 것인데 여전히 전쟁이 지속중인 상황에서 이같은 설정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 본다면 낙랑군 관련 공간과 연결 지어 인접한 공간에서 후보지를 찾아야 한다.

둘째, 우거왕의 사망이란 사건을 기점으로 한에 의한 위만조선 공략이 사실상 끝났음을 공포하기 위해 전투 중인 왕험성 지역을 제외하고 한에 의해 장악된 위만조선의 기타 영역에 3군을 먼저 설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왕험성 장악이후 축차적으로 나머지 군을 설치하는 방법이다. 이 문제는 1년 후인 기원전107년 한4군중 하나인 현도군이 설치되었다는 점과 마지막 저항세력 성기를 제거한 장각, 최등이 역시 기원전 107년에 체후로 봉해진 사실, 그리고 역시 기원전 107년 전쟁 패배의 책임을 물어 누선장군 양복이 사형죄에서 속가를 내고 서인으로 신분이 강등되는 조치가 취해졌다는 사실과 연결된다.

두 번째 가능성이 높다면 결국 왕험성의 위치는 낙랑군이 설치된 현재의 평양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이 같은 논점을 정리하기 위해 기왕의 자료에 나타난 王險城에 대한 주석을 정리해보면 왕험성이 險瀆에 존재한다는 인식과 平壤에 존재한다는 인식으로 대별되어 나타나고 있다.

앞서 사료를 도표화해 정리한 내용을 보면 고조선과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 속에서 공간명칭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위만 망명이전에 이미 BC209-202경인 진승과 항우의 봉기로 중국이 혼란해진 상황을 피해 (패수를 건너) 망명한 燕, 齊, 趙民들이 준왕에게 망명해

왔고 준왕은 이들을 고조선의 서방 지역에 두었던 사실이다.(愁苦稍稍亡往準 準乃置之於西方) 즉, 위만이 망명한 시기보다 약 10여년 앞선 시점에 이미 燕, 齊, 趙 등 유이민 집단이 고조선의 서방지역에 정치적 거점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원전 195년경 위만이 망명하여 이미 형성된 고조선의 서방지역의 정치적 거점 공간을 장악하여 조선의 변방(朝鮮藩屏)을 자임하였다. 준왕은 위만에게 규를 하사하고 백리의 땅을 봉하는 등 독자성을 인정하였다.

여기서 백리의 땅을 봉했다는 점은 실제 100리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독자적 세력에 대한 상징적 영역에 대한 통치 허용을 보여준 표현으로 파악된다.

즉, 다음 사료에 보이듯이 이는 후계세력 또는 후원세력에 대한 인증 행위로 백리의 땅을 봉했던 상징적 사건과 연결된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堯知契、稷皆賢人，天之所生，故封之契七十里，後十餘世至湯，王天下。堯知后稷子孫之後王也，故益封之百里，其後世且千歲，至文王而有天下

史記13 三代世表 1

100리의 땅이 실제적이든 상징적이든 중요한 것은 준왕이 위만을 독자적 정치체의 장으로 인정하였으며 藩屏이란 표현에서 군사적 방어 거점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는 위만의 거점이 독립적 공간으로 조선의 서방에 위치해 왕험성과 별도로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왕험성을 설명하는 명칭인 險瀆과 관련된 ‘조선왕구도’ 또는 ‘조선왕만도’로 설정된 공간 표현이 왕험성과 별개로 존재한 공간에 대한 표현이었음을 확인시켜 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즉, 《사기》 조선열전의 ‘王險’에 대한 注文을 보면 다음과 같다.

稍役屬真番、朝鮮蠻夷及故燕、齊亡命者王之，都王險。

【集解】徐廣曰：〈昌黎有險瀆縣也。〉

【索隱】韋昭云〈古邑名〉。

徐廣曰〈昌黎有險瀆縣〉。

應劭注〈地理志遼東險瀆縣，朝鮮王舊都〉。

臣瓚云〈王險城 在樂浪郡溟水之東〉也。

《史記》 115 朝鮮列傳55

遼東郡，秦置。屬幽州。戶五萬五千九百七十二，口二十七萬二千五百三十九。縣十八襄平，有牧師官。莽曰昌平。

新昌，無慮，西部都尉治。望平，大遼水出塞外，南至安市入海，行千二百五十里。莽曰長說。房，候城，中部都尉治。遼隊，莽曰順陸。遼陽，大梁水西南至遼陽入遼。莽曰遼陰。

險瀆 應劭曰：〈朝鮮王滿都也。依水險，故曰險瀆。〉

臣瓚曰：〈王險城在樂浪郡溟水之東，此自是險瀆也。〉

師古曰：〈瓚說是也。溟音普大反。〉

居就，室偽山，室偽水所出，北至襄平入梁也。

高顯，安市，武次，東部都尉治。莽曰桓次。平郭，有鐵官、鹽官。西安平，莽曰北安平。

文莽曰（受）〔文〕亭。番汗 沛水出塞外，西南入海。

應劭曰〈汗水出塞外，西南入海。番音盤。〉

師古曰〈沛音普蓋反。汗音寒。〉

沓氏。

《漢書》 28下 地理志 8下 遼東郡

왕험에 대한 주석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다른 입장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王險’에 대한 주석가들의 입장이 시대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는 데 시대 순서대로 구분해보면 정리 순서가 달라진다.

먼저 색은⁹⁹⁾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索隱】 ① 韋昭云〈古邑名〉。

② 徐廣曰〈昌黎有險瀆縣〉

③ 應劭注〈地理志遼東險瀆縣，朝鮮王舊都〉。

99) 《史記》에 대한 대표적 주석인 《史記》三家注 즉, 劉宋代 裴駰(372~451)의 《史記集解》, 唐初 司馬貞의 《史記索隱》·開元年間에 成書된 張守節의 《史記正義》 중 대표적인 주석서임

④ 臣瓚云〈王險城 在樂浪郡溟水之東〉也。

그런데 이들의 생존 시대로 재정리하면 ③應劭(153-196)는 후한대 桓靈帝시기에 주로 활동하였고 ①韋昭(204-273)는 삼국시기 吳의 史學家였으며 ④臣瓚은 西晉 (266—316) 의 학자로 《漢書集解音義》를 만들어 唐의 顏師古가 《漢書》에 作注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②徐廣(352~425)은 위진남북조시기에 활동한 역사가였다.

따라서 이들의 王險에 대한 주석내용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③ 應劭注〈地理志遼東險瀆縣, 朝鮮王舊都〉。

① 韋昭云〈古邑名〉。

④ 臣瓚云〈王險城 在樂浪郡溟水之東〉也。

② 徐廣曰〈昌黎有險瀆縣〉

또한 요동군 險瀆현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險瀆 應劭曰：〈朝鮮王滿都也。依水險，故曰險瀆。〉

臣瓚曰：〈王險城在樂浪郡溟水之東，此自是險瀆也。〉

師古曰：〈瓚說是也。溟音普大反。〉

따라서 왕험과 險瀆을 연결 짓는 인식은 후한시기 應劭(153-196)가 《한서》 지리지 遼東郡의 속현인 險瀆을 문자의미 그대로 ‘依水險’의 의미로 해석하고 王險의 險과 《史記》 본문 중에 나타난 ‘右渠發兵距險’을 우거가 ‘왕험성’에서 대항하였다고 파악한 듯하다. 그런데 우거의 距險은 문맥상 좌장군 선봉부대인 졸정 다와 먼저 싸웠다는 점에서 ‘험준한 곳’이란 의미가 적절하지 ‘왕험’을 생략한 지명으로서의 ‘험’의 의미는 아니라고 파악된다. 이는 앞서 전개된 韓의 閩越, 및 東越 정벌시에도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險준한 곳이란 의미로 파악된다.

至建元六年，閩越擊南越。南越守天子約，不敢擅發兵擊而以聞。上遣大行王恢出豫章，大農韓安國出會稽，皆為將軍。兵未踰嶺，閩越王郢發兵距險

元封元年冬，咸入東越。東越素發兵距險，使徇北將軍守武林，敗樓船軍數校尉，殺長吏
史記114 東越列傳54

또한 徐廣(352-425)이 살았던 시대를 감안하면 대능하 朝陽 일대로 비정되는 昌黎郡에 僞獨현이 나타난 것은 낙랑군과 요동군이 이 부근으로 僞置되면서¹⁰⁰⁾ 과생된 지명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요동 僞獨현에 衛滿의 所都가 있었다는 《한서》 지리지에 대한 應劭注는 衛滿 集團의 거주지로서 ‘滿都’가 본래 注文일 가능성이 높다.¹⁰¹⁾ 바로 이 위만의 거점 지역에 대한 설명이 僞獨과 연결되고 있다.

今呂嘉、建德等反，自立晏如，令罪人及江淮以南樓船十萬師

【集解】應劭曰 時欲擊越，非水不至，故作大船。船上施樓，故號曰《樓船》也。往討之

史記113 南越列傳53

그런데 이 같은 이해와 함께 왕험성을 낙랑군과 연결지으며 또 그 위치를 高句麗수도인 平壤과 연결 짓는 인식이 제기되어 있다. 이 견해를 대표한 존재는 5세기 말, 6세기 초에 활동한 北魏人 酈道元(469-527)으로서 《水經注》를 통해 平壤=樂浪郡 朝鮮縣=(王險城)인식을 부각시켰다.¹⁰²⁾ 또한 《史記索隱》에 인용된 薛瓚도 왕험성과 낙랑군을 연결짓고 있으며¹⁰³⁾ 이후 唐代에 편찬된 《括地志》등에서 이 같은 이해를 고착하고¹⁰⁴⁾ 杜佑의 《通典》에서 정설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¹⁰⁵⁾

100) 낙랑군의 요서 교차와 이후 북위대까지의 변천상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가 참고 된다.

千寬宇, 1989b 〈灤河下流의 朝鮮〉 앞의 논문

園田俊介, 2007 〈北魏時代の樂浪郡と樂浪王氏〉 《中央大學アジア史研究》 31, pp.1-32

윤용구, 2015 〈《史記》·《漢書》 注文의 ‘古朝鮮’ 관련 기사〉 《한국고대사연구》 80

101) 윤용구, 2015 〈《史記》·《漢書》 注文의 ‘古朝鮮’ 관련 기사〉 《한국고대사연구》 80

102) 淇水出樂浪鏤方縣東南過臨淇縣東入於海……余訪蕃使 言城在淇水之陽 其水西流逕故樂浪朝鮮縣 卽樂浪郡治 漢武帝置 而西北流 故地理志曰 淇水西至增地縣入海 ……

《水經注》 淇水

103) 臣瓚云 王險城 在樂浪郡 淇水之東 也

《史記》 卷一百一十五 列傳 第五十五 朝鮮列傳

臣瓚曰 王險城在樂浪郡淇水之東 此自是險瀆也 師古曰 瓚說是也

《漢書》 卷二十八下 志 第八下 地理志

104) 《正義》 潮仙二音 括地志云 高麗都平壤城 本漢樂浪郡王險城 又古云朝鮮地也

105) 《通典》 凡十六卷 邊防典 卷一百八十五 邊防 一 東夷上 序略

秦并天下 其淮 泗夷皆散爲人戶 其朝鮮歷千餘年 至漢高帝時滅 武帝元狩中 開其地 置樂浪等郡 …… 高麗本朝鮮地 漢武置縣 屬樂浪郡 時甚微弱 後漢以後 累代皆受中國封爵 所都平壤城 則故朝鮮國 王險城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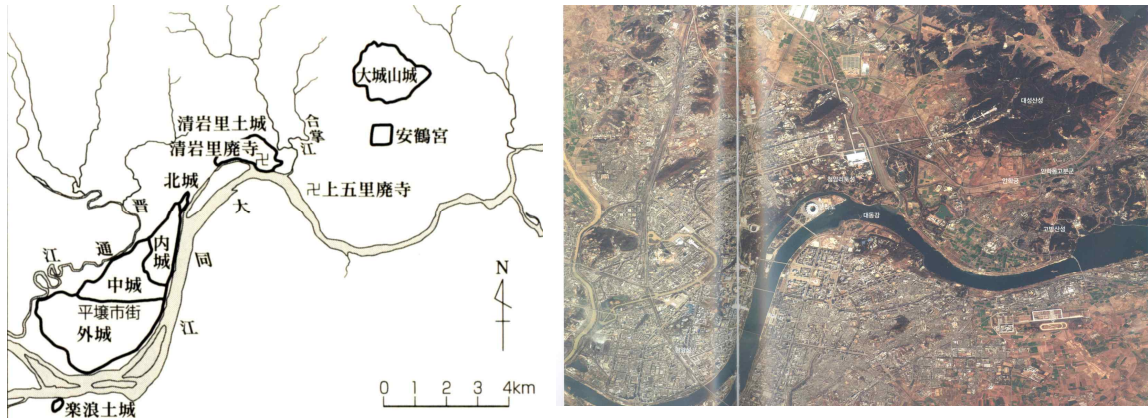
이같이 王險城을 (高句麗의 도읍=) 平壤城 = 漢 樂浪郡 = 朝鮮으로 연결 짓는 견해와 《史記索隱》 등에 소개된 전혀 다른 견해인 遼東 險瀆縣에 朝鮮王의 舊都邑이었다는 내용 즉, 한반도에 樂浪이 있다는 견해와 요동에 朝鮮王의 舊都邑이 있다는 견해의 대립은 기왕의 고조선 요동중심설과 평양중심설 논란의 가장 중요한 전거로서 활용되었던 사료들이다.

그런데 험독의 경우는 앞서 위만이 준왕을 축출하기 전에 장악하였던 거점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나중에 위만이 장악한 준왕의 왕험성=우거왕의 왕험성과는 다른 존재로 상정된다. 결국 왕험성은 낙랑군의 거점인 평양일대에서 찾거나 험독이 아닌 또다른 제3의 후보지가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현재 학계의 연구추세로 보면 일부 요동설을 주장하는 입장 등을 제외하고는 평양설 및 이동설은 결국 고조선 후기 및 위만조선시기 왕검성은 동일하며 그 공간은 낙랑군으로 연결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한의 5만 이상의 군대와 3년여에 달하는 전쟁기간 중 1년 가까이 격전을 벌였던 위만조선의 왕검성 실체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동시기 한무제에 의해 공략된 南越 宮殿과 王陵이 발굴되어 그 역사적 실체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과 대비된다.¹⁰⁶⁾ 현재 확인된 樂浪 土城유적 일대가 낙랑군치의 중심지역이자 위만조선의 왕험성 지역이라고 본다면 사료에 나타난 정황과는 맞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료에 나타난 왕험성의 정황을 보면 “左將軍破浪水上軍，乃前，至城下，圍其西北。樓船亦往會，居城南。右渠濬堅守城，數月未能下” 좌장군 부대가 성의 서북쪽을 누선장군의 부대가 성의 남쪽을 포위하고 1년여 동안 한과 전쟁을 치룬 구체적 방어체계가 전제된 공간인데 현재 이에 부응하는 유적은 平壤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즉, 이 문제는 단지 유적이 확인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라고 하기에는 평양주변 역사공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진행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유적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대동강 주변에서 확인된 낙랑토성유적은 왕검성유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미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 청암리토성유적

106) 특히, 廣東省 廣州 구 도심에서 확인된 남월궁유적 및 남월 2대왕릉 유적 내용은 당시 비슷한 국력을 보유한 위만조선의 왕성 및 왕릉의 규모를 유추케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규모를 추정케 한다.
南越王宮博物館編, 2010, 『南越國宮署遺址』, 廣東人民出版社.
中國秦漢史研究會, 西漢南越王博物館, 中山大學歷史系編, 2005, 『南越國史迹研討會論文選集』, 文物出版社.



<그림 13> 평양일대 유적 분포도와 위성사진에 나타난 공간정황

이 제시되었으나 최근 북한학계의 조사결과 유물내용이 위만조선시기 상황과는 연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청암리 토성과 연결된 북한의 주석공인 금수산궁전 지역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 이 지역도 위치 정황상 왕험성 공간으로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 정황상 굳이 가능하다면 대성산성유적이거나 이는 발굴 자료상에서 관련유물, 유적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¹⁰⁷⁾ 따라서 평양설, 이동설적 관점에서 평양일대가 왕험성의 후보지로서의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 공간과의 대응을 통해 이 문제가 정리되어야 지속적인 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평양일대에서 적절한 후보지가 찾아지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다른 공간에서 찾아야 되지만 고고학적 정황과 한군현 영역 범위 안에서 왕험성의 실체를 찾아야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안은 앞서 조법중, 김남중 등이 제안한 것처럼 현도군영역과의 연결 속에서 새로운 후보지 물색이 제안될 수 있다. 다만 이 지역 또한 고고학적 유물상의 내용이 현재 상황으로는 미흡하다는 점에서 역시 하나의 가설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관련 문제의 반복적 제기보다는 남북한 공조를 통한 고조선 및 낙랑관련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학술적 논제들에 대한 합리적 해결이 요청된다.

107) 채희국, 1964, 《대성산일대의 고구려 유적에 관한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과, 1973, 《대성산의 고구려유적》
 고구려연구재단, 2005, 《평양일대 고구려유적-남북공동유적조사보고서-》

결 언 - 문제제기

고조선의 중심지와 영역 문제에 대한 견해를 검토해 보면 결국 고조선의 위치 관련 자료의 대부분이 중국과의 접촉에 관련된 地名들에 관한 것으로서 이들 자료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른 해석 차이가 중심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세력과의 관계에서 대표적으로 부각되는 지명은 戰國시대 燕과 古朝鮮의 관계, 燕代 遼東郡의 위치, 秦長城의 위치, 滿番汗, 溟水의 위치, 王險城의 위치, 및 漢에 의해 설치된 漢四郡 특히, 樂浪郡의 위치문제 등에 집중되어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종래 이 문제는 한쪽 사료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논지를 전개하였다. 이같은 인식의 문제점은 樂浪과 王險城을 동일지역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었다. 따라서 이를 앞서 정리한 것처럼 분리시켜 인식할 경우 이 같은 상호 모순성은 해소될 문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왕험성의 위치는 낙랑군 설치시점과 왕험성 함락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서로 구분해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그 위치는 왕험성 근처일 가능성과 현도군지역과 연결된 지역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 두 지역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요청된다. 특히, 현재 평양지역의 유적들을 고려할 때 평양일대에서 왕험성의 후보공간이 명확치 않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공간에 대한 조사와 검토가 요청된다.

<발표 2>

한나라 군사작전으로 본 위만조선 왕검성 위치 고찰

박성용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한나라 군사작전으로 본 위만조선 왕험성 위치 고찰*

박성용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1. 서론

기원전 109년 한(漢)의 위만조선 침공 때 한나라 수륙합동군의 공격 목표였던 왕험성(王險城) 위치는 고조선 중심지 및 낙랑군 위치와 관련하여 한국 상고사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한나라가 위만조선을 병합한 후 그 영토에 설치한 4군(郡) 중 낙랑군이 위만조선의 수도 왕험성 일대에 설치되었다고 사서에 기록되어 있어 문헌 기록이 미미한 고조선 중심지를 찾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고려 중기 이후 고조선의 수도 왕험성은 오늘날 평양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17세기 이후 왕험성재요동설이 왕험성재평양설의 대립 가설로 논의되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주도한 낙랑고고학에 의해 왕험성재평양설이 더욱 고착화되어 현재 100년이 넘도록 학계 다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왕험성재평양설과 직결된 낙랑군재평양설은 고조선의 강역과 역사를 축소함으로써 한국 상고사를 왜곡하고, 차후 북한급변사태 시 중국이 북한 북부 지역을 점령할 명분을 확보하는 역사적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고대 동북아 지도에는 한나라 영토가 한반도 한강 이북까지 내려온 것으로 그려져 있다. 역사적으로 수양제와 당태종도 요동이 본시 중국 땅이라고 주장하며 고구려 원정의 명분으로 삼았다. 중국

* 본 발표문은 박성용·남창희·이인숙 공저의 논문인 「한나라 군사작전으로 본 위만조선 왕험성 위치 고찰: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의 연고권 개입 명분에 대한 함의」, 『국방연구』 2015년 6월호를 재정리한 것임.

주장에 따르면 고조선은 상(商)의 제후인 기자가 세운 나라이며 기자조선이 위만조선에 계승되고 위만조선 멸망 후 한나라 식민지가 설치되었으므로 고조선은 중국사가 된다는 것이다. 고조선이 중국사가 되면 그 후속 왕조인 고구려는 물론 고구려 계승을 천명한 고려까지도 중국 지방정권이라는 논리가 정당화될 수 있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발하고 중국이 북한의 요청에 따라 개입하는 경우 중국은 국제사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역사적 연고권을 제시할 개연성이 있다. 위만조선의 수도 왕험성이 한반도 평양 혹은 요동반도나 요서에 있었는지에 관한 인식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연고권 주장을 반박할 자료로서 긴요한 실정이다. 그만큼 왕험성 위치를 밝히는 것은 과거 한국사뿐 아니라 미래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현재 국사학계의 다수 의견인 낙랑군재평양설은 최근 낙랑 유물 재해석 필요성이 제기될 만큼 고고학적으로나 역사지리학적으로 모순이 많음에도 여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경합가설인 왕험성재요동설과 왕험성재요서설 역시 문헌사료 해석에 기초한 역사지리학적 고증에 주로 의존하여 아직까지 충분한 논리성을 갖추지 못한 한계가 있다.

왕험성 위치는 논의가 분분했던 17세기부터 21세기에 접어든 현재까지 여전히 미결 과제로 남아 있는데, 문헌사료 해석의 자의성과 고고학 자료의 한계로 인해 왕험성 위치 고증을 보완할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군사학을 원용한 융합적 관점에서 왕험성 위치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양국의 전쟁은 당시 한나라의 대외팽창 정책의 일환이며, 군사작전은 전쟁수행 원칙에 따라 수행되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관련 문헌인 『사기』 「조선열전」의 기록을 군사학 이론의 관점에서 정밀 분석하고자 한다. 당시 한나라는 남월(南越)과 동월(東越) 정벌 직후로 군사재원이 제한되어 있었고 흉노의 상시적 북변 위협에 대처해야 했으므로 위만조선 공략에서 무리한 작전을 강행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대체로 『손자병법(孫子兵法)』 등에서 도출되는 군사작전의 합리성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위만조선 이전의 세계 전쟁 사례들을 현대 국제관계 이론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축적되고 있는 만큼 기원전 108년의 군사작전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¹⁾ 그 결과를 토대로 왕험성 위치에 관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왕험성재평양설이 논리적으로 불충분한 학설이라는 근거를 추출해 보고자 한다.

1) Stuart Kaufman, Richard Little, and William Wohlforth (eds), *The Balance of Power in World History* (NY: Palgrave Macmillan, 2007); Xuetong Yan and Xu Jin (eds), *A Selection of Pre-Qin Theories of Interstate Relations* (Shanghai: Fudan University Press, 2008); 삼국시대 국제관계 연구의 예는 Boxing Pan and Tae-hyung Kim, "Balancing or Bandwagoning: Alliance Choices of Baekje and Silla,"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48, No. 6 (2014).

2. 왕험성 위치에 관한 제가설과 문제점

위만조선의 수도 왕험성 위치에 관해 현재 학계에 제기된 견해는 크게 한반도 평양설과 요동설로 구분된다. 평양설은 고조선이 건국하여 위만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현 평양이 수도 왕험성이었으며 후일 한나라 낙랑군 조선현(朝鮮縣)이라는 견해이다. 고조선이 전국시대 말 연(燕)의 팽창으로 중심지를 요동에서 현 평양으로 옮겼다는 중심지 이동설에서도 위만조선의 수도 왕험성을 평양으로 본다. 반면 요동설은 위만조선에 이르기까지 고조선의 수도 왕험성이 요동에 있었다는 견해이다. 정인보는 왕험성을 현 중국 요령성 해성, 신채호와 리지린은 요령성 개평(개주), 윤내현은 하북성 창려 인근으로 보았다.²⁾ 이 글에서는 논지 전개에 편의상 각 설을 평양설, 요동설, 요서설로 약칭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1) 평양설

왕험³⁾이 위만조선의 수도라는 사실은 『사기(史記)』 「조선열전」 “조선 왕 만(滿)이 왕험(王險)에 도읍했다”⁴⁾라는 기록에 처음 나타난다. 중국 사서에서 평양설의 첫 구체적 논거는 『수경주(水經注)』에서 찾을 수 있다. 북위(北魏) 사람 역도원(酈道元, 470-527)은 『수경주』에서 조선 왕 위만의 도읍인 왕험성이 역도원이 활동할 당시 고구려 도읍이며, 고구려 도성 남쪽을 흐르는 패수(溍水)⁵⁾가 서쪽으로 흘러 옛 한나라 낙랑군 치소인 조선현을 지나 다시 서북쪽으로 흐른다고 했다.⁶⁾ 그러나 『수경주』에서

2) 현재 요동(遼東)과 요서(遼西)는 요령성 요하(遼河)를 기준으로 그 이등과 이서 지역을 관용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이 기준에 따라 요동설과 요서설로 구분하여 기술했다.

3) 위만조선의 수도 이름으로, 『사기』, 『한서』, 『사기색은』 등 중국 사서에서는 왕험성(王險城)으로, 『삼국유사』 ‘위만조선(衛滿朝鮮)’조 등 한국 사서에는 왕검성(王儉城)으로 표기되어 있다. 한국과 북한 학자들은 대체로 왕검성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왕험성으로 통일하여 표기했다.

4) 『史記』 卷115 「朝鮮列傳」 朝鮮王滿者… 都王險.

5) 위만조선과 한나라(前漢)의 경계인 패수(溍水)와 이름이 같으나 다른 패수이다.

6) 『水經注』 卷14 「溍水」 燕人衛滿自溍水西至朝鮮. 朝鮮, 故箕子國也. … 滿乃王之, 都王險城 … 其地今高句麗之國治, 余訪番使, 言城在溍水之陽. 其水西流逕故樂浪朝鮮縣, 即樂浪郡治, 漢武帝置, 而西北流.

인용한 『수경』 원문에는 『수경주』와는 달리 패수가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 강⁷⁾이라고 했다. 역도원이 활동할 당시는 고구려 장수왕이 ‘평양성’으로 천도한 이후이고, 장수왕 시기 고구려와 북위의 긴밀한 외교관계 덕분에 역도원은 당시 고구려 수도에 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 중국 사서에는 시대에 따라 다른 곳을 지칭하는 듯한 ‘평양’이 여러 곳에 나오고⁸⁾ 패수는 평양성 앞을 흐르는 강으로 자주 등장하는데, 서한 때 또는 4세기 초 진(晉)나라 때 저술로 알려진 『수경』과 6세기 저작인 『수경주』에서 패수의 방향이 다른 것은 고구려가 천도한 사실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당나라 시기에 들어서는 패수 방향에 관한 언급 없이 “왕험이 한나라 낙랑군 조선현이며 고구려 수도 평양”이라는 인식이 더욱 굳어지는데, 『괄지지(括地志)』에는 “고구려 도읍 평양성이 본래 한나라 낙랑군 왕험성, 즉 옛 조선 땅⁹⁾이라고 했고 『사기정의(史記正義)』에도 고구려 평양성이 한 낙랑군 왕험성이며, 옛 조선 땅으로 조선 왕 만이 거했다”고 하여 위만조선의 도읍 왕험성이 낙랑군에 있었으며 곧 고구려 평양성이라는 인식을 보여준다.¹⁰⁾ 이후 『통전(通典)』에서 “동진(東晉) 이후 고구려 수도는 평양성이며, 평양성은 한나라 낙랑군 왕험성”이라고 하여 더욱 구체화되고¹¹⁾ 『구당서(舊唐書)』와 『신당서(新唐書)』 「동이열전(東夷列傳)」 ‘고구려’조에서도 고구려 수도 평양성이 한나라 낙랑군 땅으로 언급되었다.¹²⁾ 『괄지지』는 당태종 연간인 642년, 『사기정의』는 측천무후 재위 중 705년 이전, 『통전』은 801년, 『구당서』는 945년, 『신당서』는 1060년에 편찬된 책이다. 『괄지지』는 고수(高隋)전쟁 이후 1차 고당(高唐)전쟁 직전, 『사기정의』와 『통전』은 고당전쟁 이후 편찬된 책이므로 고구려 마지막 수도 평양에 관해 이미 잘 알고 있는 시기에 저술된 책이다. 그런데 고구려 평양과 한나라 낙랑군이 현 북한 평양이라는 통념을 잠시 내려놓고 앞서 열거한 이 사서들의 고구려 관련 기사를 기록 그대로 읽어 보면 당시 중국 학자들이 고구려 수도로 기록한 평양이 반드시

7) 『水經注』 卷14 「淇水」 淇水出樂浪鏤方縣，東南過臨淇縣，東入于海。

8) 『宣和奉使高麗圖經』 卷第3 「國城」 高麗，自唐以前，蓋居平壤，本漢武帝所置樂浪郡，而唐高宗所建都護府也。以唐志考之，平壤城乃在鴨綠水東南。唐末，高麗君長徵累世兵革之難，稍徙而東。今王城在鴨綠水之東南千餘里，非平壤之舊矣；『元史』 卷59 「地理志 2」 東寧路，本高句麗平壤城，亦曰長安城。漢滅朝鮮，置樂浪玄菟郡，此樂浪地也。晉義熙後，其王高麗始居平壤城。唐征高麗，拔平壤，其國東徙，在鴨綠水之東南千餘里，非平壤之舊。

9) 『史記三家註』 卷6 「秦始皇本紀」 朝鮮 『括地志』云 “高麗治平壤城，本漢樂浪郡王險城，即古朝鮮也。”

10) 『史記三家註』 卷25 「律書」 ‘朝鮮’ 『正義』 高麗平壤城本漢樂浪郡王險城，即古朝鮮地，時朝鮮王滿據之也。

11) 『通典』 卷186 「邊防 2 東夷下」 ‘高句麗’ 自東晉以後，其王所居平壤城，即漢樂浪郡王險城。

12) 『舊唐書』 卷199上 「東夷列傳」 ‘高麗’ 高麗者，… 其國都於平壤城，即漢樂浪郡之故地；『新唐書』 卷220 「東夷列傳」 ‘高麗’ 平壤城，亦謂長安城，漢樂浪郡也

시 현 북한 평양을 가리킨다고 볼 근거는 명확치 않다. 이후 평양이 옛 한나라 낙랑군 땅이며 낙랑군 조선현이자 위만조선의 수도 왕험성이라는 중국학자들의 인식은 송대를 거쳐 명·청대 학자들의 문헌 고증을 통해 계속 이어졌다.

중국 문헌의 왕험성재평양설이 북한 평양이 곧 고조선 왕험성이라는 설로 이어진 것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근거한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동천왕 21년조에는 “평양은 본래 선인 왕검이 살던 곳”¹³⁾이라는 주가 달려 있다. 『삼국유사』 ‘고조선’조에도 『고기(古記)』를 인용하여 “단군이 평양성에 도읍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했다”라고 했는데, “평양성은 지금 서경(西京)”이라는 주가 달려 있어 고조선 평양이 고려 중기 때 평양, 즉 지금 북한 평양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되었다.¹⁴⁾

조선시대에 들어와 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상고사에 대한 관심과 역사지리 연구가 실학의 주요한 새 연구 분야로 부상함에 따라 왕험성 위치는 치열한 논쟁거리로 등장했다. 한백겸은 『동국지리지(東國地理志)』에서 위만조선과 전한(前漢)의 경계인 패수(溍水)를 청천강으로, 왕험성에 인접한 열수(洌水)를 한강으로 비정하고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고 했다.¹⁵⁾ 안정복은 낙랑군이 조선현에 설치되었으며, 조선현은 평양부(平壤府)라고 했다.¹⁶⁾ 단군조선의 실재를 인정하지 않은 정약용은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에서 기자조선 강역이 평양을 중심으로 요서인 영평부(永平府)에 미쳤으나 전국시대 말 연(燕)나라에 2000리를 빼앗겨 압록강 서북 지역까지 잃고 한나라가 건국한 이후에도 압록강이 국경인 패수가 되었다고 했다. 위만의 도읍도 기자조선을 이어 평양이었으며 평양이 후에 낙랑군 조선현이라고 하여 왕험이 한나라 요동군 험독(險瀆)에 있었다는 험독설을 반박했다.¹⁷⁾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1909년 세키노 타다시(關野貞)가 평양 석암동 고분을 발굴한 이후 연이어 고분과 토성들이 발굴되면서 일본 관변 학자들은 평양이 낙랑군 중심지이자 위만조선의 수도 왕험성이라고 결론지었다.¹⁸⁾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도 낙랑군 수성현을 황해도 수안(遂安)에 비정함으로써 왕험성을 평양으로 확정하는 데 큰 몫을 했

13) 『三國史記』 卷17 「高句麗本紀」 ‘東川王 21年’조 平壤者本仙人王儉之宅也.

14) 『三國遺事』 卷1 「紀異1」 ‘古朝鮮’以唐高卽位五十年庚寅[今西京] 都平壤城 始稱朝鮮.

15) 송호정, “실학자들의 역사지리관과 고조선 한사군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제62권(2011), pp. 31-32.

16) 안정복, 『동사강목』 제1상 ‘계유년 마한,’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17) 정약용 지음, 이민수 옮김, 『아방강역고』 (서울: 범우사, 2004), pp. 21-24, 435-437; 리지린, 『고조선연구』 (서울: 열사람, 1989), p. 22; 한영우, 『역사학의 역사』 (서울: 지식산업사, 2003), p. 208.

18) 송재원, “낙랑군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7), pp. 18-19.

다.19) 특히 1913년 이마니시 류(今西龍)는 용강(龍岡)에서 발굴했다는 점제현신사비와 낙랑 봉니를 평양 일대가 낙랑군이라는 주장의 결정적 증거로 내세웠다.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는 정약용의 설을 받아들여 패수를 압록강, 열수를 대동강에 비정하고 평양이 왕험성이라는 견해에 동조했다.20)

광복 후 북한학계에서도 평양설과 요동설이 치열하게 논의되었다.21) 한국 사학계에서는 다수 학자가 한나라 요동군을 요하 이동으로 보고, 패수를 청천강22) 또는 압록강23)으로 비정한 견해가 제기되었으나 위만조선의 수도 왕험성은 대체로 평양으로 보는 학설을 답습하고 있다.

2) 요동설

요동설은 조선시대부터 평양설과 대립되는 학설로, 위만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고조선의 수도 왕험성이 요하 이동, 즉 요동에 있었다는 견해이다. 왕험성 위치는 낙랑군 위치와 직결되는데, 조선 초 대표적 역사학자인 권람은 『응제시주(應製詩註)』에서 낙랑과 기자의 건국지가 평양이 아닌 압록강 이북이라고 보아 고조선 중심지를 요동으로 파악했다.24) 요동설은 왜란과 호란을 겪은 17세기 이후 붐을 이뤄 학자들의 역사지리 연구로 이어졌다.25) 17세기 초 이수광은 『지봉유설(芝峰類說)』에서 고조선이 한반도 북부와 요동에 걸쳐 있었고 기자조선 중심지역이 요서에 있었다고 했다. 유형원도 『동국여지(東國輿地誌)』에서 고구려와 고조선 중심지역을 요동으로 비정했고, 홍여하는 『동국통감제강(東國通鑑提綱)』에서 진번(眞番)을 지금 요령성 요양(遼陽)에, 패수를 요하에 비정하고 위만의 도읍 험독(險瀆)이 요동에 있다고 보았으나 낙랑군은 통설대로 평양에 비정했다.26) 18세기에 들어와 신경준은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여지고(輿地

19) 稻葉岩吉, “秦長城東端及王險城考,” 『史學雜誌』 21-2(1910).

20) 白鳥庫吉·箭內互, “武帝始建之四郡,” 『滿洲歷史地理』 第1卷, 김지영·위가야 역, “武帝 始建의 4郡,” 『만주연구』, 제12집, pp. 310-318, 327-331.

21) 송재원 (2007), p. 20.

22) 이병도, 『韓國古代史研究』 (서울: 박영사, 1992), p. 71

23) 노태돈, “古朝鮮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韓國史論』, 제23집(1990), p. 29.

24) 서영수, “古朝鮮의 위치와 강역,” 『韓國史市民講座 2』 (서울: 일조각, 1998), p. 28.

25) 한영우 (2003), pp. 161-201; 서영수(1998), p. 29.

26) 조법중, “고조선의 영역과 그 변천,” 『한국사론 34-한국사의 전개과정과 영토』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2002), p. 7.

考)」에서 기자의 봉지가 고죽국이므로 고조선 서계도 고죽국이 위치한 요서에 미쳤다고 주장했다.²⁷⁾ 이익은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전한과 고조선의 국경 패수를 압록강으로 추정했는데, 단군조선의 중심지를 요심(遼瀋)으로 보고 한사군 중심지도 중국 땅에서 찾았다.²⁸⁾

조선 후기 학자들의 견해도 왕험성 및 낙랑군 위치를 대체로 평양과 요동으로 보는 시각으로 양분되어 평양설이 정약용과 안정복 등의 견해로 이어졌다면 요동설은 이익, 박지원, 이규경 등의 견해로 이어졌다. 20세기에 들어와 요동설은 신채호, 정인보 등에 계승되었는데, 이들에게는 위만조선의 도읍 왕험성이 함독현 경내에 있었다는 인식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중국 사서에 왕험성이 전한(前漢) 요동군 함독현에 있었다는 인식은 왕험성이 한나라 낙랑군 옛 땅 평양에 있었다는 인식보다 먼저 나타난다. 함독설은 후한 때 응소가 “요동군 함독현이 조선 왕 만(滿)의 도읍”이라고 한 말과 동진(東晉) 때 서광이 “함독현이 창려(昌黎)에 있다”고 한 말로 요약되며,²⁹⁾ 응소와 서광의 주석은 5세기 전반에 찬술된 『사기집해(史記集解)』와 8세기 전반에 찬술된 『사기색은(史記索隱)』에 인용되어 있다.

1920년대 요동설을 부활시킨 학자는 신채호이다. 신채호는 함독설에 기초하여 『조선상고사』에서 패수, 만변한, 왕험성 등 위만조선의 근거지는 해성(海城)·개평(蓋平) 등지이며,³⁰⁾ 도읍 왕험성은 지금 개평 동북쪽이자 『한서』 「지리지」에서 말한 요동군 함독현이라고 했다.³¹⁾ 정인보는 기준(箕準)과 위만이 도읍한 곳이 모두 왕험성이며, 왕험성은 『한서』 「지리지」에 보이는 요동군 함독이라고 했다. 또 신찬(臣瓚)의 주석³²⁾을 함독이 낙랑 패수 동쪽에 있다고 해석하여 함독은 지금 요령성 해성(海城), 패수는 해성 현 서남쪽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어니하(淤泥河)의 옛 이름이라고 했다.³³⁾ 신채호와 정인보는 요동이 고래로 요하 동쪽이라고 보았다.³⁴⁾

27) 『東國文獻備考』 卷13 「輿地考1 歷代國界」 ‘箕子朝鮮國’ … 唐書裴矩曰 高麗本孤竹國 周以封箕子爲朝鮮 … 孤竹之地當爲朝鮮之有故唐書直以爲箕子封於此而其實孤竹之入於朝鮮蓋在

28) 李漢, 『星湖僿說』 제1권 天地門 檀箕疆域,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29) 『漢書』 卷28下 「地理志 下」 ‘遼東郡 險瀆’ 應劭曰 朝鮮王滿都也; 『史記三家註』 卷115 「朝鮮列傳」 ‘王險’ 『集解』 徐廣曰 昌黎有險瀆縣也; 『索隱』 徐廣曰 昌黎有險瀆縣.

30) 신채호 저, 박기봉 역, 『조선상고사』 (서울: 비봉출판사, 2011), p. 156, 192.

31) 신채호, 『조선상고사 1』 (서울: 일신서적공사, 1990), p. 94.

32) 신찬(臣瓚)은 왕험성이 낙랑군 패수(溟水) 동쪽에 있다고 했다.(『漢書』 卷28下 「地理志 下」 ‘遼東郡 險瀆’ 臣瓚曰 王險城在樂浪郡溟水之東; 『史記三家註』 卷115 「朝鮮列傳」 『索隱』 臣瓚云 王險城在樂浪郡溟水之東也. 『正義』 臣瓚曰 王險在樂浪郡也.)

33) 정인보 지음, 문성재 역주, 『조선사연구 上』 (서울: 우리역사연구재단, 2012), pp. 82-183, 275.

34) 윤내현, “朝·燕戰爭의 전개와 국경 변화,” 『고조선단군학』, 제20호(2009), p. 254.

북한학자 리지린은 신채호와 정인보의 견해를 계승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리지린의 견해는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³⁵⁾ 먼저 “낙랑은 군(郡)이며 옛 조선국으로, 요동에 있었다”³⁶⁾는 이현(李賢)의 주석과 『산해경(山海經)』 기록에 근거하여 고조선이 한반도가 아니라 발해 북안에 위치했음을 논증했다. 『산해경』 「해내경」에는 조선이 동해 안 북해 모퉁이에 있다고 했는데,³⁷⁾ 고대 중국 사서에서 동해는 황해, 북해는 발해를 말하며 발해는 황해의 내해이므로 고조선이 발해 북안에 있었다는 논지가 성립하는 것이다. 또 곽박(郭璞 276-324)이 『방언(方言)』과 『후한서(後漢書)』 「군국지」를 주석한 내용을 토대로 위만조선 침공 때 한나라 수군이 상륙한 열구(洌口)는 열수(洌水) 하구이고 열수는 요동에 있는 강임을 밝혀 대동강이나 청천강이 될 수 없다고 했다.³⁸⁾ 고조선 서쪽 국경에 관해서는 전국시대 말까지 고조선이 난하(灤河) 서안까지 세력을 미쳤으나 기원전 3세기경 연의 침략으로 서쪽 영토 2000리(혹은 1000리)를 잃었다가 전한 초 대릉하 유역까지 회복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한무제 이전 고조선과 전한의 국경인 패수를 대릉하(大凌河)라고 보고 열수를 요하, 왕험성을 지나는 패수를 어니하, 왕험성을 지금 개평으로 비정했다.³⁹⁾

요동설에서 왕험성으로 비정된 개평은 현재 영구 일대인데, 영구는 명말청초까지 요하 하구 외곽의 모래섬이었다가 요하 하구의 진흙과 모래 퇴적이 증가하면서 1820~1830년대에 육지와 맞붙게 되었으며 요하 하구가 영구를 지나 발해 쪽으로 이동했다⁴⁰⁾고 한다. 또한 10세기 이전 요동만의 고해안선(古海岸線)은 지금보다 훨씬 북쪽으로 올라가 대릉하 하구와 해성 인근 태자하 중류를 포함하여 요하 유역이 모두 늪지대였다는 연구가 있는데, 늪지대는 배로 접근하기 어려워 상륙작전을 펼치기 불리하므로 요동설은 좀 더 상세한 지리 고증이 필요하다.

3) 요서설

35) 리지린 (1989), pp. 11-96.

36) 『後漢書』 卷1下 「光武帝紀 第1下」 (六年 六月) 樂浪人王調據郡不服의 樂浪에 이현(李賢 654-684)은 “樂浪, 郡, 故朝鮮國也, 在遼東”이라고 주석했다.

37) 『山海經』 第18 「海內經」 東海之內, 北海之隅, 有國名曰朝鮮.

38) 『方言』 卷1 ‘朝鮮洌水之間’ 郭璞注 朝鮮, 今樂浪郡是也. 洌水, 在遼東; 『後漢書』 第23 「郡國志5」 ‘樂浪郡 列口’ 郭璞注 『山海經』 曰列, 水名. 列水在遼東.

39) 리지린 (1989), pp. 88-89.

40) 류제현, 『중국 역사 지리』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0), pp. 92-94.

요서설은 윤내현의 설로, 위만조선이 현 하북성 난하 유역에 있었으며, 왕험성은 현 하북성 난하 하류 창려 인근이었다는 견해이다. 윤내현은 치밀한 문헌 고증을 통해 위만조선이 현 하북성 난하 유역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기』 「조선열전」에 따르면 전국시대 연나라가 진번과 조선을 빼앗아 그 땅에 장새(障塞)를 설치했고 진나라는 이 땅을 요동군 외곽에 부설한 요(徼) 관할로 했다. 『위략』에 따르면 이 땅이 연나라 장군 진개가 침략한 2000리 땅이며 연·진과 고조선의 국경이 만번한이고,⁴¹⁾ 한 고조 때 만번한까지 너무 멀고 지키기 어려워 국경을 서쪽으로 옮겨 요동군 옛 요새가 있는 패수(泮水)로 했다.⁴²⁾ 그 후 기원전 194년 한나라에서 고조선으로 망명해 온 위만이 조선을 차지했고 진번도 위만에게 복속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진 요동외요에 속했던 조선과 진번 땅은 위만 이전에 다시 고조선 영토가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³⁾ 즉, 진 요동외요에 속했던 조선과 진번 땅이 한나라가 포기한 패수 이동부터 만번한까지의 땅이다.

『사기』 「강후주발세가」에는 기원전 194년 한 고조 때 주발(周勃)이 반란을 일으킨 노관(盧縮)을 장성까지 추격하고 돌아오는 길에 반란에 휩쓸린 군현을 평정했는데 이때 요동군도 포함되었다.⁴⁴⁾ 즉, 한 요동군은 장성 밖이 아니라 장성 안에 설치되어 있었고 요동군 동쪽 경계는 국경인 패수였다. 한고조 때 장성 동단은 진장성 동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진장성 동단 기점은 낙랑군 수성현 갈석산이며,⁴⁵⁾ 이 갈석산은 지금 하북성 창려 난하 하류 동안에 있다.⁴⁶⁾ 장성 동단이 있는 곳이 전한과 고조선의 국경이므로 당시 두 나라 국경을 흐른 강, 즉 패수는 난하이며 한나라 요동군은 난하 유역이었다.

위만조선의 도읍은 중국 사서에 왕험과 험독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으며, 험독설도 한나라 요동군 험독설과 동진의 창려군 험독설로 나뉜다. 윤내현은 창려의 지리 연혁을 추적하여 전한 때 요서군 교려현이 후한 때는 요동속국⁴⁷⁾ 창려현으로 이름을 바꾸었고⁴⁸⁾

41) 『三國志』 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韓’ 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取地二千餘里，至滿番汗爲界。

42) 사마천 저, 정병진 외 옮김, 『史記 列傳 下』 (서울: 까치, 1995), p. 907.

43) 윤내현 (2009).

44) 『史記』 卷57 「絳侯周勃世家」 燕王盧縮反，勃以相國代樊噲將，擊下薊，得縮大將抵·丞相偃·守陘·太尉弱·御史大夫施，屠渾都。破縮軍上蘭，復擊破縮軍泅陽。追至長城，定上谷十二郡，右北平十六郡，遼西·遼東二十九郡，漁陽二十二郡。

45) 『通典』 卷第186 「邊防2 東夷下」 ‘高句麗’ 碣石山在漢樂浪郡遼成縣，長城起於此山

46) 高洪章·董寶瑞, “碣石考” 『歷史地理』 第3輯(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3), pp. 225-228; 윤내현, 『韓國古代史新論』 (서울: 일지사, 1986), pp. 355-364.

47) 요동속국(遼東屬國)은 후한 안제(安帝 r.106-125) 때 요서군 빈도(賓徒), 교려(交黎), 도하(徒河)와 요동군 무려(無慮), 험독, 방(房) 등 6현을 떼어 만들었다.

48) 『漢書』 卷28下 「地理志 下」 ‘遼西郡 交黎’ 應劭曰 “今昌黎”; 윤내현, 『고조선연구』 (서울: 일지사, 1994), p.

후한 말 조위(曹魏) 때 창령군이 설치되어 동진 때에는 험독현이 창령군 경내에 합쳐졌음을 설득력 있게 고증했다. 전한 때 요동군은 오늘날 갈석산 서쪽 난하 하류 동쪽에 있었고, 험독은 요동군 서쪽 변경 즉 난하 하류 동안(東岸)에 위치해 교려(창려)와 인접해 있다가 창려에 합해졌으므로 전한 때 요동군 험독과 동진 때 창령군 험독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별개 지역이거나 지명이 옮겨 간 것이 아닌 인접 지역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윤내현은 이 험독은 위만의 도읍이 아니라고 했다. 우선 요동군은 한나라 행정 구역이므로 위만이 한나라 영토에 도읍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⁴⁹⁾ 위만은 기자의 후손인 기준(箕準)의 도읍을 빼앗아 정권을 세웠는데, 같은 시기에 존재한 요동군 험독과 기준의 도읍이 같은 곳일 수 없으며, 위만조선이 멸망한 뒤 그 땅에 낙랑군을 설치했으므로 위만의 도읍은 요동군이 아니라 낙랑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신찬과 안사고가 말한 “낙랑군 패수 동쪽 왕험성”이 위만조선의 도읍이라고 했다. 또한 낙랑군 왕험성에 대해서 『한서』 「지리지」 낙랑군 조선현조에 “조선현은 주 무왕이 기자를 봉한 땅”⁵⁰⁾이라고 한 응소의 주석과 『진서(晉書)』 「지리지」 낙랑군 조선현조에 “주나라가 기자를 봉한 땅”⁵¹⁾이라는 주석에 주목하여 조선현이 기자 일족이 망명하여 터전을 이룬 곳이자 기준의 도읍이며 위만이 빼앗아 도읍한 왕험성임을 고증하고⁵²⁾ 왕험성이 위치한 낙랑군 조선현은 현 난하 하류 갈석산 이동에 있었다고 결론지었다.⁵³⁾

요서설에서도 요동설과 마찬가지로 고조선 서변이 난하 유역에 이르렀고 진개의 침공으로 2000리를 빼앗겼으나 요동설과는 달리 연나라에 잃었던 서변 영토를 모두 되찾아 한나라 초 서쪽 국경도 난하와 갈석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한나라 초기부터 위만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고조선과 전한의 국경인 패수를 난하로 보고, 요수와 왕험성 인근의 열수도 난하 지류로 보았다. 왕험성의 위치가 난하 하류이며 따라서 낙랑군도 요서에 설치되었다는 학설은 문헌 고증을 통한 논리적 설득력이 강하나 아직까지 이 지역에서 낙랑군 존재를 증명해 줄 뚜렷한 문자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는 점이 약점이다.

340.

49) 한진서, 정약용, 노태돈 등도 동일한 이유로 험독이 왕험성이 아니라고 했다.

50) 『漢書』 卷28下 「地理志 下」 朝鮮, 應劭曰 “武王封箕子於朝鮮.”

51) 『晉書』 卷14 「地理志 上」 ‘平州 樂浪郡’ 朝鮮, 周封箕子地.

52) 윤내현은 험독을 고조선 도읍 중 한 곳으로 보고 낙랑군 왕험성을 기자정권과 위만정권의 도읍으로 보았다. 서영수도 위만조선을 고조선과 구별하여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영수, “고조선의 발전과정과 강역의 변동,” 『白山學報』 제76호(2006), p. 448.

53) 윤내현 (1994), pp. 336-347.

4) 왕험성재평양설의 논리적 문제점

고대 중국의 하천 지리서인 『수경』에 패수는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⁵⁴⁾고 명기되어 있다. 그렇다면 왕험성재평양설에서 패수로 제시된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은 서남쪽으로 흐르므로 논리적으로 패수가 될 수 없다. 위만은 패수를 건너 도읍했으므로 대동강패수설을 따르면 왕험성 위치는 대동강 동안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 평양은 대동강 서안에 있으므로 대동강패수설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⁵⁵⁾ 더욱이 3세기에 발간된 『위략』에 따르면 패수 동쪽에 전국 시대 연(燕)이 고조선으로부터 빼앗았다가 전한 초에 포기한 2000리 영토가 있어야 하는데, 대동강 동쪽에는 이만한 규모의 땅이 없다. 한나라(전한) 외교사절로서 위만조선에 간 섭하가 국경인 패수를 건너 달려 들어간 한나라 요동새(塞)는 패수와 가까운 곳으로 묘사되어 있다. 장수절은 『사기정의』에서 이 요동새를 평주(平州) 유림관(楡林關)이라고 했다.⁵⁶⁾ 유림관은 지금 하북성 산해관 인근이고 패수는 유림관 즉, 산해관 근처를 흐른 강이어야 하므로⁵⁷⁾ 패수는 논리적으로 대동강이 될 수 없다.

『사기』 「조선열전」에 한나라 육군과 수군의 합류 지점으로 기록된 열구 위치도 평양과 맞지 않는다. 열구는 열수(洌水)가 바다와 만나는 열수 하구를 말한다. 서진 말 동진 초 사람 곽박이 『산해경』과 『방언』, 『후한서』 「군국지」에 남긴 주석을 보면 고조선 옛 땅, 낙랑군과 대방군, 열수, 열구는 모두 요동에 있었다.⁵⁸⁾ 이 시기 요동은 당시 요수가 어느 강이었는가에 따라 그 위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지만 고대로 중국 사서에서 한반도를 요동에 포함시켜 말하지는 않으므로 대동강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즉, 한나라 수군이 상륙한 열구는 애초에 한반도 대동강 하구에 없었다는 말이 된다. 후대로 내려올수록 중국의 영토가 동쪽으로 팽창되면서 “먼 동쪽 변경”을 의미하는

54) 『水經注』 卷14 「涇水」 涇水出樂浪鏤方縣, 東南過臨涇縣, 東入于海.

55) 이와 관련된 논리적 모순은 정약용 지음, 이민수 옮김(2004), pp. 436-437에서 보인다.

56) 『史記三家註』 卷115 「朝鮮列傳」 ‘卽渡, 馳入塞’ 『正義』 入平州楡林關也.

57) 정인보 지음, 문성재 역주 (2012), p. 359.

58) 『山海經』 第12 「海內北經」 朝鮮, 在列陽東. 郭璞注 朝鮮, 今樂浪縣, 箕子所封也. 列亦水名也, 今在帶方. 帶方有列口縣; 『資治通鑑』 卷第21 「漢紀13」 世宗孝武皇帝下之上 元封二年 ‘列口’ 班『志』, 列口縣屬樂浪郡. 郭璞曰 『山海經』, 列水在遼東. 余謂其地當列水入海之口.

요동의 위치도 계속 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낙랑군과 왕험성, 평양의 위치도 점점 더 동쪽으로 비정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제강점기 때 한국사의 식민지성을 강변하는 과정에서 봄을 이룬 낙랑군재평양설 연구가 지금까지 무비판적으로 답습되면서 왕험성과 낙랑군, 고조선 평양, 고구려 평양을 현 평양에 비정하는 견해가 다수 학설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사기』에는 왕험성 공격부대인 한나라 수군이 해상에서 대기하다 강 입구인 열구에서 육군과 합류하라는 작전계획이 기록되어 있다. 군사작전 상 육군과 수군의 합류 지점이 강 입구인 것은 왕험성이 바다로 통하는 강 하구에서 매우 가까웠기 때문일 것이다. 왕험성이 평양이라면 한나라 육군은 굳이 대동강 하구 남포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강을 따라 평양으로 먼 길을 올라가야 하는데, 이보다는 곧바로 평양으로 진격하여 평양 인근에서 수군과 합류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준이 위만에게 왕험성을 빼앗겼을 때 수천 명을 데리고 곧바로 바다로 탈출할 수 있었던 것도 왕험성이 바다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이다.

왕험성에 설치했다고 하는 낙랑군의 위치도 왕험성 위치를 파악하는 단서가 된다. 중국 당나라 때 사료 『통전』에 인용된 『태강지리지』에 낙랑군 수성현에 진장성(秦長城) 기점인 갈석산이 있다고 한 이후 갈석산은 패수와 함께 한나라와 위만조선의 경계로 인식되어 왔다. 문헌에 갈석산은 바다에 닿아 있는 산으로 많이 나타나지만,⁵⁹⁾ 왕험성재평양설에서 낙랑군 수성현으로 비정한 황해도 수안은 내륙에 있어 바다와 아무 상관이 없다. 7세기 말 이현은 “낙랑은 군(郡)이며 옛 조선국으로, 요동에 있었다”라고 하여 당나라 중기에도 고조선과 낙랑이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 요동에 있었다고 인식했음을 보여준다.⁶⁰⁾ 후대로 내려와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에는 영평부(永平府)는 동쪽으로 산해관까지 180리이며 남쪽으로 160리를 가면 바닷가에 이르는데, 이 땅은 상(商)나라 때 고죽국이며 북연(北燕)이 평주와 낙랑군을 설치했다가 북위 때 낙랑군을 북평군으로 고쳤다고 했다.⁶¹⁾ 명나라 때 산해관은 현 산해관이며, 고죽이 하북성 난하 유역에 있었다는 학계 다수 의견에 따르면 북연 시기, 즉 고구려 장수왕 때 낙랑군은 평양이 아니라

59) 207년 조조(曹操)가 오환(烏丸)을 토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갈석산에 올라 지은 ‘관창해(觀滄海)’ 첫머리에도 “동쪽으로 갈석에 이르러 창해를 바라본다”라는 구절이 있다. 「觀滄海」東臨碣石，以觀滄海。水何澹澹，山島竦峙。樹木叢生，百草豐茂。秋風蕭瑟，洪波湧起。日月之行，若出其中。星漢燦爛，若出其裏。幸甚至哉，歌以詠志。

60) 『後漢書』卷1下「光武帝紀第1下」(六年 六月)樂浪人王調據郡不服의 樂浪에 이현(李賢 654-684)은 “樂浪, 郡, 故朝鮮國也, 在遼東”이라고 주석했다.

61) (明) 李賢 等 撰, 『大明一統志 上』(西安: 三秦出版社, 1990), p. 94.

현 난하 유역에 있었던 것이다.

송나라 사람 서공이 쓴 『고려도경』에는 고구려가 당나라 이전부터 평양(平壤)을 근거로 했고 평양은 한무제가 설치한 낙랑군이며 당나라 말기 점점 동쪽으로 옮겨가 당시 고려 왕성(王城)은 옛 평양이 아니라고 했다.⁶²⁾ 이와 같이 평양의 위치를 한반도 평양으로 고정하여 비정하는 것은 한중 사서의 공식 기록과도 상충된다.⁶³⁾

패수가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어느 강이든 강 동안부터 낙랑군이 설치된 평양 일대는 전국시대부터 전한 초까지 연·조·제 지역 유민이 대거 이주하여 뿌리를 내린 곳인데도 무덤에서 주목할 만한 중국 문화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현상은 귀장(歸葬) 및 파견된 한족 관리들이 임기를 마치면 귀향하는 관례에 따라 파견지에 무덤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으나,⁶⁴⁾ 낙랑군이 설치된 지역은 전국시대 말부터 중국 본토인들의 대규모 이주가 지속된 지역이고, 위만도 이주한 중국인을 기반으로 정권을 세웠으므로 적어도 위만조선 시기에는 연·진·한 문화가 이미 지배층 문화로 자리 잡았어야 한다. 즉, 이 시기 지배층의 무덤 유적에 한문화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낙랑군재평양설의 치명적인 결함이다.⁶⁵⁾

위만조선은 전한과 흉노, 삼한 사이에서 중계무역 중심지로서 부를 축적하고 그 재력을 바탕으로 영토를 크게 확장했으며 수도 왕험성은 험요한 지형에 의지하여 전한이 1년 동안 함락하지 못할 만큼 견고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왕험성은 지형적으로 방어에 유리하고 강과 해안을 낀 교통의 요지이자 큰 국제무역도시였을 것이다. 그러나 일제 관변학자들이 낙랑군 치소이자 왕험성으로 비정한 낙랑토성은 국제무역 중심지로 보기에 규모가 작고 전혀 험요하지 않은 평탄하게 트인 곳에 위치하는데다 방어용 시설도 너무 허술하다. 또한 위만이 패수를 건너 처음 정착한 곳은 비어 있던 옛 진나라 상하장 땅으로 『위략』에 따르면 기준이 서변 땅 100리를 위만에게 봉지로 주었다고 했다. 패수를 대동강으로 비정하는 논리는 왕험성이 강에서 동쪽으로 100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기록과 상충되어 사서 기록과 부합하지 않는다.

62) 『宣和奉使高麗圖經』 卷第3 「國城」 高麗, 自唐以前, 蓋居平壤, 本漢武帝所置樂浪郡, 而唐高宗所建都護府也. 以唐志考之, 平壤城乃在鴨綠水東南. 唐末, 高麗君長徵累世兵革之難, 稍徙而東. 今王城在鴨綠水之東南千餘里, 非平壤之舊矣. 『고려도경』에서는 고려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인식하여 고구려를 ‘고려’로 칭했다.

63) 고구려 도읍 천도 문제는 복기대, “고구려 도읍지 천도에 대한 재검토,” 『단군학연구』 제22호(2010) 참조.

64) 오영찬, 『낙랑군 연구』 (서울: 사계절, 2006), p. 85.

65) 고고학적으로도 왕험성재평양설은 증거력이 빈약하다. 일본 관학자들이 평양을 낙랑군 중심지로 확정하는 데 증거로 채택한 점계현신사비(용강석비)와 낙랑 봉니, 효문묘 동종에 관해서는 일찍이 정인보와 윤내현이 반박 논리를 제시했다.

3. 『사기』 「조선열전」에 나타난 한나라 육군 공격 루트 분석

한국 사학계 다수는 일제 관변학자들의 왕험성평양설을 답습하고 있지만, 『사기』 「조선열전」에 기록된 한나라군의 군사작전과 전쟁경과를 작전계획의 합리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과연 현 평양이 합동군사작전 성격상 왕험성 위치로 정합성이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사기』에 기록된 전한과 위만조선의 전쟁 관련 기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⁶⁶⁾

위만은 번속국(藩屬國)을 자칭하여 한나라 동북 국경을 지키는 조건으로 한나라로부터 병기와 재물을 지원받아 인근 진번과 임둔 지역 소국들을 병합함으로써 영토가 사방 수 천 리에 이르렀다. 한문제(文帝 기원전 180-157년 재위) 초에 진무(陳武) 등이 조선은 진나라 때부터 신하의 나라로 복속했는데 이제 험준한 지세를 믿고 병력을 정비하여 중국을 엿보고 있으니 토벌해야 한다고 했지만 내치에 주력하고자 한 문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⁶⁷⁾ 위만의 손자 우거(右渠)가 한나라에 더 이상 번신의 예를 지키지 않고 진번 주변 소국들과 한나라의 통교를 봉쇄하자 한문제는 죄인들을 모아 조선 공격을 명령했다. 기원전 109년 가을, 누선장군(樓船將軍) 양복(楊僕)이 이끄는 수군 7000명이 제(齊)로부터 발해(渤海)를 건너고, 좌장군(左將軍) 순채(荀彘)는 연(燕)과 대(代)에서 모집한 육군 5만 명을 이끌고 요동에서 출격했다.⁶⁸⁾ 위만조선군은 험준한 지세를 이용한 방어전략을 펼쳐 대항했다.⁶⁹⁾ 한나라 육군은 패수 서쪽 상류를 지키던 위만조선군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수군과 합류하기로 한 열구로 제때에 진격하지 못했다.⁷⁰⁾ 먼저 열구에

66) 사마천 저, 정법진 외 옮김 (1995), pp. 907-912.

67) 『史記』 卷25 「律書」 歷至孝文即位, 將軍陳武等議曰 “南越·朝鮮自全秦時內屬爲臣子, 後且擁兵阻阨, 選懦觀望. … 征討逆黨, 以一封疆.”

68) 『史記』 卷115 「朝鮮列傳」 元封二年 … 天子募罪人擊朝鮮. 其秋, 遣樓船將軍楊僕從齊浮渤海, 兵五萬人, 左將軍荀彘出遼東, 討右渠, 左將軍素侍中, 幸, 將燕代卒, 悍, 乘勝, 軍多驕.

69) 『史記』 卷115 「朝鮮列傳」 右渠發兵距險.

70) 『史記』 卷115 「朝鮮列傳」 左將軍擊朝鮮沮水西軍, 未能破自前.

상륙한 한나라 수군은 육군을 기다려 합류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왕험성을 공격했다가 위만조선군에 전력이 노출되어 선제공격을 받고 산으로 패퇴했다.⁷¹⁾ 작전 성공이 불투명해지자 한무제는 위산(衛山)을 사자로 보내 우거를 군사적 위세로 압박하여 강화를 유도했으나 쌍방간의 의심으로 강화는 결렬되었다. 강화 결렬 후 순체 군대는 패수 서안에 서 조선군을 격파하고 곧바로 왕험성으로 진군하여 성 서북쪽을 포위했고, 군사를 수습한 누선군도 합세하여 성 남쪽에 주둔했다. 그러나 위만조선군은 곧바로 수성전에 돌입하여 여러 달이 지나도 왕험성은 함락되지 않았다.⁷²⁾ 왕험성을 포위하고도 순체와 양복의 의견이 엇갈려 좀처럼 왕험성을 점령하지 못하자 한무제는 제남(濟南)⁷³⁾ 태수 공손수를 보내 전황에 따라 일을 처리하도록 했다. 공손수는 누선장군 양복을 체포하고 누선군 지휘권을 좌장군 순체에게 넘겨 군사지휘권을 일원화했다.⁷⁴⁾ 순체는 즉각 조선을 공격했고, 다음해인 기원전 108년 여름 위만조선의 대신 니계 상(尼谿相) 참(參)이 사람을 시켜 조선왕 우거를 죽이고 항복했으나 우거의 대신 성이(成巳)가 저항을 계속함으로써 왕험성은 함락되지 않았다. 순체는 우거의 아들 장항(長降)과 상(相) 노인(路人)의 아들 최(最)를 사주하여 성이를 죽이게 했다. 이로써 마침내 위만조선은 멸망하고 사군(四郡)이 설치되었다.⁷⁵⁾ 좌장군 순체는 군사계획을 어긋나게 한 죄로 기시(棄市)를 당했고, 누선장군은 열구에 이른 후에 육군 좌장군을 기다려야 했으나 단독으로 공격한 죄를 추궁 당했다.

『사기』, 『한서』, 『자치통감』 등에 따르면 한나라 육군은 연(燕)과 대(代)에서 모집된 죄수 부대로, 이 연·대 지역 군사가 ‘요동(遼東) 군사’들로 표현되었다. 대는 지금 하북성 장가구 울현·회래일대이고 연은 지금 역수 유역과 북경 일대를 포함하는 지역이다. 당시 한나라 국경지대인 요동은 하북성 서부 지역을 지칭함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군사 모집과 군대 이동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군사 모집지인 연·대 지역은 군대 출발지인 요동 내부이거나 가까워야 한다. 또한 한나라 수군이 산동성 북단 동래(東萊)⁷⁶⁾

71) 『史記』 卷115 「朝鮮列傳」 樓船將軍將齊兵七千人先至王險。右渠城守，窺知樓船軍少，即出城擊樓船，樓船軍敗散走。將軍楊僕失其衆，遁山中十餘日，稍求取散卒，復聚；樓船將軍亦坐兵至洌口，當待左將軍，擅先縱，失亡多…。

72) 『史記』 卷115 「朝鮮列傳」 左將軍破溟水上軍，乃前，至城下，圍其西北。樓船亦往會，居城南。右渠遂堅守城，數月未能下。

73) 『한서』 「지리지」에 제남은 청주(靑州)에 속했고 산동반도에 위치했다. 제남태수가 파견된 것은 전쟁 지역인 왕험성이 산동반도에서 비교적 가깝게 위치했음을 시사한다.

74) 『史記』 卷115 「朝鮮列傳」 天子曰… 今兩將圍城，又乖異，以故久不決。使濟南太守公孫遂往(征)[正]之，有便宜得以從事。… 遂亦以爲然，而以節召樓船將軍入左將軍營計事，即命左將軍麾下執捕樓船將軍，並其軍…。

75) 『史記』 卷115 「朝鮮列傳」 左將軍已並兩軍，即急擊朝鮮。元封三年夏，尼谿相參乃使人殺朝鮮王右渠來降。王險城未下，故右渠之大臣成巳又反，復攻吏。左將軍使右渠子長降·相路人之子最告諭其民，誅成巳，以故遂定朝鮮，為四郡。

에서 출정한 것은 당시 요동반도가 한나라 요동군 관할이라는 사학계 다수 의견과는 달리 요동반도가 한나라 세력권이 아니라 위만조선 혹은 또 다른 비우호적 세력의 수중에 있었음을 알려준다. 만일 요동반도가 우호세력권이었다면 한나라 수군은 요동반도 남단인 여순이나 대련 또는 압록강 입구인 단동에서 발진했을 것이다. 수군은 매우 가변적인 해양환경을 극복해야 하므로 최단거리를 기동 루트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항구로 쓰이는 진황도를 수군의 발진기지로 하지 않은 것 역시 이곳이 위만조선의 세력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한나라 육군과 수군이 모두 한반도에서는 원거리인 하북성이나 산둥성 북단에서 출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나라 육군이 원정을 출발한 지역은 현 중국 하북성 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북경에 집결한 한나라 육군이 한반도 평양까지 행군하려면 군대가 하북성을 동북쪽으로 가로질러 조백하, 난하를 건너고 산해관을 빠져나와 발해 북안에 면한 좁은 요서주랑을 통과해야 한다. 이어서 대릉하, 요하, 혼하, 태자하를 건너고, 천산산맥(千山山脈)을 넘어 압록강, 청천강을 건너 대동강 연안에 다다라야 한다. 실제로는 험준한 천산산맥을 넘기 어려워 현 요령성 요양(랴오양)을 거쳐 요동반도 서해안을 따라 대련으로 남하한 후 요동반도 동쪽 해안을 따라 한반도 신의주로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림 1>처럼 한나라 육군의 기동로는 매우 긴 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76) 동래(東萊)는 내주(萊州)라고도 하며, 현 봉래시 서남쪽 내주만에 위치한다. 『신당서』 권38 「지리지2」 ‘하남도 등주’조에 “등주(登州)는 여의(如意) 원년(692년) 내주(萊州)의 모평(牟平), 황(黃), 문등(文登) 세 현을 분리하여 설치했으며, 신룡(神龍) 3년(707)에 황현의 이름을 봉래(蓬萊)로 바꾸고 치소를 봉래로 옮겼다”고 했다. 동래는 등주를 설치하기 전까지 산둥반도의 출항 기점이었다.



<그림 1> 평양에서 한나라 육군 진격로와 수군 진격로(화살표 점선). 육군 진격로는 대략 북경으로부터 요양에 도착한 후 천산산맥을 넘기 어려우므로 요양에서 요동반도 서해안을 따라 남하하여 여순, 대련을 지나 요동반도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신의주를 통해 평양으로 내려왔을 것으로 추정된 경로이다. 수군 진격로는 해류 요소를 감안, 노철산항로를 이용하여 산둥반도 북단 동래에서 묘도군도를 따라 북상한 후 서북한 연안을 따라 남하하여 남포에서 대동강으로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 경로이다.

훗날 고수전쟁과 고당전쟁에 동원된 병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5만 명의 훈련 받지 못한 군대가 이렇게 긴 중심을 돌파하여 한반도 평양까지 기동했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수송 장비와 도로가 훨씬 잘 정비된 700년 후 수양제가 고구려를 침략할 때에도 전투병만 100만 이상이었고 후방보급을 맡은 지원 병력을 합해 200만이 넘게 동원되었다는 기록이 있다.⁷⁷⁾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겨우 5만 명 규모의 육군이 수많은 도하작전을 거쳐 그토록 긴 중심을 돌파하려 했다면 그 수의 반은 도하장비 관리병, 말과 식량을 수송하는 군수지원 병력이었을 것이고 실제 가용 전투력은 2만~3만 명 남짓으로 현대 편제로는 일개 사단 전후 규모였을 것이다. 당시 위만조선은 한무제가 흉노와 동맹을 우려할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신흥강국으로 중국 사서에 묘사되어 있다. 『사기』 「조선열전」에는 위만조선의 태자가 한나라에 항복하기 위해 무장한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국경인 패수를 건너려 하자 초기 전투에서 이미 많은 군사를 잃은 한나라 군부에서 위협을 느껴 무장해제를 요구하다 협상이 결렬되는 장면이 있다.⁷⁸⁾ 이때 위만조선 태자가 인솔한 병력 1만 명은 적어도 도성 수비대와 왕궁 경비를 포함한 위만조선 전체 병력수의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위만조선의 수도가 한반도 평양에 있었다면 한나라는 적은 병력으로 장거리 군수지

77) 김부식 저, 이강래 옮김, 『삼국사기』 (서울: 한길사, 1998), p. 402.

78) 사마천 저, 정법진 외 옮김 (1995), p. 909.

원의 애로점과 반복되는 하천과 산악지역 장애물을 극복하고 깊은 종심을 돌파하는 매우 무리한 작전을 구사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사기』 「조선열전」에 원봉 2년인 기원전 109년 가을부터 기원전 108년 여름 왕험성이 함락될 때까지 해를 넘기는 농성전을 벌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왕험성이 한반도 평양이라면 하북성에서부터 한반도 평양까지 긴 병참선을 따라 1년 동안이나 군수지원을 해야 한다. 하지만 보급 차단작전이 사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의문이며 평양의 겨울 혹한기 환경에서 원정군이 야외에서 주둔했다는 것은 더욱 믿기 어렵다. 원정작전 지원능력이 발전한 700년 후에도 수양제와 당태종 모두 고구려 원정 때 해를 넘겨 동계 혹한기 주둔작전을 시행한 사례가 없는 점은 왕험성 평양 비정설의 비현실성을 보여준다. 그보다는 북경에서 가까운 하북성 난하 인근으로 왕험성을 비정하면 보급 활동이 국경에서 수시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크다.

또한 『사기』에 위만조선군이 패수 서쪽에 진을 쳐서 한나라 육군과 위만조선 육군이 패수 상류에서 교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수심이 얇은 상류에서 충돌했다는 것은 한나라 군대가 애초에 수많은 강을 도하할 장비와 계획이 없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큰 강을 8개나 건너야 하는 한반도 평양이 공격 목표였다는 기존 주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도하장비 없이 요하나 압록강 등을 도하하지 않고 매번 상류로 우회하려면 기동로가 수 배 이상 늘어나므로 그 길이가 북경에서 하얼빈까지 거리 이상 길어질 수도 있다. 왕험성을 한반도 평양으로 비정하면 육군 기동 루트 상 심각한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만약 왕험성이 요동의 해성이나 개평에 있었다면 <그림 2>처럼 수군(해병대)이 산동성 북단 동래에서 배를 타고 묘도군도를 따라 요동반도에 상륙하거나 요하를 거슬러 올라가 해성 또는 개평에 상륙한다는 것은 일견 효율적인 군사작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육군이 요하까지의 건너와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여러 번에 걸친 도하작전 능력 소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림 2> 요동성에서 한나라 육군 진격로와 수군 진격로(화살표 점선). 수군이 산둥반도 북단 동래에서 요도군도를 따라가다 요동반도 여순에 상륙하지 않고 요동반도 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곧바로 요하 하구 영구에 상륙했다고 추정된 진격로이다.

『사기』, 『한서』, 『자치통감』 등 사서에 따르면 한나라 육군이 현 중국 하북성 내로 비정되는 “요동”을 출발하여 건넌 강은 국경인 패수 하나뿐이고, 수군은 발해를 건너 곧바로 왕험성 인근인 열구에 상륙했다. 이는 한나라가 수군과 육군 모두 최단거리로 신속히 이동하면서 수군의 양동 기만으로 위만조선군 주력을 수군 기동에 고착시키고 전략적 중심을 곧바로 점령하는 군사작전을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만을 고려하면 한나라 요동은 하북성 동북단과 멀지 않고 도강을 여러 번 하지 않는 지역이어야 하므로 <그림 3>과 같은 요서설이 비교적 설득력이 크다.



<그림 3> 요서실에서 한나라 육군 진격로와 수군 진격로(화살표 점선). 수군이 동래에서 내주만과 발해만을 거쳐 천진을 지나 현 진항도시에 상륙했다고 추정한 진격로이다. 발해는 8월까지 남동풍이 불다가 겨울로 접어드는 10월 말 북서풍으로 바뀔 때까지 바람이 잦아들고 발해만 연안류도 잠잠해지므로 한나라 수군이 산둥반도를 출발한 가을에는 바람, 해류, 조류의 큰 방해 없이 연안항로를 항해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는 위만조선을 침략하기 전인 기원전 112년 반란을 일으킨 남월을 평정할 때도 육군과 수군이 합동군사작전을 펼쳐 남월의 도읍 반우(番禺)를 공격했다.⁷⁹⁾ 이때에도 한 무제는 죄수들로 구성된 육군과 강회(江淮) 이남의 10만 수군 동원령을 내렸는데, 작전에 참여한 수군이 수만 명이었다. 죄수들로 이루어진 육군은 행로가 멀어 합류 날짜보다 늦게 도착했고 병력 손실도 커서 남은 병력이 1000여 명뿐이었지만 수군과 합류하여 예정대로 성채를 불태우고 반우를 함락하는 데 성공했다. 남월 평정에 주 전투병력을 수군으로 편성한 것은 강회 지역이 수운이 발달하여 군대를 배로 이동시키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때에도 누선장군은 양복이었다. 따라서 위만조선 침략에 운용된 수륙 합동군사작전은 이미 실전 경험을 거쳐 성공적인 작전으로 평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위만조선 공격에서 주 전투병력이 육군으로 편성된 것은 지리적으로 육군 작전이 더 유리한 전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경험 많은 수군 사령관을 소규모 육전대(陸戰隊) 지휘관으로 임명한 것은 위만조선 원정의 주공이 육군이고 따라서 적의 전략적 중심이 북경에서 멀지 않은 하북성 동단 인근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사기』에 따르면 위만조선 왕 우거는 패수 전투 직후 태자를 보내 강화를 청했다. 한국 학계의 다수 학설대로 패수를 청천강으로 비정한다면 적군이 청천강까지 이르도록

79) 사마천 저, 정범진 외 옮김 (1995), pp. 896-897.

방어에 유리한 난하, 대능하, 요하, 압록강 등 주요 강의 방어거점들을 무주공산으로 방치했다는 논리적 모순에 빠진다. 반면 패수를 난하 등으로 비정하면 우거의 행동이 합리적으로 설명된다. 난하 인근에 있던 위만조선의 전략적 중심이 위기에 빠지자 우거가 타협적인 태도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무제는 우거가 흉노와 균형동맹(balancing)을 맺어 한나라에 대항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사기』에는 한무제가 군사적 압박과 위협으로 한나라에 편승(bandwagon)하기를 위만조선에 종용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결국 우거정권 내부의 이반세력이 한나라에 편승하는 것으로 전쟁이 종결된 것이다.⁸⁰⁾ 동시에 한나라와 첨예하게 대치 중인 흉노가 위만조선과 한나라의 전쟁으로 한나라 전투력이 고갈되길 바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후방을 걱정해야 하는 한무제가 한반도까지 무리한 장거리 원정계획을 구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⁸¹⁾

4. 한나라 수군의 상륙작전 고찰

『사기』에는 누선장군이 열구에 도착한 뒤 작전계획대로 좌장군 순체의 육군을 기다려 동시 공격을 해야 했으나 독단적으로 먼저 상륙하여 병력 손실을 입고 작전계획을 어긋나게 했다고 질책 받는 내용이 나온다. “마땅히 기다림(當待)”을 어기고 “멋대로 먼저 상륙한 것(擅先縱)”을 질책하는 명시적 문구를 보면 한나라는 육군과 수군의 합동 동시공격을 계획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군사학적 관점에서 왕험성재평양설이 가지는 첫번째 취약점으로 합동작전의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합동작전은 적의 주의를 병력을 분산시키고 일방에서 전선이 형성된 가운데 적의 측면이나 후방 기습을 통해 전투력 균형을 일거에 뒤바꾸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원정군 전투서열로 미루어 보면 육군이

80) 균형동맹과 편승에 대한 대표적 연구는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Kenneth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79); Randall L. Schweller,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No. 19 (Summer 1994).

81) 가상적에 대한 피 흘리게 하기(bloodletting) 개념에 대한 상술 연구는 John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Norton, 2001) 참고.

주공을 담당하고 병력이 적은 수군은 적의 병력을 분산시키거나 기습을 담당하는 상륙 돌격군 개념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수군은 육군이 패수를 건너 왕험성에 도달할 때까지 주의를 끌기 위한 양동작전(陽動作戰) 임무를 겸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한나라가 계획한 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합동성(jointness)과 동시성(synchronization)이 중요했을 것이다. 육군과 수군의 긴밀한 협조체계와 함께 위만조선의 수도인 왕험성을 동시에 공략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한나라 군사작전은 성공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다.



<그림 4> 한나라 육군 출발지인 북경에서 평양 사이에 위치한 주요 하천. 북경 동쪽으로부터 평양까지 조백하, 난하, 대릉하, 요하, 혼하,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이 차례로 위치한다. 한나라 육군이 평양에 도달하려면 이 강들을 건너야 한다. 붉은 선 안에 표시한 진황도와 영구, 평양은 각각 요서성, 오동성, 평양성에서 주장하는 왕험성 위치이자 한나라 수군 상륙지점이다.

그러나 평양설에 따르면 한나라 육군은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북성 북서부로부터 조백하, 난하, 대릉하, 요하, 혼하, 태자하, 압록강, 청천강 등 상당수 도하작전을 감행하고 긴 종심을 돌파하여 시간에 맞춰 해상에서 대기 중인 수군과 평양에서 조우해야만 한다. 비교적 소규모 병력인 5만 명이 적의 저항을 분쇄하거나 회피하며 신속하게 한반도 평양까지 기동하여 수군과의 합동작전을 벌이기에는 너무도 긴 진격 루트를 계획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작전을 수행할 경우 클라우제비츠가 설파한 전쟁안개(fog of war)나 마찰(friction)과 같은 전쟁의 불확실성과 우연성에 영향 받을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여 작전

의 전반적 통제는 더욱 어려워진다.⁸²⁾ 여기에 고대 통신체계의 한계까지 고려한다면 육군 기동로가 길어질수록 육군과 수군 간에 합동성과 동시성을 달성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며 이는 원정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합동작전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전술적 문제가 있다. 주공인 육군의 진공이 순조롭지 않아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군은 바다에서 일정 기간 대기해야 한다. 이는 위만조선에 발각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고, 수비군에 해안방어를 강화할 빌미를 제공해 조공인 수군이 기습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된다.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며 상륙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전투력 손실에 상당한 차이가 나며 원정작전의 성패로 직결된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갈리폴리(Gallipoli) 원정 실패 원인으로 협조체제의 결여, 장비 문제, 지휘관의 통제력 부재와 함께 터키군의 강력한 저항이 지적된 바 있다.⁸³⁾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을 경우 병력의 우위나 화력지원으로 이를 타개해야 한다. 과거 16세기 스페인의 무적함대(armada)가 영국에 상륙을 계획했을 당시 스페인은 세계 최강의 육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상륙군 규모 역시 영국에 대해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스페인은 영국 침공 계획에서 영국군의 저항을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만조선과 한나라 전쟁의 경우 한나라 수군이 비교적 소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강력한 적의 저항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육군과의 합동작전 외에는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현대 상륙작전에 필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화력지원을 통해 이러한 제약을 어느 정도 상쇄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는 있다.⁸⁴⁾ 현대전에서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고대 상륙작전에서도 화력지원이 동원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로마의 영국 원정이 그 사례이다. 기원전 55년 줄리어스 시저가 이끄는 로마군은 영국 원정을 감행하여 도버(Dover) 근처 해안에 상륙했으나 수비군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 이에 대응해 로마군은 함대를 해안에 근접시켜 함선에 비치된 투석기로 해안 수비군을 공격했

82) 클라우제비츠는 fog of war나 friction의 개념을 들어 전쟁이 불확실성과 우연성에 지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통해 전쟁에 임한다 하더라도 결국 불확실성과 우연성은 제거되지 않는다. 제반 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전쟁의 향방은 불확실성과 우연성에 더 좌우될 수밖에 없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조. Carl von Clausewitz, translated by Michael Eliot Howard and Peter Paret, *On Wa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83) 이내주, “처칠, 키치너, 그리고 해밀턴의 삼중주 -1915년 영국군 갈리폴리 원정 실패 책임을 중심으로-,” 『영국 연구』, 제20집(2008), p. 252.

84) US Joint Chiefs of Staff, *Amphibious Operation*, Joint Publication 3-02 (18 July 2014), pp. I-2, V-6-V-18, http://www.dtic.mil/doctrine/new_pubs/jp3_02.pdf (검색일:2014. 10. 17).

다.⁸⁵⁾ 한나라 수군 역시 비슷한 형태의 화력지원을 이용할 수 있겠으나 뒤에 논의할 대동강 하구의 환경적 특성상 함대를 해안에 근접시키기가 힘들어 화력지원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다.

보통 고대에는 압도적 전력 차이나 원활한 화력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비우호 지역이나 적이 장악하고 있는 거점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항이 약한 지역이나 우호 및 중립 지역에 상륙한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 기원전 415년에서 413년 사이에 진행된 시실리(Sicily) 원정에서 아테네는 적대 지역인 시라큐스(Syracus)에 직접 상륙하는 대신 우호 지역인 카타니아(Catania)에 상륙해 전열을 정비한 후 시라큐스 외각에 상륙하여 원정을 감행했다.⁸⁶⁾ 고려 태조 왕건이 바다를 통해 후백제의 거점인 나주를 공략했을 때에도 지역 토호세력인 장화왕후 오씨 집안의 지원을 받아 원정을 성공할 수 있었다.⁸⁷⁾ 『사기』에 따르면 한나라 수군이 상륙을 완료한 시점에 우거는 성안에서 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⁸⁸⁾ 이 정도 거리라면 상륙지점은 매우 비우호적인 지역이었다는 뜻이고 실제 상륙군은 우거군에 의해 패배하고 인근 산으로 도망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적의 중심에 수군 상륙을 진행한 한나라 작전은 저항 문제를 보완할 대비책이 있음을 의미하며 원정작전의 전반적 흐름에서 추론하면 육군과의 합동작전을 통한 양면 공격이어야만 했다. 그러나 평양에 왕험성이 위치해 있었다면 이러한 합동작전은 매우 무리하고 비합리적인 작전이었던 것이다.

두번째 왕험성재평양설이 가지는 취약점으로서 상륙적합성의 문제이다. 우선 상륙전 발전사를 살펴보면 군마 수송용 선박이나 18세기 스웨덴의 군도함대(Archipelago Fleet)와 같은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세기에 들어서야 상륙전에 특화된 함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⁸⁹⁾ 또한 16세기에 가서야 백병전과 상륙작전을 담당하는 해병대라는 특수목적군이 나타났다. 특화된 기술이나 훈련은 상륙작전에 중요한 요소인데,⁹⁰⁾ 한나라가 위만조선을 공략할 당시에는 상륙을 위한 특화 장비나 훈련이 체계적이지 않았을 것

85) Ian Speller and Christopher Tuck, *Amphibious Warfare: Strategy and Tactics* (Staplehurst: Spellmount, 2001), p. 9.

86) Richard Natkiel and Antony Preston (eds.), *Atlas of Maritime History* (London: Bison Books, 1986), pp. 13-14.

87) 김명진, “太祖王建의 나주 공략과 압해도 능창 제압,” 『도서문화』, 제32집(2008), pp. 277-300.

88) 왕험성 안에 있던 우거가 “樓船軍少”라고 판단했다는 『사기』 기록은 수군 병력규모 정보가 없었는데 상륙한 한나라 병력이 의외로 적었다는 문맥이다.

89) Brain Friend and Robert Gardiner, “Amphibious Warfare Vessels,” Robert Gardiner (ed.), *The Eclipse of the Big Gun: The Warship 1906-45* (London: Conway Maritime Press, 1992), p. 140.

90) Geoffrey Till, *Seapower: A Guid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Abingdon: Routledge, 2009), p. 192-194.

이며, 해병대라는 특수목적군이 존재하지 않고 수군이 상륙군의 역할을 겸했을 것이다. 결국 상륙지역 선택에 많은 제약이 따라 현대보다 자연환경에 더욱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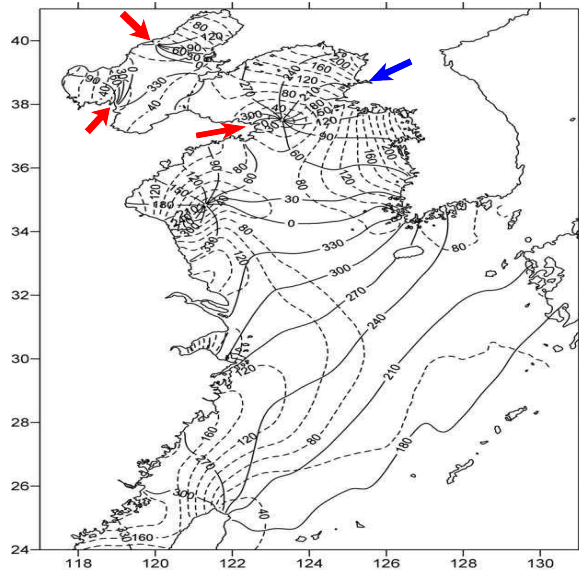
우선 상륙지점이 평양 대동강 상류인지 바다와 접한 하구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대동강은 1871년 신미양요 때 미군함 제너럴 셔먼호도 경험한 바와 같이 강폭이 좁고 수심이 얕아 거슬러 올라가며 함대가 공격하기 매우 불리하다.⁹¹⁾ 『사기』의 앞뒤 해당 기록을 종합해 보면 강을 길게 거슬러 올라 간 것이 아니고 작전명령대로 바다에서 기다리다 바로 해안에 상륙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한나라 수군은 바닷가나 강 하구에 상륙한 것으로 보고 그 상륙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⁹²⁾

대동강 하구가 위치한 인근 한반도 서북 해안은 상륙작전에 매우 불리한 환경이다. 서해안은 조수간만 차가 크고 간조 때 넓은 갯벌이 형성되며 조류 유속이 빠르다. 또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해안 지형이 복잡하여 물길과 지리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접근이 어렵다. 이러한 조건은 상륙 지점 선택을 어렵게 하며 상륙 시점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 군선이 좌초될 위험이 크고 상륙군이 신속하게 이동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대동강 하구는 조류 유속이 2.5~4.8노트로 산동반도 해안과 발해 연안은 물론 서해 평균보다도 훨씬 빠른 지역이어서 대규모 함대가 상륙하기에 매우 어려운 지역이다.⁹³⁾ <그림 5>는 발해와 황해, 동중국해의 등조시도이며 선들이 방사상으로 모여드는 중심점은 조차가 없는 곳이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즉 선이 길게 연결될수록 조수간만의 차이 즉 조차가 커지는 양상을 나타낸다. 등조시도는 산동반도 연태, 황하 하구, 진황도, 요동만 양안이 대동강 하구보다 조차가 훨씬 적고 그만큼 상륙 여건도 훨씬 좋음을 보여준다.

91) 윤명철, 『고구려 해양사 연구』 (서울: 세계절출판사, 2004), p. 71.

92) 한나라 누선군이 대동강 하구에 상륙했고 우거는 성안에서 상륙 직후의 적을 관찰할 수 있었다는 두가지 해석을 종합하면 왕험성이 내륙의 평양에 있었다는 주장은 심각한 논리적 모순에 직면한다.

93) 정진술, 『한국해양사』 (서울: 경인문화사, 2009), p. 17.



<그림 5> 한국 서해안과 발해 연안 등조시도⁹⁴⁾

한나라 수군의 상륙작전은 전술적 문제로서 용병술의 금기사항인 축차투입(peacemeal attack)의 문제에 직면했을 것이다. 수군 전체가 동시에 상륙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봉이 해안에 상륙해 교두보를 확보하고 후속군을 기다려야 한다. 만약 후속군 상륙이 늦어지거나 육군과의 합동작전이 어긋날 경우 전력 집중이 어려워지는 축차투입이 이루어지게 되고, 수도를 방어하는 위만조선군의 대규모 반격에 부딪쳐 한나라 수군은 해안에 전투력을 축적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조수간만 시점을 잘 파악해야 하는 서해안의 특성상 유사시 상륙철수(amphibious withdrawal)⁹⁵⁾도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갯벌이 광활한 대동강 하구의 경우 단순히 교두보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선봉군과 축차투입되는 후속군이 전멸 위험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평양과 환경이 비슷한 인천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한나라 수군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국전쟁 초반 전쟁 양상을 일거에 전환시킨 인천상륙작전(Operation Chromite)을 입안할 당시 인천의 상륙적합성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 중 가장 우려된 점은 환경적 제약이었다. 조수간만 차가 커서 갯벌이 넓게 형성되는 문제와 함께 상륙정(LCVP: Landing Craft Vehicle and Personnel)이 빠른 유속에 밀

94) Guohong Fang, Yonggang Wang, Zexun Wei, Byung Ho Choi, Xinyi Wang, and Ji Wang, "Empirical cotidal charts of the Bohai, Yellow, and East China Seas from 10 years of TOPEX/Poseidon altimetry,"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Vol. 109 (2004), C11006(1-13).

95) 일반적으로 상륙작전은 상륙공격(amphibious assault), 상륙기습(amphibious raid), 상륙철수(amphibious withdrawal), 상륙기만 및 시위(amphibious feints and demonstrats)라는 4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Till (2009), p. 189.

려난다는 점, 수로가 협소하여 기동이 어렵다는 점, 상륙에 적합한 해안이 없다는 점 등이 인천상륙의 제약요인으로 거론되었다.⁹⁶⁾ 상륙전 장비, 해병대, 훈련 등이 충족된 현 대전에서도 서해안의 환경 요인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는 점을 고려할 때 2000년 전 한나라 수군이 상륙이 곤란한 해안에 상륙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할 때, 향도관(嚮導官)을 대동하여 환경적 제약을 감수하고 작전을 감행할 수 있겠지만, 과연 기원전 109년이라는 고대에 대동강 하구 상륙에 성공하였을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나당연합수군이 금강 하구에 상륙할 때도 갯벌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는 기록이 있다.⁹⁷⁾

세번째 문제점으로서 한나라 수군 자체와 육군을 위한 군수지원 문제도 상륙 지점이 한반도가 아니라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원정시 육군은 장거리 군수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나폴레옹의 원정작전처럼 현지 징발(혹은 약탈)을 통해 군수지원의 상당 부분을 유지할 수도 있으나 한나라 원정의 경우 나폴레옹 시대와 정치적, 문화적, 자연적 환경이 크게 다르다. 한나라 원정은 긴 중심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나폴레옹의 모스크바 원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모스크바 원정은 현지 조달을 계획했다가 차질을 빚어 원정에 실패했다. 육군 진격에 차질이 생길 경우 수군은 해상에서 상당 기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수군이 해상에서 대기하면서 육군과 합동작전을 계획한다는 것은 군수지원의 원칙⁹⁸⁾상 맞지 않는다. 해병대는 발진 후 가장 빠른 시간에 함안돌격 혹은 상륙을 해야 하므로 육군이 먼 길을 돌아오는 시간 동안 상륙군이 바다에 떠서 대기한다는 것은 군수지원 절약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다. 한나라 육군은 수많은 강과 산을 넘을 동안 적의 저항에 부딪쳐 행군이 지체되거나 전투력이 소모될 가능성도 컸을 것이다. 그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륙함대가 한반도를 향해 육군과 같은 시기에 원정에 나섰다면 매우 비상식적인 합동작전을 계획했다는 뜻이 된다.

더욱이 한나라 수군이 산동반도에서 황해를 가로질러 평양에 상륙했다면 중국 사서

96) Kwang-soo An, "The Maritime Power Projection Capabilities in Northeast Asi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ull: University of Hull, 2005), pp. 119-120; Speller and Tuck(2001), p. 36.

97) 『三國史記』 卷42 「列傳」 第2 '金庾信 中' 將軍蘇定方金仁問等沿海入依伐浦海岸泥濘陷不可行乃布柳席以出師唐羅合擊百濟滅之; 김부식 저, 고전연구실 옮김, 『新編 三國史記 下』 (서울: 신서원, 2000), p.319.

98) 한국과 미국은 유사한 전쟁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원칙은 목표(Objective), 공세(Offensive), 집중(Mass), 절약(Economy of force), 기동(Maneuver), 지휘 통일(Unity of command), 경계(Security), 기습(Surprise), 간명(Simplicity), 사기 유지(Maintenance of Morale) 등이다. 한국의 합동작전교범은 목표, 공세, 기동, 기습, 집중과 절약, 지휘통일, 보안, 간명 등 8개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 영국 등 모든 나라의 전쟁원칙에서 절약은 공통되는 전쟁지휘 원칙이다.

의 기술 관행상 발해를 건넜다고 하지 않고 동해(東海)를 건넜다고 표현했을 것이다. 특히 한나라 수군의 발진기지가 산둥반도 북안 동래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래는 위치상 발해만 연안도시 혹은 산둥반도와 요동반도를 잇는 묘도군도를 따라 요동반도 남부를 공략하기에 유리한 공격발진기지이다. 한중 사서에는 당고종 때 소정방 함대가 한반도를 향해 발진할 때는 산둥반도 동쪽 끝에 있는 성산(城山)에서 출발했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⁹⁹⁾ 수륙양용작전을 해야 하는 해병대는 지상작전을 위한 장비와 병력을 포함, 양상에서 식량보급을 유지하기 위해 기동로를 최단거리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나라가 한반도 평양으로 수군을 발진시키려 했다면 동래보다는 한반도에 훨씬 가까운 산둥반도 동단에서 집결하여 발진했을 것이다. 또한 한나라 수군의 누선(樓船)은 배 갑판 가운데 3층의 공격용 다락방을 높게 설계하여 마치 누각과 같이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¹⁰⁰⁾ 이러한 형태의 배는 강이나 연안에서의 병력수송이나 전투에 적합하고 원양항해에는 부적합하여 도양(渡洋) 능력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점도 상륙지점을 한반도 평양으로 보기 어렵게 한다.

당시 앞선 원정 경험으로 노련한 한나라 군 수뇌부가 여러 군사작전상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나라 사신 섭하가 전쟁 직전에 왕험성에 다녀간 사실 역시 작전정보 부족 문제는 없었을 것임을 시사한다. 더욱이 『사기』 기록에 도하 소요, 상륙 환경, 장거리 병참선 등 예기치 않은 애로 상황에 조우했다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상기 검토한 군사작전 문제를 기반으로 왕험성 위치를 추론해 보면 왕험성은 현재 평양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위만조선의 수도는 한나라 입장에서 소규모 병력으로 기동성 있는 합동작전과 상륙작전을 펼치기 용이한 지역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왕험성은 현 한반도 평양보다는 한나라 육군 병력 상당수의 출신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고 상륙작전을 펼치기에 거리상으로도 환경적으로 적합한 하북성 북동부 해안이나 요령성 해안 지대에 있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추론할 수 있다.

99) 『三國史記』 卷28 「百濟本紀」 第6 「義慈王」 蘇定方引軍自城山濟海至國西德物島; 김부식 저, 고전연구실 옮김, 『新編 三國史記 上』 (서울: 신서원, 2000), p.590; 『新唐書』 卷220 「東夷列傳」 第145 「百濟」 顯慶五年 … 左衛大將軍蘇定方 … 自城山濟海

100) 『史記』 「平準書」 에는 한무제 2년(기원전 115년)에 남월과 전쟁에 대비하여 높이(약 30m)가 두드러진 누선을 건조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누선이라는 명칭의 이유에 대한 기록은 『史記三家註』 卷113 「南越列傳」 「樓船」 集解應劭曰 大船。船上施樓。故號曰樓船也。 추가 관련 연구는 孫占民. “秦漢樓船考.” 『昆明學院學報』 32집 2호 (2010).

5. 결론

한나라 원정군의 공략목표였던 왕험성이 현 한반도 평양이었는지 여부는 역사가들의 논쟁에 머물지 않는다. 북한 급변사태는 북한 수뇌부의 변고, 쿠데타, 민중 봉기, 내란 등을 포함하는데, 최근 북한 내부 사정을 볼 때 그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면 한미연합군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회수를 위해 개입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군도 군사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심양군구 예하 8개 사단의 규모, 한만 국경 주둔 중국군 병력 규모와 장비는 북한 북부에 중심 50~100km의 완충 점령지역을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한다.¹⁰¹⁾ 중국군의 반복적 도하 훈련과 39기계화집단군의 신속대응능력을 고려할 때 북한급변사태 시 북한 북부 지역에 친중 괴뢰정권 수립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¹⁰²⁾ 민간 연구기관에서도 이미 한반도 유사시 정치군사게임(polmil game)에서 북한급변사태와 중국군 개입을 발생 가능한 상황 변수로 간주하고 있다.

한 국가가 인접국에 개입할 때 국제사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자국민 보호나 고토회복(irredentism)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외교사에 종종 있는 일이다. 19세기 말 일본 정한론자(征韓論者)들은 삼국시대 남한지역이 일본 식민지 또는 제후국이었다는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며 한반도 병탄을 정당화하려 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지중해 연안국을 침공하면서 고대 로마 역사를 내세워 그 정당성을 주장했다. 구 유고 분할 지역에 대한 세르비아계의 과거 연고권 주장은 현대에도 역사적 연고권 주장이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국은 2003년 이후 돌연 동북공정을 통하여 고조선과 고구려를 중국 지방정권으로 규정했다. 나아가 자국 고지도에서 청천강 혹은 평양까지 중국 영토였음을 주지시킴으로써 요동은 원래 중국 땅이라고 주장하며 과거 고구려 침공의 정당성을 주장하려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제국으로 성장하면서 주변국을 복속시키려 할 때 종종 역사수

101) 자유아시아방송, “중국, 북 무너지면 통제력 행사할 것,” Bruce Bennett 박사와의 인터뷰, 2013년 10월 15일.

102) 김종대, “중국인민해방군, 북한급변사태 때 대동강 이북 점령,” 『투코리아』, 2011년 5월 25일.
<http://2korea.hani.co.kr/media/9875> (검색일:2015. 3. 17); James Dobbins, “War with China,” *Survival*, Vol. 54, No. 4 (2012), pp. 9-10; 박휘락, “북한의 ”심각한 불안정“ 사태 시 한국의 적극적 개입,” 『평화연구』, 제19권, 제2호(2010), p. 414.

정주의로 인접국 침공을 합리화한 적이 있다. 중국이 스스로도 인정한 지난 2000년간의 상식을 깨고 고구려사를 갑자기 중국사로 편입시키자 그 무모한 역사수정주의 배경이 북한급변사태 시 개입 명분 축적과 연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중국이 과연 동북공정¹⁰³⁾의 수정주의 역사관을 북한 개입의 명분으로 삼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본고는 왕험성재평양설을 제로베이스에 놓고 위만조선과 한나라의 전쟁에서 한나라 군사작전계획을 합동작전의 합리성이라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왕험성재평양설의 논리성을 군사학을 원용한 융합적인 과점에서 재검토해 보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사기』 「조선열전」에 구체적으로 기술된 한나라 육군과 수군의 작전계획과 실행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결과 공격 목표를 한반도 평양으로 보기에 많은 논리적 모순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¹⁰⁴⁾ 그 핵심적 논거는 첫째, 북경에서부터 한반도 평양까지 육군의 긴 기동로에 놓인 8개 주요 강이라는 자연적 장애물에 비해 육군이 5만 명에 불과한 것과 도하작전과 저항 기록이 패수에서 한 번만 있었다는 모순이다. 나아가 한나라 수륙합동군의 전투서열을 분석할 때 주공 육군에 대한 양동작전의 효과를 겸한 조공 수군이 작전적 동시성을 담보할 수 없는 육군의 원거리 기동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현대에 해상화력지원을 받아도 상륙작전을 감행하기에 어려운 평양 대동강 하구를 고대에 상륙목표로 삼았다는 것은 상륙적합성에 배치되어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이다. 셋째, 기동 공간이 발해라는 『사기』의 명확한 표현, 1년에 가까운 월동 전쟁기간의 문제, 왕험성과 상륙해안 간 거리 등도 왕험성이 한반도 평양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음을 방증한다.

본 연구를 통해 아직 왕험성의 위치에 관한 다른 경합가설들이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군사학과 역사지리학의 학제적 연구를 통해 기존 통설인 평양설의 여러 논리적 결함이

103) ‘동북공정’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의 줄임말이며,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이 요령성·길림성·흑룡강성 등 중국 동북3성의 역사와 그로부터 파생된 현실 문제와 미래 예측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여 2002년 2월 28일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시행한 연구사업이다. 관련 자료는 동북아역사재단, 『동북공정 바로알기: 중국의 역사 만들기 프로젝트』,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7)과 윤휘탁, “동북공정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정세와 정책』, 2006년 10월호 참조. 동북공정은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구의 역사적 상관성을 부정하면서 만주와 한반도까지 연계된 고조선사, 부여사, 고구려사, 발해사를 모두 중국사로 규정함으로써 한국사의 지리적 공간을 축소하고 나아가 논리적으로 한반도 북부에 대한 중국 연고권 주장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104) 『사기』 해석에 기초한 본 연구의 주장에 대해 『사기』의 기록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반론이 있다면 그 반론은 본 논문이 의도했던 한사군재평양설의 논리적 모순은 물론이고 『사기』 근거하여 한사군의 존재를 주장해 온 기존 학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본 논문의 주장의 타당성에는 변함이 없게 된다.

부각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단순히 왕험성재평양설에 대한 경합가설 즉 요동설과 요서설의 논리적 근거를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군사작전의 차원에서 한나라 공격 루트 분석을 통하여 고조선 강역을 비정한 결과 『사기』 기록에 근거해서 북한 지역에 중국의 식민지인 낙랑군이 존재했다는 학설은 그 논리성에 여러 가지 결함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북한 지역이 주(周)나라 입국 초 기자조선 때부터 중국의 봉지였고, 위만조선 멸망 이후 중국 식민지의 문화적 영향권에서 고구려가 건국되었다는 중국의 북한 지역 연고권 주장은 그 근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논리적 추론은 북한급변사태 시 고토 회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중국군이 압록강의 한만국경을 넘어 북한 청천강 이북에 친중정권을 세울 경우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그 정당성을 반박할 수 있는 역사 자료로 기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명진. “太祖王建의 나주 공략과 압해도 능창 제압.” 『도서문화』 제32집 (2008).
- 김부식 저. 고전연구실 옮김, 『新編 三國史記 上, 下』 서울: 신서원, 2000.
- 김부식 저. 이강래 옮김. 『삼국사기』 서울: 한길사, 1998.
- 김부식. 『삼국사기(三國史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DB. <http://db.history.go.kr>.
- 김종대. “중국인민해방군, 북한급변사태 때 대동강 이북 점령.” 『투코리아』 2011년 5월 25일. <http://2korea.hani.co.kr/media/9875>(검색일:2015. 3. 17).
- 노태돈. “古朝鮮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韓國史論』 제23호 (1990).
- 동북아역사재단. 『동북공정 바로알기: 중국의 역사 만들기 프로젝트』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7.
- 류제현. 『중국 역사 지리』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0.
- 리지린. 『고조선연구』 서울: 열사람, 1989.
- 박휘락. “북한의 ”심각한 불안정“ 사태 시 한국의 적극적 개입.” 『평화연구』 제19권, 제2호 (2010).
- 白鳥庫吉·箭内互 저. “武帝始建之四郡.” 『滿洲歷史地理』 第1卷. 김지영·위가야 역, “武帝 始 建의 4郡.” 『만주연구』 제12집 (2011).
- 복기대. “고구려 도읍지 천도에 대한 재검토.” 『단군학연구』 제22호 (2010).
- 사마천 저. 정범진 외 옮김. 『史記 列傳 下』 서울: 까치, 1995.
- 徐兢. 『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 서영수. “고조선의 발전과정과 강역의 변동.” 『白山學報』 제76호 (2006).
- _____. “古朝鮮의 위치와 강역.” 『韓國史市民講座 2』 서울: 일조각, 1988.
- 송재원. “낙랑군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송호정. “실학자들의 역사지리관과 고조선 한사군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제62권 (2011).
- 신경준. 『東國文獻備考』 「輿地考—歷代國界」 (1770),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 신채호 저. 박기봉 역. 『조선상고사』 서울: 비봉출판사, 2011.
- 신채호. 『조선상고사 1』 서울: 일신서적공사, 1990.
- 안정복. 『동사강목(東史綱目)』,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 오영찬. 『낙랑군 연구』 서울: 사계절, 2006.
- 윤내현. 『고조선연구』 서울: 일지사, 1994.
- _____. “朝·燕戰爭의 전개와 국경 변화.” 『고조선단군학』 제20호 (2009).
- _____. 『韓國古代史新論』 서울: 일지사, 1986.
- 윤명철. 『고구려 해양사 연구』 서울: 사계절출판사, 2004.
- 윤희탁. “동북공정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정세와 정책』 2006년 10월호
- 이 익. 『성호사설(星湖僿說)』,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 이내주. “처칠, 키치너, 그리고 해밀턴의 삼중주: 1915년 영국군 갈리폴리 원정 실패 책임을 중심으로.” 『영국연구』 제20호 (2008).
- 이병도. 『韓國古代史研究』 서울: 박영사, 1992.
- 일 연. 『삼국유사(三國遺事)』,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DB. <http://db.history.go.kr>.
- 자유아시아방송. “중국, 북 무너지면 통제력 행사할 것.” Bruce Bennett 박사와의 인터뷰 2013년 10월 15일.
- 정약용 지음. 이민수 옮김. 『아방강역고』 서울: 범우사, 2004.
- 정인보 지음. 문성재 역주. 『조선사연구 上』 서울: 우리역사연구재단, 2012.
- 정진술. 『한국해양사』 서울: 경인문화사, 2009.
- 조법중. “고조선의 영역과 그 변천.” 『한국사론 34—한국사의 전개과정과 영토』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2002.
- 한영우. 『역사학의 역사』 서울: 지식산업사, 2003.
- An, Kwang-soo. “The Maritime Power Projection Capabilities in Northeast Asi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ull: University of Hull, 2005.
- Clauzewitz, Carl von. translated by Michael Eliot Howard and Peter Paret. On Wa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 Dobbins, James, “War with China.” Survival 54-4 (2012).
- Fang, Guohong, Wang, Yonggang, Wei, Zexun, Choi, Byung Ho, Wang, Xinyi and Wang, Ji. “Empirical cotidal charts of the Bohai, Yellow, and East China Seas from 10 years of TOPEX/Poseidon altimetry.”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109 (2004).
- Friend, Brain and Gardiner, Robert. “Amphibious Warfare Vessels.” Robert Gardiner (ed.). The Eclipse of the Big Gun: The Warship 1906-45. London: Conway Maritime Press, 1992.
- Kaufman, Stuart, Little, Richard and Wohlforth, William (eds). The Balance of Power in World Histor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 Mearsheimer, John.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Norton, 2001.
- Natkiel, Richard and Preston, Antony (eds.). Atlas of Maritime History. London: Bison Books, 1986.
- Pan, Boxing and Kim, Tae-hyung. “Balancing or Bandwagoning: Alliance Choices of Baekje and Silla.”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48-6 (2014).
- Schweller, Randall L.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19 (Summer 1994).
- Speller, Ian and Tuck, Christopher. Amphibious Warfare: Strategy and Tactics. Staplehurst: Spellmount, 2001.

- Till, Geoffrey. *Seapower: A Guid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Abingdon: Routledge, 2009.
- US Joint Chiefs of Staff. *Amphibious Operation*, Joint Publication 3-02 (18 July 2014).
www.dtic.mil/doctrine/new_pubs/jp3_02.pdf(검색일: 2014. 10. 17).
- Walt, Stephen M.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 Waltz, Kenneth.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79.
- Yan, Xuetong and Jin, Xu. (eds). *A Selection of Pre-Qin Theories of Interstate Relations*. Shanghai: Fudan University Press, 2008.
- 高洪章·董寶瑞. “碣石考.” 『歷史地理』 第3輯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3.
- 孫占民. “秦漢樓船考.” 『昆明學院學報』 32집 2호 (2010).
- (明) 李賢 等 撰. 『大明一統志 上』 西安: 三秦出版社, 1990.
- 稻葉岩吉. “秦長城東端及王險城考.” 『史學雜誌』 21-2 (1910).
- 『方言』 . 『山海經』 . 『水經注』 . 『史記三家註』 . 『通典』 . 『資治通鑑』 . 維基文庫.
<http://zh.wikisource.org>.
- 『史記』 . 『漢書』 . 『三國志』 . 『後漢書』 . 『晉書』 . 『唐書』 . 『新唐書』 . 『遼史』 . 北京: 中華書局.

<발표 3>

일제강점기
土城里土城(樂浪土城)의
발굴과 출토유물 재검토

정인성 (영남대 문화인류학과)

일제강점기 土城里土城(樂浪土城)의 발굴과 출토유물 재검토

— 봉니와 낙랑예관을 중심으로 —

정인성 (영남대 문화인류학과)

1. 머리말

낙랑군을 포함한 한사군의 위치비정 논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자료 중의 하나가 封泥와 樂浪禮官(富貴)명 와당이다. 이들 자료는 모두 토성리토성 즉 낙랑토성에서 채집되거나 발굴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처음 보고된 이래로 ‘낙랑군 재평양설’, 나아가 낙랑군치와 조선현치의 비정 논란을 정리해 주는 결정적인 고고자료로 취급받아 왔다. 그런데 이들 자료는 대개 채집품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발견 당시부터 진위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1935년에 토성이 발굴되고 봉니와 낙랑예관이 출토되었으나 오히려 정인보는 이들 봉니의 위조설을 주장하였으며 광복 후 토성리토성을 발굴해 본 북한학계도 ‘낙랑군요동설’을 주장하며 공식적으로 정인보의 봉니위조설을 계승하였다. 봉니위조설은 북한학계 뿐만이 아니라 ‘낙랑군평양설’을 부정하는 한국 연구자들, 나아가 일반 대중들의 관심도 높은 형편이다.

그러나 광복 후 한국학계에서 봉니문제를 專論으로 다룬 연구자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학계의 반론(위조설)과 일본연구자들의 재반론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나름의 견해를

낼 수가 없었다. 봉니 유물 자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점이 중요하며, 남북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토성리토성(낙랑토성)을 우리가 재발굴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낙랑 관련 봉니의 眞實問題는 1935년과 1937년에 이루어진 조선고적연구회와 도쿄대학 문학부가 실시한 토성리토성(낙랑토성) 현지 발굴조사를 통해서 적어도 일본학계에서는 그 진위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사라졌다. 토성 내의 발굴 트렌치에서 다수의 봉니가 실제로 출토되었다고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최근 오영찬(오영찬 2015)은 토성리토성에서 출토된 봉니를 진품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 자료로 삼아 국립중앙박물관, 즉 조선총독부박물관에 보관되었던 다량의 봉니자료를 검토하여 그 진위를 분석하였다. 결론은 위조된 봉니도 있지만 대부분 토성리토성에서 출토된 것과 형태와 제작기법이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진품으로 처리하고 학술적 가치를 인정하였다. 오영찬의 이러한 정리는 1930년대에 낙랑봉니 자료를 정리하여 발표한 후지타료사쿠의 인식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결론이다. 한국학계에서 낙랑봉니의 眞實問題를 전론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 있는 논고이다. 다만 토성리토성에서 출토된 봉니를 실제로 관찰하거나 발굴과정과 출토정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린 결론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이 발표에서는 이 문제를 무겁게 여겨 토성리토성 발굴조사에서 출토되었다고 보고된 봉니가 실제로 발굴조사에서 출토되었는지 여부를 발굴보고서 분석, 그리고 당시 조사원들의 원본 기록 류와 도면, 그리고 이를 관찰한 제 3의 연구자들이 기록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일제강점기의 낙랑유적 조사경과와 아울러 살펴서 토성리토성의 발굴진행을 둘러싼 상황을 복원해 내고 封泥가 채집되고 출토된 당시의 분위기를 복원해 보고자 한다.

2. 일제강점기 낙랑유적의 조사 흐름과 봉니의 발견

우선 여기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낙랑관련 유적에 대한 현장조사의 흐름을 살

펴서 토성리토성이 어떠한 맥락에서 발굴되었는지를 가늠해 보고 아울러 봉니가 출현한 시점과 상황을 비교하고자 한다.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조선고적조사는 일반적으로 박물관협의회에 古蹟委員會가 설치되어, 「古蹟 및 遺物保存規則」이 공포된 1916년 이후와 그 이전, 그리고 건축재정 정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조선고적조사 사업이 위축되면서 고적위원이면서 도쿄제국대학 사학과의 교수였던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가 각계로 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설립한 「朝鮮古蹟硏究會」가 조사의 중심이 되는 1931년을 기준으로 분기하여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16년 이전을 고적조사 1기, 1916-1930년까지를 고적조사 2기, 그리고 1931년부터 해방까지의 시기를 고적조사 3기로 구분한다.

1) 낙랑유적 조사 1기



그림 1. 세키노 타다시(關野貞)

낙랑유적이 연구자에 의해 처음 굴착조사된 것은 표에서 보는 것처럼 1909년이다. 당시의 조사는 형식상 한국 정부의 의뢰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 통감부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며 세키노 타다시(關野貞)조사단이 그 중심에 있었다.

1909년에 최초로 굴착된 석암동 고분은 세키노가 평양 지역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현지 거류 일본인의 정보 제공으로 조사하게 된 것이다. 이 때 도굴흔적이 없거나 적은 여러 기의 고분에 여행 중 즉석에서 삽을 넣었지만 매장주체부를 발견한 것은 석암동 고분 정도였다. 당시 세키노는 도쿄제국대학 공학부 건축학연구실 소속이었으며 조사를 보조했던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는 같은 대학 문과대 사학과 출신이었다. 원래 조사를 보조하기로 했던 이미니시 류(今西龍)가 이미 다른 조사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알려진다. 또 한 사람의 보조원인 쿠리아마(栗山)는 세키노가 교원으로 있던 건축학 연구실 출신이며 현장에서 지원나와 굴착조사와 도면작성을 맡은 기수 이마이즈미(今泉)도 같은 건축학연구실 출신이었다.

즉 초기에 낙랑유적을 조사한 「세키노조사단」은 거의 도쿄제국대학 출신으로 구성되며 대부분이 같은 건축학연구실 출신이었다. 여기에 도쿄제국대학 문과대학 사학과 출신 야쓰이를 끼워 조사 대상지역의 역사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들에 의한 초창기의 낙랑 고분 조사를 치밀하게 기획된 발굴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는 전고에서 밝힌 것처럼(정인성 2006) 사실과 다르다. 당시 아직 평양지역에 낙랑고분이 존재한다는 사실마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 고분과 낙랑고분의 구별도 불가능했다. 그 때문에 석암동 전실무덤을 발굴해 놓고도 담당자인 야쓰이와 세키노는 이를 고구려 고분이라 발표했다. 그 결과 낙랑고분설을 주장한 같은 대학 인류학연구실의 도리이류조(鳥居龍藏)와 격렬한 논쟁으로 발전한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정인성 2006).

표 1. 고적조사 1기에 조사된 낙랑유적

調査日時	조사대상	조사자	參考文獻	備考
1909 (明42)	石巖洞古墳	關野, 谷井, 栗山, 今泉	朝鮮總督府, 1915, 『朝鮮古蹟圖譜』一, 東京. 정인성, 2006, 「關野貞의 낙랑유적 조사·연구 재검토」-일제강점기 「古蹟調査」의 기억1-, 『湖南考古學報』24, 湖南考古學會.	1. 동경대학 건축학연구실의 세키노를 중심으로 한 개인조사적 성격이 강함 2. 조사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사진으로만 보고되었으나 정인성이 조사 내용 재검토하여 보고하였음.
	大同江面古墳甲墳	關野, 谷井, 栗山, 今泉	朝鮮總督府, 1915, 『朝鮮古蹟圖譜』一, 東京. 정인성, 2006.	상 동
	大同江面古墳乙墳	萩野, 今西,	朝鮮總督府, 1915, 『朝鮮古蹟圖譜』一, 東京. 今西龍, 1912, 「大同江面南の古墳との關係」, 『東洋學報』2-1, 東京. 정인성, 2006.	1. 하기노는 문과대학 사학과 교원으로 간이조사를 실시함. 2. 을분에서 왕자가 새겨진 칠기가 출토됨. 나중 이마니시가 석암동 고분군을 낙랑고분으로 판단한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음
	大同江面古墳丙墳	關野, 谷井, 栗山, 今泉	朝鮮總督府, 1915, 『朝鮮古蹟圖譜』一, 東京. 今西龍, 1910, 「朝鮮平壤郡大同江面南の古墳」, 『東京人類學會雜誌』25-293, 東京. 정인성, 2006.	

물론 이 시기 낙랑 고분을 조사한 관학자들은 「日本書紀」의 문헌 기사를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고 특히 신공(神功)황후의 신라정벌과 임나일본부를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던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이를 실증하기 위하여 관련 고고자료를 확보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었다. 도쿄제국대학 사학과와 이마니시는 처음 찾은 경주를 가리켜 제국 일본이 회복해야 할 고토라고 하며 성지 예루살렘에 비유하였는데(今西龍 1933), 이는 당시 일본인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한국관이었다. 특히 1909년 석암동 낙랑고분을 조사한 야쓰이는 더욱 노골적으로 일제의 침략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역사상 만들기에 몰두한 인물이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강제병합 이전에 이루어진 거의 모든 낙랑고분은 야쓰이가 포함된 세키노 조사단이 굴착하였지만 도쿄대학 문학부 사학과와 하기노유지(萩野由之)라는 인물도 이마니시 류와 다른 낙랑 전실분을 조사하였다. 하기노는 세키노와 같은 도쿄제국대학의 사과 교원인데, 1909년에 이마니시를 대동하고 낙랑고분을 발굴하였는데 그의 조사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도쿄대학 건축학연구실의 건축기수 이마이즈미는 현지의 조선인 인부를 부려서 분구를 좁고 깊게 굴착하여 매장주체부의 천장 일부를 파괴하고 침투해서 부장품을 물색하였다. 유물 도면도 건축설계도에 능한 건축기수 이마이즈미가 작성했다.

굴착된 석암동 고분을 관찰하고 약측도를 남겼으며 이마이즈미가 그린 실측도면을 접수하며 현장조사를 마무리하였다. 이 때 사진촬영은 이마니시와 졸업동기인 야쓰이세이이쓰가 전담하였다. 1909년과 1910년에는 전실묘만이 조사되었는데 이는 당시 낙랑 목곽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까닭이다. 실제로 1909년에는 봉분의 보존 상태가 좋은 고분을 다수 굴착하였지만 봉토에서 매장주체부가 쉬이 드러나지 않았던 고분은 모두 도중에 조사를 포기하였다(關野 1910).

석암동 전실묘의 귀속문제로 연구자들끼리 대립했지만 석암동 읍분에서 王자명 칠기가 발견되어 낙랑 왕씨들과의 비교가 이루어지고, 한편으로 1911년에 어을동 토성이 발견되고 漢式기와와 토기들이 수집되면서 낙랑고분설은 확실하게 무게를 얻어갔다. 야쓰이가 봉산군에서 장무이묘를 발굴하고 발굴조사를 통해서 명문 벽돌이 확인되면서 평양 주변의 전실묘가 낙랑군 시기의 고분이라는 인식은 굳어진다. 대방군의 위치에 대한 학계의 인식도 바뀌었는데 한강유역설의 입지가 좁아졌다.

그런데 장무이묘는 그가 1909년에 발굴한 석암동 고분과 동일한 형태의 천장형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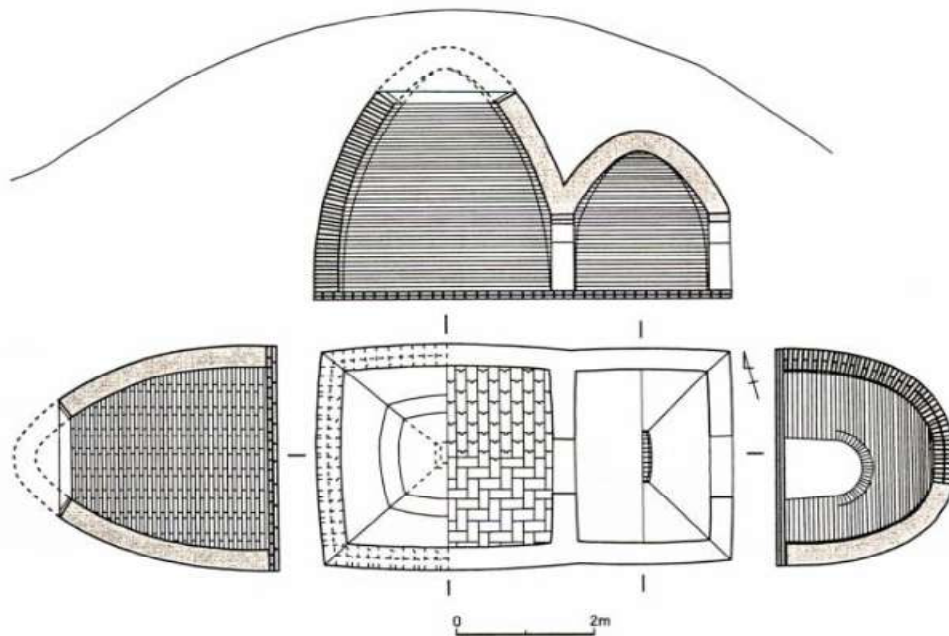


그림 2. 건축기수 이마이즈미가 작성한 석암동 고분 도면
(세키노컬렉션: 동경대학건축학연구실소장)

가진 고분으로 복원되는데, 이는 이후 100년 동안 비판없이 수용되어 왔다. 그러나 발굴 보고서를 재검토한 결과 그 구조가 세키노의 복원과는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궁륭 천장이 아니라 돌천장이었던 것이다. 석개천장의 전실묘는 광복후 북한에서 새로 발견된 자료의 역연대를 참고하건데 4세기대에 만들어진 고구려 고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인성 2010). 우리가 당연한 듯이 수용해 왔던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의 내용과 성과들을 한국고고학의 입장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야리에서 목곽묘가 우연히 발견되어 새로운 고분구조가 드러나고 낙랑군 평양설이 굳어져 가는 상황에서 1913년에 대동강 남안에서 토성리토성 즉 낙랑토성이 발견되었다. 이 때 세키노 조사단은 평양의 동북면에서 漢王墓라 불리던 대형고분에 대한 발굴을 실시하고 있었다. 고분의 이름으로 판단하여 낙랑과 관련된 고분일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지만 조사결과 이는 고구려 고분이었다. 그런데 발굴 도중에 붕괴사고가 일어나자 인부들이 작업을 거부하면서 발굴이 중단되고 말았다. 허는 수 없이 그 틈을 이용하여 대동강 남안을 조사하게 되었고 육군지도에 토성리라고 표시된 지점에서 평지토성을 발견하였다. 이 때 토성 주위에서 소위 한식기와와 문양 벽돌, 그리고 고구려 와당 등을



1



2

그림 3 조사전의 장무이묘(1)와 현실에서 발견된 대형판석(2), 이는 천장석이다.

발견하였는데 야쓰이는 이를 근거로 중요한 군현성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 때 조사를 리드한 것은 야쓰이였는데, 어을동 토성과 당토성, 그리고 장무이묘 등을 잇달아 발견한 인물이며 낙랑군 평양설을 확신하던 인물이었다.

처음 토성리토성을 찾았을 때 동반했던 이마니시는 낙랑군의 중요시설이 대동강 북안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를 군치지 내지는 중요 치소로 보는 야쓰이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토성리 토성답사에서 漢式기와편을 발견하고는 이것이 교토대

학에 소장된 중국 기와와 흡사하다고 판단하여 야쓰이의 주장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도쿄대학의 고마이에게 회고하였다고 전한다(고마이 증언).

표 2. 1910년대에 조사된 낙랑유적과 낙랑토성의 발견

調査日時	조사대상	조사자	參考文獻	備考
1910	大同江面東墳	關野, 谷井, 栗山, 今泉	朝鮮總督府, 1915, . 정인성, 2006.	1. 1910년까지의 조사에서는 전실묘만이 조사됨. 전실묘 낙랑고분설이 대두되어 논쟁이 발생함
	大同江面西墳	關野, 谷井, 栗山, 今泉	朝鮮總督府, 1915, 정인성, 2006.	
1911 (明44)	於乙洞土城	關野 외	關野1919, 關野 外1927.	동경대학에 채집유물과 탁본
	鳳山張撫夷墓 1次	谷井	關野外1914a, 1927, 谷井1911. 정인성, 2010	1. 대방군의 위치를 둘러싼 인식변화를 가져온 조사 2. 석암동 고분출토 금구를 바탕으로 평양전실묘가 낙랑고분이라는 설이 대두되었고 낙랑군평양설이 고고학적으로 증명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함
1912 (大1)	鳳山張撫夷墓 2次	關野, 谷井	關野1913, 1914a, 1914b, 關野 外1927, 谷井1912.	1. 세키노 타다시가 조사에 동참하여 현실 발굴.
1913	梧野里古墳	深田, 關野, 谷井	朝鮮總督府, 1915, 정인성, 2006.	공사 중 최초로 확인된 낙랑 목곽묘
	樂浪土城	谷井, 今西		한왕묘 조사과정에서 봉분이 붕괴하여 조사가 불가능하자 그 틈을 이용하여 대동강 남안을 조사하던 중 토성리 토성을 발견함. 중국 중원식 기와가 발견되면서 군현성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나아가 낙랑군치라는 주장이 힘을 받게 됨.
1914	城菜洞古墳	谷井, 今西	谷井1915a, 雜1915a.	

2) 낙랑유적 조사 2기

알려진 것처럼 1916년에는 「古蹟調査委員會」가 발족되고 「古蹟 및 遺物保存規則」이 시행되는데 이를 주도한 인물은 도쿄제국대학 교원이었던 세키노 타다시(關野貞)와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였다. 특히 이때부터 낙랑유적의 조사에 구로이타가 전방위적으로 관여하는데 이는 식민지기 낙랑유적의 조사 목적과 배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 때부터 본격적인 기획발굴이 이루어지는데 그 1차년도 조사대상이 漢治郡과 고구려였던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즉 이때는 이미 연구자들 사이에서 ‘낙랑군 평양설’이 어느정도 굳어진 상태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고적조사를 배후에서 주도했던 인물이 구로이타라는 사실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고대문화의 저급성과 한국 역사의 타율성을 입증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대표적인 어용 관학자였다는 사실에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기 때문이다(이성시 2001). 강점기의 많은 행정적,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여 기타 유적 조사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낙랑유적의 조사가 광복 직전까지 연속되었던 것도 구로이타의 측면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편 1916년의 발굴에서는 모두 10기의 낙랑고분이 발굴되었는데 발굴조사의 주체는 여전히 「세키노조사단」이었다. 다만 이 조사를 기획하고 입안한 사람은 세키노가 아니라 사학과에서 구로이타에게 수학한 야쓰이였다. 야쓰이는 원래 첫 해에 100여기 이상의 낙랑고분을 발굴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예상 외의 발굴성과와 공사규모에 10기에 머무르고 말았다. 이 조사에서는 석암리 9호분에서 소위 대박이 터졌다. 화려한 순금제 鈔具와 銅鏡을 포함한 각종 청동 용기와 칠기 등이 출토되면서 연구자는 물론이고 일반인의 관심까지 끌어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명문이 들어간 칠기에는 낙랑무덤에 목곽묘가 포함된다는 사실이 정식 발굴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부장유물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 결과 매장주체부의 천장을 노출시켜 현실로 침

투하던 기존의 발굴 방법이 개선되었다.

1917년을 기점으로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조사가 추가되어 관련 유적의 분포범위가 대체로 정해졌다. 특히 황해도 봉산군 양동리에서 대형 전



그림 4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



그림 5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실묘가 다수 확인되고 발굴되면서 지탑리토성과 장무이묘의 발견으로 촉발된 대방군의 위치비정도 일본학계에서는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었다.

표 3. 고적조사 2기에 조사된 낙랑유적과 봉니와의 상관관계
(표 속의 봉니관련 기사는 오영찬의 최근 논고와 일부 원전을 비교하여 대입한 것이다.)

調査日時	조사 대상	조사자	參考文獻	備考
1916 (大5)	貞栢里 1號 (1號)	關野, 谷井, 栗山, 小場	關野貞外, 1927	1. 조선총독부가 「古蹟 調査計劃」 立案하여 최초 로 기획발굴이 이루어지게 됨. 2. ()는 낙랑고분의 전 체 분포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조정된 번호 3. 낙랑 문화에 대한 연구자와 일반인의 관심을 집중되는 시기 4. 정식 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목곽묘를 확인 - 목곽묘가 부장유물이 풍부 하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됨 - 이후 낙랑고분 조사 가 목곽묘로 치우치게 됨. 5. 고적조사 위원회에 구로 이타와 세키노가 포함됨.
	貞栢里 2號 (2號)	關野, 谷井, 栗山, 小場	關野貞外, 1927.	
	貞栢里 3號 (3號)	關野, 谷井, 栗山, 小場	關野貞外, 1927.	
	貞栢里 4號 (151號)	關野, 谷井, 栗山	關野貞外, 1927.	
	貞栢里 5號 (153號)	關野, 谷井,	關野貞外, 1927.	
	石巖里 6號 (6號)	關野, 谷井,	關野貞外, 1927.	
	石巖里 7號 (99號)	關野, 谷井,	關野貞外, 1927.	
	石巖里 8號 (120號)	關野, 谷井,	關野貞外, 1927.	
	石巖里 9號 (9號)	關野, 谷井,	關野貞外, 1927.	
	石巖里 10號 (253號)	關野, 谷井, 栗山, 小場	關野貞外, 1927.	
	葛城里 甲墳	關野, 谷井,	關野貞外, 1927.	
	葛峴里 古墳	關野, 谷井,	關野貞外, 1927.	
	美林里 包含層	鳥居龍藏	梅原末治, 藤田亮策, 1946	
1917	鳳山 張撫夷墓	谷井 外	谷井 他 1920,	장무이묘의 구조가 완전히 드러나서 대방군치 논의가 마 무리 됨.
	鳳山 古唐城 北墳	谷井 外	谷井 他 1920	
	鳳山 立峰里 9號	谷井 外	谷井 他 1920	
	鳳山 柳亭里 3號	谷井 外	谷井 他 1920.	동경박물관에 관련 자료 소장
	鳳山 養洞里 3號	谷井 外	谷井 1920, 小田 1935. 國立中央博物館, 2001,	1. 국립중앙박물관이 미 보고 자료를 정리하여 보 고서를 간행 - 한글로 작성됨
鳳山 養洞里 5號	谷井 外	谷井 1920, 小田 1935. 國立中央博物館, 2001		
1918	중국에서 봉니구입		오영찬 2015를 참조	세키노가 중국에서 한대 봉 니 13개를 구입하여 총독부박

				물관에 인계함. 낙랑자료와의 비교 목적
1919	평양에서 봉니 출현			수집가 야마다자이지로가 토성리토성에서 출토되었다는 봉니 2과를 소개함. -진위 논란이 대두-
1921	토성리토성 (낙랑토성)	세키노다다 시 외	낙랑군시대의 유적	세키노가 토성리토성에서 채집된 봉니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성리 토성의 여러 곳을 굴착하였으나 단 한 점의 봉니도 채집할 수 없었다고 함.
1922	東大院里 許山	藤田亮策, 梅原, 小泉	朝鮮總督府, 1925.	1. 1921년에 야쓰이 세이이 쓰가 아버지의 병을 핑계로 고향 와카야마로 돌아감. 2. 후임 후지타 료사쿠가 착임하여 고적조사 업무를 관장하게 됨. 우메하라 스에지, 고이즈미 아키오 등의 연구자가 낙랑고분의 조사에 처음 참가.
1922	야마다 封泥를 총독부에서 구입			야마다의 封泥를 총독부 박물관에서 구입함. -세키노의 주선: 결국 세키노는 이를 진품으로 인정했다는 증거임. 이마니시는 한대 관직이 새겨진 봉니가 번군에서 나오기 힘들다며 위조설 제기
1923	'朝鮮右尉'명 봉니 출현			이것이 고가에 매매되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낙랑고분과 토성리토성에 대한 대대적인 도굴이 발생함.
1924 (大13)	石巖里 乙墳 (200號)	藤田亮策, 小場, 小泉, 藤田整助	樂浪漢墓刊行會, 1974,	1. 해방 후 간행 (일본어) 김재원의 자료 제공이 있었음. 2. ()는 대동강 남안의 낙랑고분에 대한 분포조사의 결과 새로 부여된 일련번호. 3. 도굴되기 전에 발굴해 버리자는 분위기가 비등함.
	石巖里 丙墳 (194號)	藤田亮策, 小場, 小泉, 藤田整助	樂浪漢墓刊行會, 1974.	
	石巖里 丁墳 (20號)	藤田亮策, 小場, 小泉, 藤田整助	樂浪漢墓刊行會, 1974.	
	石巖里 戊墳 (52號)	藤田亮策, 小場, 小泉, 藤田整助	樂浪漢墓刊行會, 1974.	
1925 (大14)	石巖里 205號 (왕우묘)	原田, 田澤, 小泉, 小場	原田淑人·田澤金吾, 1931,	1. 전년도의 관동대지진으로 문학부에 보관 중이던 낙랑유물 대부분 소실됨. 조선사 연구를 위한 자료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도쿄대학이 주도하여 발굴. 일본 내지의 대학이 발굴을 실시한 유일한 낙랑고분
	석암리 204호	상동	미보고	

				-구로이타 가쓰미의 입김으로 가능했던 일. 2. 동경대학 문학부에 대부분의 유물이 반출되어 보관.
1926	中村眞三郎 諸岡榮治 소장 封泥들이 다수 소개됨			수집가들 중에서 다수의 낙랑봉니를 소장한 자들이 나타남.

그 이듬해인 1918년에 세키노다다시가 중국 여행 중에 한대의 봉니 13점을 구입하여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인계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들 봉니는 이후 발견되는 봉니와 그 형태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세키노가 중국여행에서 한대 유물을 구입하여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인계한 것은 낙랑군의 유물을 중국 내지의 그것과 비교하기 위한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평양지역에서도 봉니가 출토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한 것이다. 혹은 이미 평양지역에서 채집된 봉니 정보를 세키노가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관련해서는 보충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19년에 평양지역의 수집가 山田鉦次郎이 수입했던 봉니 2점이 알려졌다. 이를 그대로 신용할 수 없었던 세키노는 1921년 전격적으로 아마다가 출토지로 말한 토성리토성을 굴착조사하였는데 이 때는 단 1과의 봉니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후 총독부박물관에서는 아마다 소유의 봉니 2과를 구입한다. 아마다는 봉니 이외에도 낙랑기와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하던 사람으로 그가 보관하던 기와자료는 세키노가 주선하여 일본 대학에 기증하기도 하였으며 총독부에서 유상으로 이를 구입하도록 힘쓰기도 하였다. 봉니 역시 세키노의 주선으로 총독부가 구입했을 것인데, 세키노가 이를 신용할 수 있는 발굴품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품으로 인정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1923년과 24년 사이에는 봉니 등의 유물이 고가에 매매되었다는 소문 등이 번지면서 낙랑 유적과 유물에 대한 관심과 수집욕이 폭발하여 600여기 이상의 낙랑고분이 도굴되는 未曾有의 사태가 발생한다. 대도굴 사태에 직면한 평양시는 1924년에 자금을 마련하여 도굴되지 않은 고분을 미리 조사해 버린다는 명분으로 석암리에서 4기의 대형 목곽묘를 발굴한다. 이 때 처음으로 후지타와 함께 조선고적조사의 2세대의 한명이라 할 수 있는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가 古蹟調査課의 촉탁이 되어 낙랑유적의 조사에 참가한



그림 6. 1920년대에 발생한 궤멸적인 도굴로 대동강 남안의 고분군은 철저히 도굴된다. 분화구처럼 변한 지점이 도굴을 당한 부분이다(동경대학 문학부 고고학연구실 소장).

다. 발굴 결과 다수의 기년명 칠기가 출토되어 낙랑칠기가 漢의 칠기와 동일하다는 사실이 강조되었으며, 우메하라¹⁾는 낙랑고분에서 출토된 漢鏡을 집성하였다. 낙랑 한경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높아져서 명문대가 있는 銅鏡이 고가에 거래되기도 하였다.

즉 1924년까지의 낙랑고분의 발굴, 혹은 채집품을 통해 알려진 소위 중원계 문물을 근거로 낙랑군평양설은 확고해지고 한국사의 출발이 낙랑군 설치를 통한 선진문물과 제도의 수입에 의한다는 ‘타율성론’을 확산시킨다. 당연히 재지 고조선인의 존재와 그 문화를 고고학적으로 밝히려는 노력은 배제되었으며 그 분위기는 광복 때까지 이어진다.

1925년에는 관동대지진으로 인한 행정축소 정책으로 인해 고적조사과가 폐지되었기에 전반적으로 고적조사 사업은 정체되지만 전년도에 성과에 고무된 구로이타가 다시 한번 대형 낙랑 고분의 발굴을 기획한다. 귀족들을 설득하여 발굴자금을 모금하는데 성공한 구로이타의 도움으로 조사된 고분이 석암리 205호, 즉 王盱墓이다. 물론 관동대지진으로 소실된 교육 자료를 확보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현장조사를 도쿄제국대학 史學科에서, 즉 구로이타 본인이 직접 맡으려고 했다는 점은 눈여겨 보아야 될 대목이다. 결

1) 우메하라는 1917년에 세키노가 유럽으로 유학을 떠나자 대신 고적조사위원이 된 교토대학의 하마다 고사쿠의 추천으로 1918년부터 한반도의 고적조사에 참가하게 된다.

과적으로 같은 도쿄대 문학부의 고고학 전공이었던 하라다 요시토(原田淑人)의 책임 하에 총독부박물관에서 고이즈미아키오(小泉顯夫)가 파견되어 현장조사를 거들었고 구로이타도 많은 시간을 현장에 머물렀다. 이 때 출토된 유물은 현지보존이라는 총독부의 원칙이 무시된 채 보고서 작성이라는 명목으로 반출되어 지금도 그 대부분이 도쿄대학 문학부에 보관되어 있다(이현혜·정인성 외 2008).

석암리 205호에서도 여러 점의 청동거울과 다량의 칠기 류가 출토되어 낙랑에 대한 연구자와 일반의 관심은 더욱 고조되었는데 이 무렵 표에서 보는 것처럼 낙랑토성에서 채집한 것이라 주장하는 봉니를 다량으로 소장하는 수집가가 나타난다.

3) 낙랑유적 조사 3기

1930년대가 되면서 고적조사사업이 총독부의 행정기구 개편으로 축소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나선 인물도 역시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이다. 그는 귀족과 관료들의 지원금을 확보하여 「朝鮮古蹟研究會」를 설립했는데 그 예하의 낙랑연구소는 이후 낙랑 유적 조사를 주도한다. 1930년대에 전반적으로 다른 분야의 고적조사가 쇠퇴하는 가운데 낙랑유적 만은 거의 해마다 빠지지 않고 조사되었다.

1930년에는 오야리에서 6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는데 이를 주도한 것은 오바와 노모리, 그리고 역시 구로이타의 추천한 가야모토 가메지로(榎本龜次郎)이다.

1931년에 조사된 남정리 116호, 즉 채협총은 대형 목곽묘이지만 현문의 천장과 연도부에 전돌을 쌓은 곳이 발견되어 목곽묘에서 전실묘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성격의 고분으로 이해되었다. 조사가 마무리된 후 채협총의 목곽은 평양 부립박물관으로 옮겨져 교육용으로 활용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토성리토성이 발굴되기 전인 1932년 부터 1934년에 걸쳐서 조선사람 김성도가 소장하던 봉니 69점을 총독부 박물관에서 일괄 구입했다는 사실이다(오영찬 2015). 물론 토성리토성에서 출토되었다고 주장하였기에 구입한 것이다. 아울러 일본인 수집가인 中村眞三郎로 부터 1932년, 1934년, 1935, 1936에 걸쳐 봉니 30과를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실제로 토성리토성(낙랑토성)을 발굴하기 직전에 일어난 大亂掘로 많은 유물이 도굴되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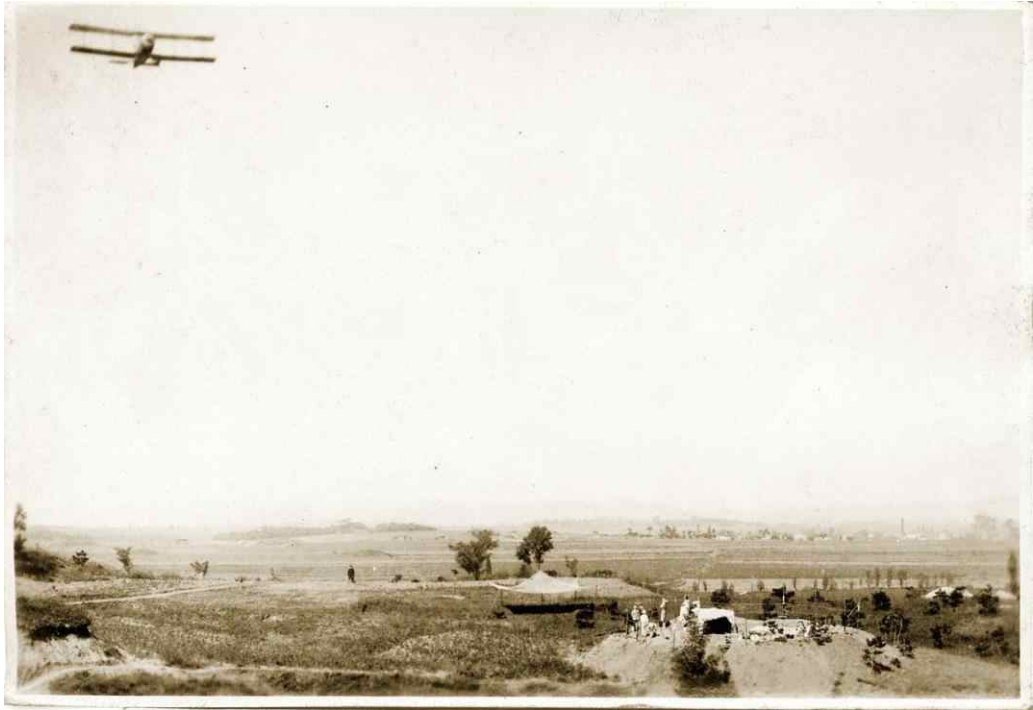


그림 7. 왕우묘 발굴 광경을 항공촬영하기 위해 동원된 군용기
(동경대학 문과대학 고고학연구실 소장 사진)

한편 1933년에는 낙랑 목곽묘를 오바 쓰네키치가, 전실묘를 우메하라 스에지가 분담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일제강점기에는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우메하라가 조사한 전실묘도 개보 형태로만 보고되었을 뿐이다. 이 때 조사된 전실묘에 대해서는 교정단계에 이른 보고서가 출간 직전에 미군의 도쿄대공습으로 소실되었다. 정백리 227호에서 출토된 유물은 동경제실박물관이 조사비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東京으로 반출되어 현재 도쿄국립박물관에 있다. 여전히 식지 않은 낙랑유물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이 외에도 교토대학에 보고서 작성을 빌미로 우메하라가 반출시킨 다수의 평양 출토유물이 보관되어 있다.

1934년에는 우메하라가 낙랑고분에서 출토된 漢代 기년명 칠기를 집성하여 명문 해독을 시도하였으며, 1935년에는 후지타가 골동상을 통해서 유통되었던 봉니 등을 집성하여 郡官職印, 縣官職印, 私印 등으로 분류하고 漢代의 관제나 인장 연구에 대단히 중요한 자료라고 하였다(高久 2010 재인용). 비록 위조품이 섞여 있으나 대부분은 진품이라

표 4. 1930년대 이후에 조사된 낙랑유적과 봉니자료

調査日時	조사 대상	조사자	參考文獻	備考
1930 (昭5)	梧野里 18古墳	小場, 野守, 榎本, 神田	野守健 外,1935,	1. 개보 형태로 정식 보고서가 아님. 2. 조선고고학의 3세대라 할 수 있는 가야모토가 고적 조사에 참가.
	梧野里 19古墳	小場, 野守, 榎本, 神田	野守健 外,1935.	
	梧野里 20古墳	小場, 野守, 榎本, 神田	野守健 外,1935.	
	梧野里 21古墳	野守, 榎本,	野守健 外,1935.	
	梧野里 22古墳	野守, 榎本,	野守健 外,1935.	
	梧野里 23古墳	野守, 榎本,	野守健 外,1935.	
1931	南井里 116號 (채협총)	小場, 小泉,	小泉顯夫, 1934,	구로이타 가쓰미가 조선 총독부의 외곽단체로 조선 고적연구회 설립
	石巖里201號	小泉, 澤	小泉顯夫, 1934.	
	石巖里260號	小泉, 澤	小泉顯夫, 1934.	
	1931~1934년에 걸쳐 조선인 김성도에게서 봉니 69점을 구입.			
1932	貞栢里 127號 (王光墓)	小場, 榎本	小場恒吉·榎本龜次郎, 1935, .	1. 우메하라 자료 2. 인쇄 중에 폭격으로 출판되지 않음 - 교정본이 동양문고에 있음.
	南井里 119號	小場, 榎本	小泉 他 1935,	
	石巖里 266號	梅原	未 報告	
	南井里 120號	梅原	未 報告	
1933	貞栢里 8號	小場, 矢鳥	朝鮮古蹟研究會,1934, 李榮勳,金吉植外,2002	국립중앙박물관이 미보고 자료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간행 (한글)
	貞栢里 13號	小場, 矢鳥	朝鮮古蹟研究會,1934, 李榮勳,金吉植外,2002,	
	貞栢里 122號	小場, 榎本,	朝鮮古蹟研究會, 1934,	1. 인쇄 중에 폭격으로 출판되지 않음 - 교정본이 동양문고에 있음. 2. 후지이씨가 재발간 준비 중 3. 동경박물관에 227호 관련자료 소장
	貞栢里 17號	小場, 榎本, 松本, 濱本	朝鮮古蹟研究會, 1934.	
	貞栢里 59號	小場, 榎本,	朝鮮古蹟研究會, 1934.	
	貞栢里 219號	梅原, 澤,	朝鮮古蹟研究會, 1934.	
	貞栢里 221號	梅原, 澤,	朝鮮古蹟研究會, 1934.	
	貞栢里 227號	梅原, 澤,	朝鮮古蹟研究會, 1936,	
	大同郡 上里	榎本	梅原末治·藤田亮策, 1947,	

1934 (昭9)	장진리 45號	小場, 高橋	朝鮮古蹟研究會, 1935,	2. 인쇄 중에 폭격으로 출판되지 않음 - 교정본이 동양문고에 있음.
	貞栢里 19號	小場, 小泉, 田窪	朝鮮古蹟研究會, 1935.	
	장진리 30號墳	小場, 澤	朝鮮古蹟研究會, 1935.	
	石巖里212號	小泉, 田窪	朝鮮古蹟研究會, 1935.	
1932년과 1934년, 1935년에 걸쳐 평양경찰서의 中村眞三郎 으로부터 封泥 30점 매입. 후지타료사쿠가 봉니를 그간 출토된 봉니를 정리함.				
1935 (昭9)	石巖里255號	小場, 榎本, 澤	朝鮮古蹟研究會, 1936,	1. 1935년 세키노 타다시 사망 2. 인쇄 중에 폭격으로 출판되지 않음 - 교정본이 동양문고에 있음. 3. 후지이씨가 재발간 준비 중
	石巖里257號	小場, 榎本, 澤	朝鮮古蹟研究會, 1936.	
	貞栢里4號	小場, 榎本, 澤, 田窪	朝鮮古蹟研究會, 1936.	
	南井里53號	梅原, 澤, 田窪	朝鮮古蹟研究會, 1936.	
	道濟里50號	梅原, 澤, 田窪	朝鮮古蹟研究會, 1936.	
	낙랑토성 2회 조사 봉니 출토	駒井, 澤, 田窪, 野守	朝鮮古蹟研究會 1937.	1. 출토유물이 모두 도쿄 대학으로 반출됨 2. 봉니 출토로 위조설 대체로 정리됨.
1937 (昭12)	梧野里25號	梅原, 田窪	田窪眞吾·梅原末治, 1938,	1936년과 1937년에도 조선인 라유춘에게 封泥 58점 구입. - 봉니가 고가로 매입되는 분위기는 계속됨. 1936년에 후지타 료사쿠가 봉니를 정리하여 논고를 발표. 1936년 12월 이후에 발견된 봉니는 고려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봉니들은 대체적으로 신용하는 결론 총 관인 봉니 8과, 사인 봉니 2점, 판독불가 봉니 5점 발견. 도쿄 박물관에서도 1937년 1938년에 낙랑봉니 8과를 구입했다.
	낙랑토성 봉니출토	原田, 高橋, 駒井	田窪 他1938,	
1938 (昭13)	助王里 68號	榎本	榎本 1939	
	助王里 69號	榎本	榎本 1940	
1939 (昭14)	貞栢里 360號	梅原?	未報告	
	貞栢里 356號		梅原·藤田1948.	
1940 (昭15)	貞栢里 135號	小泉, 鏡山,	梅原考古資料 4321·4322.	

		蔡秉瑞		
	貞栢里 138號	梅原	梅原·藤田1959.	
	貞栢里 200號	梅原	梅原考古資料 4323.	
	貞栢里 219號	梅原	梅原 1969.	
1941 (昭16)	石巖里 214號	小泉, 鏡山, 小野, 樞本	樋口 1975.	
	石巖里 216號	小泉, 鏡山, 小野, 樞本	有光·藤井 2003.	
1942 (昭17)	石巖里 215號	小野, 蔡秉瑞	中村 1968.	
	石巖里 219號	樞本, 中村	樂浪漢墓刊行會 1974. 樞本·中村 1975.	
	石巖里 292號	小泉, 中村, 蔡秉瑞, 樋口	梅原考古資料 9768.	
	石巖里 293號	小泉, 中村, 蔡秉瑞, 樋口	梅原考古資料 9768.	
1943 (昭18)	石巖里 218號	有光, 澤	有光, 藤井2003.	1. 경주연구소에 있던 아리미쓰가 낙랑고분의 발굴에 참가. 2. 후지이 가즈오가 아리미쓰의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 (한글, 일문 병기)
	貞栢里 24號	有光, 澤	有光, 藤井2003.	
	石巖里 294號		梅原末治, 1946,	
	石巖里 213號	小泉顯夫·小野忠明·中村春壽	有光, 藤井2003. 梅原 1946.	
	石巖里 297號	小泉顯夫·小野忠明·中村春壽	梅原末治, 1946,	
	樂浪土城		梅原考古資料 4400.	식료품 배급이 어려운 열악한 조건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정황이 우메하라 고고자료에 포함된 편지를 통해서 드러남. 봉니 출토여부는 확인 필요.

고 인정한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1935년과 1937년에 이루어진 토성리토성의 발굴조사를 전후하여 민간의 봉니 수집분위기가 가장 고조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알려진 봉니들은 연구자들의 주선으로 총독부 박물관이 구입하도록 하였다.

토성리토성에서 대규모 도굴이 발생하고 아울러 왕검성 비정문제와 토성리토성 초축연대와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한 논란이 더해지면서 정식 발굴조사에 대한 요구가 분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토성리(낙랑)토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1935년

에 2번에 걸쳐 이루어지고 1937년에 추가 발굴되었다. 발굴성과는 당시 잡지에 개보가 실리면서 알려졌지만 정식 보고서는 오랫동안 작성되지 않았다. 1964년이 되어서야 개보를 모으고 일부 유물의 도면과 도판을 새로 작성하여 약식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미처 보고하지 못했던 방대한 토성리토성의 자료에 대해서는 1980년대에 다니 도요노부(谷豊信), 그리고 2000년대 이래로 필자에 의한 지속적인 추가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출토 봉니자료는 재검토되거나 연구되지 않았다.



그림 8. 토성리토성(낙랑토성) 내에서 발견된 변소

한편 토성리토성이 발굴되었을 당시에는 이미 낙랑군평양설이 일본학계에서 정설화된 단계였다. 토성에서 봉니와 낙랑명 와당들이 출토되면서 위조설은 정리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정인보 등이 위조설을 강하게 제시하면서 봉니의 진위문제는 낙랑군 위치논쟁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광복 후 북한학계는 이를 전면 계승하여 토성리토성의 봉니를 모조리 위조된 것이라 정리해 버린다. 그 타당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일제강점기 출토자료를 꼼꼼하게 재검토하고 내린 결론이 아니라는 점은 아쉽다.

1940년대가 되어서도 낙랑고분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었으나 그 내용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주목되는 것은 태평양전쟁이 격화되면서 전시 총동원체제에 돌입했던 1943년

경에도 토성리토성에 대한 발굴조사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동양문고에 남은 우메하라 고고자료에는 조사 당시의 풍경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다. 보급이 끊긴 조사원들은 조선인 보조원들을 평양으로 보내 식량을 구하려고 애쓰는 모습, 군용 통조림으로 간신히 끼니를 때우던 풍경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정리하면 토성리(낙랑)토성이 발굴되었을 무렵에는 이미 낙랑군평양설이 거의 확립된 단계였기 때문에 발굴목적은 단순히 낙랑과 관련된 문자자료(봉니)나 기타 고고자료의 발견이 아니었을 것이다. 보고서에서 밝힌 것처럼 고조선 왕검성인지의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고고자료, 그리고 낙랑군치지의 상한연대를 확인하여 군치지 논란을 마무리하려는 목적이 컸음을 알 수 있다. 도굴이 진행되기 전에 정식발굴을 통해서 토성의 성격을 밝히고 출토유물을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실제로 봉니나 낙랑예관이 출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열광한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이미 낙랑군평양설이 굳어진 상황에서 토성리 토성의 봉니나 낙랑명 와당이 정식발굴 조사를 통해서 발견되었다면 가장 재미?를 보았을 사람은 조사원들이 아니라 이미 다량의 봉니를 수집해 두었던 수집가들이었을 것이다. 이 점은 간과해서는 안된다.

4) 토성리토성의 발굴 경과와 결과보고 검토

여기서는 토성의 발굴조사 개보를 중심으로 봉니의 출토상황을 어떻게 보고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3차에 걸친 발굴조사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 1) 1차 발굴: 1935년 4월 9일 - 4월 30일(1934년도 예산으로 실시)
- 2) 2차 발굴: 1935년 9월 6일 - 10월 18일
- 3) 3차 발굴: 1937년 5월 29일 - 6월 26일
- 4) 개보 발간: 발굴직후 잡지에 간단한 개보가 발표됨.
- 5) 도판작성: 일부 출토유물에 대한 정리와 사진촬영은 1957년에 이루어짐
- 6) 보고서 작성: 1965년 1월 탈고, 3월 인쇄 발행.
- 7) 발굴조사 참가 인원

조사단장: 原田淑人(도쿄대학 문학부 고고학연구실)

조사원: 駒井和愛(도쿄대학 문학부), 澤俊一, 田窪眞吾, 野守健, 龍遼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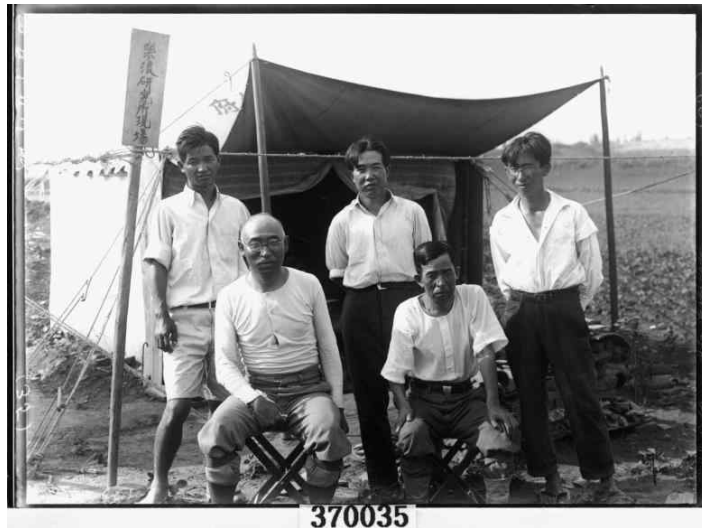


그림 9 1937년 발굴시의 단원들(하라다와 고마이)

조사는 조선고적연구회가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1차 조사는 노모리켄과 사진기사인 사와 준이치가 파견되었고 도쿄대학에서는 고마이가 출장하여 주도적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조사 역시 1935년에 실시되었는데 조사단 구성은 동일하다.

3차 조사는 駒井和愛, 澤俊一, 田窪眞吾에 세키노의 친동생인 노모리가 빠지고 高橋勇씨가 참가하였다.

8) 보고서에서 밝힌 조사목적: 경작토에서 유구가 얕으며, 기와 등의 유물 채집을 노린 굴착행위가 빈번하여 문제시 되었음. 토성 대부분이 민간 소유였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였다고 함.

9) 발굴조사의 진행

먼저 구엄나루의 남방 관유지를 발굴하니 표토 아래 10cm에서 암반이 드러나 그 남쪽의 대지와 1단 낮은 대지를 대상으로 재선정하여 트렌치 발굴로 진행함. 그 과정에서 유구가 나타나면 이를 확장하는 방식이었다.

10) 봉니와 낙랑예관(부귀)명 와당에 대한 보고서의 기술검토

발굴 보고서의 고찰에서 그 성과를 밝혔는데 우선 반량전 거푸집이 출토된 점을 들었다. 이는 봉니와 마찬가지로 발굴 이전부터 이미 채집품으로 출토사례가 알려져 있던 것이다. 발굴을 통해서 출현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성내의 중앙보다 약간 동북으로 치우쳐 남아 있던 언덕 경사면에서 「樂浪禮

官」과 「樂琅富貴」명 와당이 출토된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사기(史記) 봉선서(封禪書)나 전후한서(前後漢書)에 나타나는 기사와 대비시켰다. 사기(史記) 효문본기(孝文本紀) 15년에 성기현(成紀縣)에 황룡이 나타났을 때 예관에게 의견을 물었던 내용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효문본기에 그렇게 말함과 동시에 효경제(孝景帝)가 효문묘를 군국 제후에게 만들게 했다는 기사를 인용하였다. 하여 낙랑군에도 효문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예관 와당이 출토된 중앙대지 동쪽 근처로 비정하였다. 토성동 토성에서는 임둔 태수장도 발견되었지만 진번군과 관련된 것은 없다 하였다. 아울러 당시에 임둔태수장의 진위를 의심하는 연구자들이 있음을 적고 있다.

토성리 토성에서 출토된 봉니는 주로 중앙 언덕 동쪽 자락의 C트렌치 C구, D트렌치, D구에서 출토되었고, 후자는 D구와 G트렌치에서 발견되었다.

보고서에 정리한 개별 봉니의 출토지점은 아래와 같다.

1) 낙랑대운장(樂浪大尹章) : C구에서 출토됨. 불을 맞아 붉은색이며 잔존한 부위에는 ?랑대운장(浪大尹章)의 4글자만 보인다. 낙랑대운장이라 새겨진 도장을 눌러 찍은 봉니인데 이는 왕망시대의 것이다. 다만 왕망의 건국 원년에 태수를 대운으로 개칭했기 때문이라 했다. 그러나 이 때 낙랑군의 명칭을 낙선이라 바꾼 사실은 보고서에 적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북한학계를 중심으로 낙랑관련 봉니 위조설을 다루는 논의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이다.

2) ?감좌위(?邯左尉) : 이것도 C구역에서 출토되었고 붉은 색이며 구워진 것이다.

3) 수성우위(遂成右尉) : D구역에서 출토되었으며 회흑색을 띤다.

4) 소명승인(昭明丞印) : 마찬가지로 D구역 출토. 회갈색을 띤다. 소명현성(昭明縣城)은 오다 쇼고(小田省五)가 황해도 신천군 북부면 토성리에서 발견하였다.

5) 제해승인(提奚丞印) : D트렌치 출토인데 붉은색으로 구워졌다. 도장면의 크기는 2cm인데 이 제해는 전한~후한시대 통틀어 존재하던 현이었다.

6) 동 ?승(東 丞) : 동이승인(東隴丞印)의 잔편이다. D구역에서 발견됨. 적갈색 동승의 두 글자만 남아 있다.

또한 C구역에서 ‘尉’의 한 자만 잔존한 봉니도 출토되었다.

7) 불좌이위(不左而尉) : C트렌치 출토. 옅은 갈색을 띤다. 불이(不而縣)에 대하여 이 케우치(池內宏)의 언급을 인용하여 함경남도 영흥읍의 동쪽 소라리에서 발견된 토성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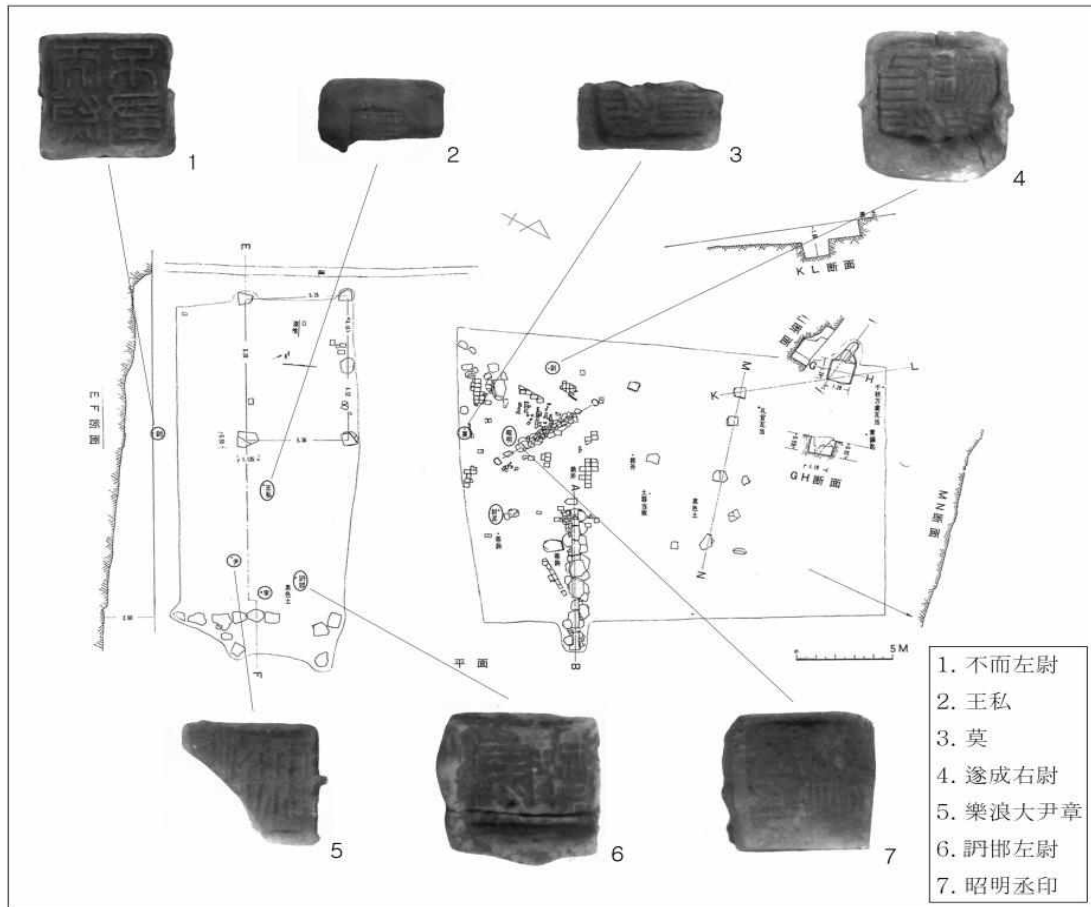


그림 10 보고서를 분석에 바탕한 봉니 출토지점의 확인(김동호 편집 보조)

소라리 토성에 비정하였다.

8) 전막승인(前莫丞印) : D구역 출토. 테두리가 훼손되었지만 4글자는 읽을 수 있다. 도장면 가로 2cm. 이 또한 건무 6년에 폐지된 7현의 하나이다.

9) 덧붙여 D구역에서는 ‘莫’ 등 두 글자만 남아 있는 파편이 출토되었다.

10) 봉니에는 표면은 박리되고 뒷면에 복잡한 끈 흔적만 남은 것도 있다.

11) G트렌치 출토의 주사상인(周思傷印) 4자가 찍힌 소형의 것이 출토되었다.

12) C구역에서 발견된 ‘王私’ 두 글자를 남긴 작은 것도 있다.

관인을 표시한 것이 도장면 2.1cm안팎의 크기인데 반해 사인은 그 보다 작다고 하였다.

한대(漢代)의 관인은 태수 이하는 네모진 것이 기준이었지만, 도장의 크기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하였다. 그리고 발견된 봉니는 거의 불을 맞아서 구워진 것인데 본래의 질감인 것은 거의 없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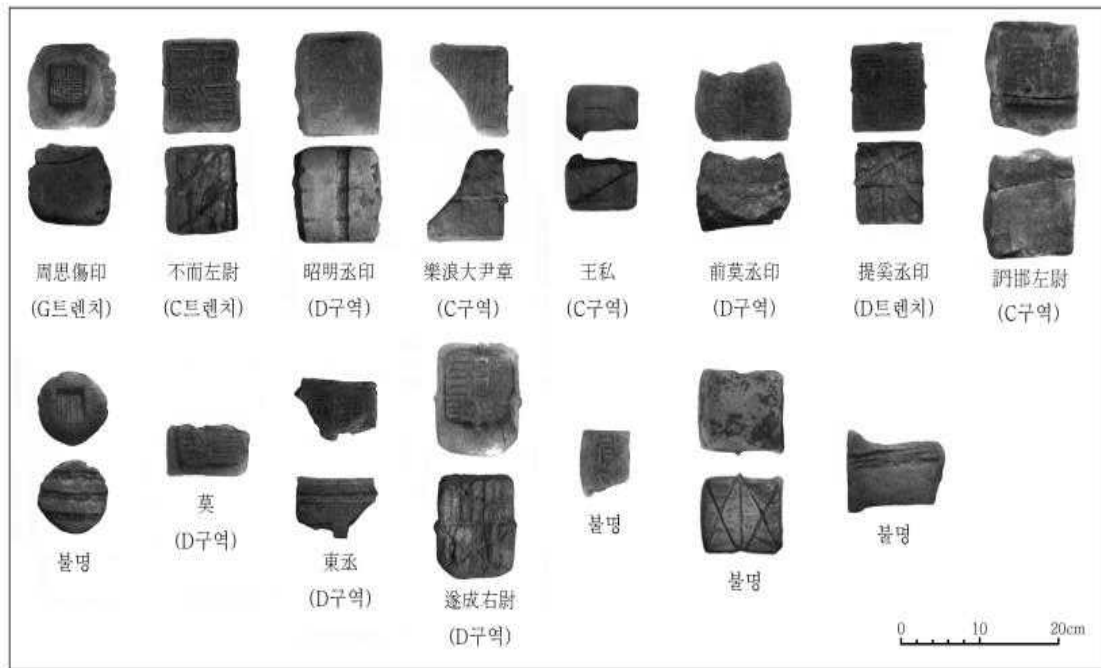


그림 11 토성리토성에서 출토되었다고 보고된 봉니 모음

발굴보고서에서 현장조사 담당자였던 고마이는 토성리토성(낙랑토성)의 축조연대를 밝힐 만한 적극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반량전 거푸집과 낙랑관련 와당, 그리고 봉니 등의 출토 사실은 성과라고 정리하였다.

발굴 보고자가 토성리토성에서 봉니 출토된 사실과 그 현황을 이렇게 정리하였지만 아래에서는 이를 발굴 당시의 원자료와 비교하여 다시 살필 것이다.

5) 발굴담당자의 야장기록과 측량도면 원도의 관찰

봉니 위조론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발굴보고서의 정리만을 기준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발굴담당자인 고마이의 야장에 적힌 발굴 당시의 봉니 출토상황의 기록을 살펴보려고 한다. 그의 야장과 자료는 현재 와세다 대학에 보관되어 있다. 야장 기록에서 봉니와 와당과 관련된 기록을 발췌하여 출토정황을 보고서의 기술과 비교하여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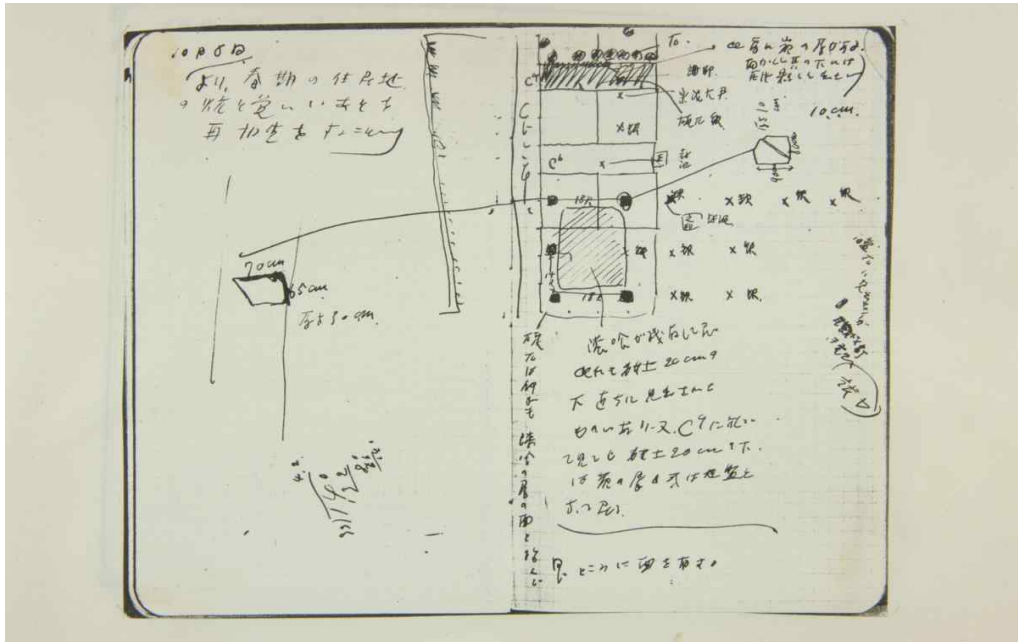


그림 12 고마이가 현장에서 기록한 야장(봉니 출토지점에 대한 기록이 관찰된다.)

1) 9월 19일 야장 (2차 발굴)

인부 14인

D2Ⅲ 에서 봉니 출토, 이당 출토, 표토에서 20cm 지점에서 출토됨.

2) 9월 30일 17.5인 (2차 발굴)

청소 중에 D4 I에서 봉니 출토.

3) 10월 3일 오후 비가 와서 휴식. (2차 발굴)

東? 丞印 봉니 D5 I에서 출토.

4) 10월 6일 야장 (2차 발굴)

10월 6일의 야장에는 C와 D 구역의 트렌치 약도가 그려졌고 출토된 봉니들의 출토 지점이 기록되었다. ‘樂浪大尹’, ‘王?’ 封泥, ‘之印’ 봉니 등이 약측으로 표시되어 있다.

고마이의 야장 기록은 보고서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출토유물의 설명에서는 서로 통한다.

한편 도쿄대학 고고학연구실에는 현장조사 시에 작성하였던 측량도면이 남아 있다. 하얀 마분지에 그려진 평판 측량도인데 모서리마다 고정 핀의 흔적이 여러 개 남은 것을 보면 현장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평판을 세워놓고 노출되어 드러나는 유구와 유물의 위치를 측석에서 추가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C와 D 구역을 그려낸 평판 측량 원도를 살펴보면 우선 현장에서 연필로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보고서에 실린 도면의 원도로 거의 모든 표현이 일치한다. 여기에는 고마이가 야장에 그려 놓은 봉니 출토지점과 거의 유사한 곳에 실제로 봉니 출토지가 아주 작은 글자로 표시되어 있다. 이 도면을 트레이싱 하여 인쇄체로 바꾸어 보고서에 그대로 게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개 이러한 평판측량은 2인 이상이 한조가 되어 실시하는 것이다.

때문에 발굴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측량도에 표현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즉 봉니는 발굴과정에서 실제로 발굴되거나 채집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이들 봉니 자료를 위조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6) 일제강점기 발굴조사 현장에서 사용된 유물수습 봉투의 검토

도쿄대학 문학부 열품실에는 토성리토성 발굴과정에서 출토된 유물을 수습하는데 사용했던 노란색 편지봉투를 전용해서 만든 유물봉투가 다수 보관되어 있다. 이는 1935년과 1937년에 실제로 현장에서 유물을 수습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를 통해 발굴현장과 약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의 현장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중 봉니와 낙랑예관을 중심으로 해당 봉투의 특징과 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봉니 수습 봉투 1 (2차 발굴)

봉투의 주기: 10월 4일, 봉니 C5Ⅱ : 돌과 모래가 섞인 곳에서 1fruit

C트렌치에서 4m,

봉투 관찰소견: 봉투에 c 트렌치를 표시하고 그 옆에 봉니 출토지를 그리려고 했다가 지워버렸음.

2) 봉니 수습 봉투 2 (2차발굴)

봉투의 주기 : 9월 19일 오후 1시

봉니(封泥) 殘缺, D2Ⅲ, 경작토 아래 20cm.

3) 봉니 수습 봉투 3

D2Ⅲ 遂成右尉의 殘缺

봉투 관찰소견: 그 잔결이라는 주기는 필기도구가 바뀌었음. 현장 수습시의 기록인지 분명하지 않음.

4) 봉니 수습 봉투 4

封泥 之印

5) 봉니 수습 봉투 5 (2차발굴)

封泥殘缺

유리제 소옥 9월 27일 D3IV.

6) 봉니 수습 봉투 6 (1차발굴)

而不左尉 封泥 在中 4월 20일, C트렌치 VIII.

7) 봉니 수습 봉투 7 (2차발굴)

前莫丞印, D2-3 I, 10월 8일

8) 봉니 수습 봉투 8 (2차발굴)

昭明丞印 D2-3 I, 10월 8일

9) 봉니 수습 봉투 9

樂浪大尹章 封泥 경작토 아래 10cm C 트렌치.

10) 봉니 수습 봉투 10 (2차발굴)

봉니 잔결 D5 I 10월 3일.

11) 봉니 수습 봉투 11

提? 長印 封泥, D트렌치 VIII

12) 봉니 수습 봉투 12 (2차 발굴)

封泥 ?之印 10월 8일 C트렌치.

13) 와당 수습 봉투 1 (1차발굴)

禮官瓦當 잔결편 4월 22일 C1 I

14) 와당 수습 봉투 2 (2차발굴)

禮官瓦當 잔결 10월 4일?

유물봉투에서 드러나는 출토지점과 기타 정보는 고마이가 작성한 야장의 봉니출토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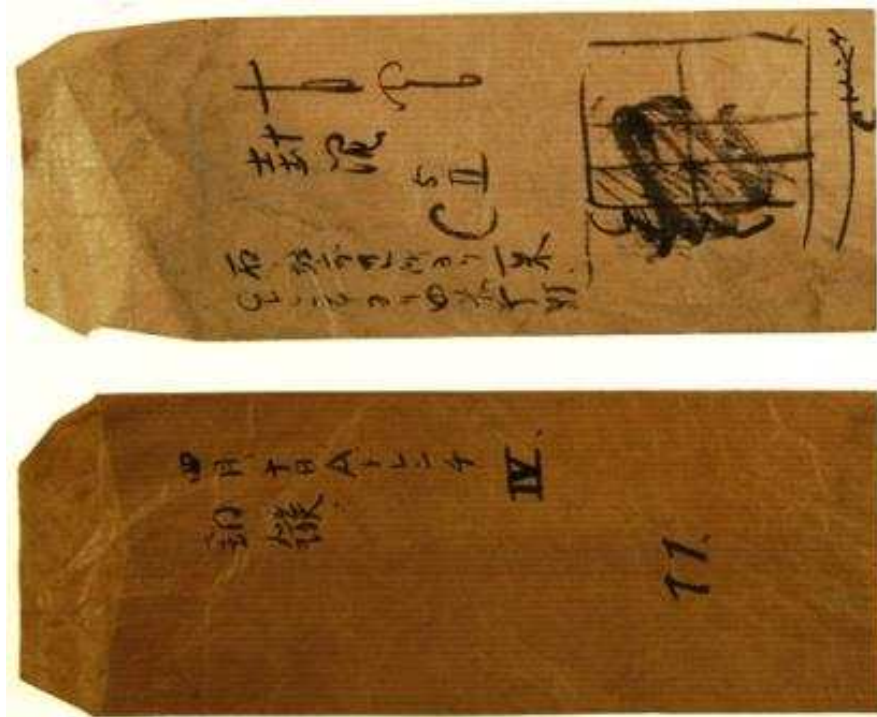


그림 13 토성 발굴시에 사용된 유물 수습용 봉투

록과 대부분 일치한다. 보고서에 게재된 15점의 봉니를 넣어두었던 종이봉투 중 단 3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봉투는 도쿄대학 고고학연구실에서 모두 발견되었다. 대부분 약보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봉니를 봉투에서 꺼내어 다른 곳에 보관하였는데 1980년대에 낙랑토성 출토유물을 재정리한 타니도요노부가 봉니에 주기를 추가하고 정리한 것도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토성에서 발견된 봉니의 총수는 15점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유물을 수거한 봉투를 통해서도 출토되지 않은 봉니를 위조하여 보고서에 기록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실제로 현장 조사과정에서 출토된 봉니를 평판측량을 하면서 기록하고 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노란봉투를 사용하였음이 드러났다. 봉투에는 유물의 성격과 출토지점, 출토 일시를 비교적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다.

마지막으로 출토정황과 관련하여 대부분 많은 수의 봉니들이 2차 발굴과정에서 출토되었다는 사실이다. 1차 발굴 시에도 소수의 봉니가 출토되었으나 낙랑군 평양설과 연결되는 자료는 출토되지 않았다.

7) 세키노다다시가 수집한 낙랑봉니 관련자료의 검토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1918년에 중국에서 봉니를 구입하여 평양에 가져온 것은 낙랑유적을 최초로 발굴한 세키노다다시였다. 수집가들로 부터 봉니 출토정황을 청취하고 그 유물을 총독부박물관이 구입하도록 주선하면서 관련 자료들이 세키노에게 몰린 정황도 확인된다. 낙랑봉니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토해야 되나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왼쪽의 그림은 세키노가 1920년대에 그려둔 봉니 사용법과 관련된 도면이다. 거연한 간과 함께 발굴된 봉니자료, 중국내 다른 유적 출토 봉니 사례, 그리고 봉니자료 관찰을 통해서 봉니의 사용 방법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봉니 뒷면에 남은 목질흔, 그리고 노끈흔 등 만으로 봉니의 진위를 결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해진다.

8)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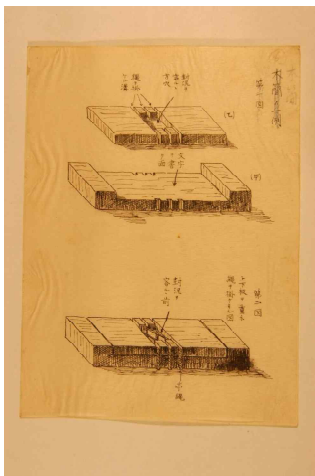


그림 14
세키노가 1928년 무렵에
그려둔 봉니 사용법

봉니가 토성리토성의 발굴과정에서 출토된 것은 분명하고 당시 조사원들은 이를 의심하지 않고 기록하고 도면으로 작성해 두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토성발굴과정에서 실제로 15점 이상의 봉니와 낙랑예관, 낙랑부귀명와당이 출토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토성리토성에서 이것이 출토되었다고 진품 봉니라고 정리하기에는 여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앞에서 살핀 낙랑유적의 조사와 봉니 발견 상황을 정리한 연표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미 민간 수집가들과 연구자들이 많은 양의 봉니를 소지하고 있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봉니가 거래되는 상황에서 발굴현장에서 봉니가 출토되었다는 사실이 더해진다면 소장가치는 더욱 폭등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즉 현장기록의 재검토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현장 발굴담당자들이 이를 위조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여겨지지만 수집가들과 골동

상들이 이를 발굴현장에 묻어두는 작업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 중에서 봉니가 안정된 층위에서 출토되는 상황을 기록한 것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 전기 구석기 날조사건은 물론 충무공 총통 위조사건에서 밝혀진 것처럼, 유적에서 발굴된 것으로 위조품을 진품 유물로 세탁한 사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봉니 역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다량으로 소지한 수집가와 골동상들이 평양에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같은 시기 일본에서도 위조된 명문기와 자료가 시중에 떠돌았으며 학계에서 논란이 되는 자료는 반드시 채집유물로 출현하여 연구자들을 유혹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낙랑붐이 일어나면서 당시 일본의 업자들은 물론 조선인들 중에서도 평양에서 위조품을 생산하였음이 드러난다. 중국에서 진품을 구입하여 낙랑산으로 둔갑시키면 가격이 폭등한 사례도 이미 알려져 있다.

결국 토성리 토성에서 출토되었다는 봉니를 근거로 총독부박물관이 구입한 다량의 봉니가 대부분 진품이라는 주장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그렇다고 하여 낙랑군평양설이 흔들리는 것은 전혀 아니다. 발굴과 출토정황이 분명한 자료 중에서 여전히 낙랑군평양설을 지지하는 것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최근 일본 구주지역에서는 중국제 거울이 집중되는 지점의 야요이 유적에서 석제 벼루와 평양지역에서 제작된 낙랑토기가 동반되어 출토되었다. 석제벼루는 검증이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발표자가 직접 출토상황을 지켜본 결과 낙랑토기는 분명히 평양산이었다. 일제강점기의 자료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군현과 삼한, 군현과 왜의 교통관계를 상기할 때 평양지역에서 생산된 토기들이 북구주지역에서 다량으로 출토되는 현상은 낙랑군평양설을 설명하는 중요한 고고학적 증거의 하나가 된다.

<참고문헌>

<국 문>

- 신숙정, 1993, 「우리나라 신석기문화 연구경향 -1945년 까지-」 『한국상고사학보』 12.
- 李盛周, 1995, 「帝國主義時代 考古學과 그 殘迹」 『古文化』 47, 韓國大學博物館協會.
- 배진성, 1999, 「金海 會峴里貝塚 층위확인조사」 『제42회 전국역사학대회발표요지』, 전국역사학대회준비위원회.
- 有光教·藤井和夫, 2000 『朝鮮古蹟研究會遺稿-慶州皇五里 第16號墳 慶州路西里 215番地古墳』 I 유네스코 東아시아문화연구센터.
- 國立中央博物館, 2001, 『鳳山 養洞里 埽室墓』 .
- 이영훈·오영찬, 2001 「낙랑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낙랑』 국립중앙박물관.
- 國立中央博物館, 2001, 『낙랑』 서울출판사.
- 李榮勳·金吉植·吳永贊, 2002 『平壤 貞柏里 8·13號墳』
- 오영찬, 2003, 「帶方郡의 郡縣支配」 『강좌 한국고대사』 10,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吳永贊, 2004,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樂浪古墳 資料와 研究現況」 『韓國古代史研究』 34, 韓國古代史學會.
- 정인성, 2006a, 「關野貞의 낙랑유적 조사·연구 재검토」 『湖南考古學報』 24, 湖南考古學會.
- 鄭仁盛, 2006b, 「복원실험을 통해 본 樂浪土器와 평기와의 제작기법」 『한국상고사학보』 제 53호, 한국상고사학회.
- 강인욱, 2007, 「藤田亮策과 日帝強占期 韓國先史考古學의 研究」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 李富五, 2007, 「신라시대 경주의 분묘와 그 유물에 대하여(今西龍)」 『新羅史學報』 10, 新羅史學會.
- 이순자, 2007,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혜정, 2007, 「일제의 평양지역 고적조사사업과 고적보존회의 활동」 『역사와 세계』 32.
- 穴澤和光·馬目順一, 2007, 「慶州瑞鳳塚의 調査-梅原考古資料と小泉顯夫の回想とづく發掘狀況の再現と考察-」 『석심정영화교수정년퇴임기념천마고고학논총』, 동 간 행위위원회.
- 穴澤和光, 2007, 「慶州路西洞'ディウインド塚'の發掘 - '梅原考古資料'による研究-」 『伊藤秋男先生古稀記念考古學論文集』 .
- 鄭仁盛·사오토메 마사히로(早乙女雅博), 2008,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 I -일제 강점기 고구

- 러 유적 조사 재검토와 關東地域 소재 고구려 유물1』, 동북아역사재단, 이현혜·정인성 외, 2008, 『일본에 있는 낙랑유물』 학연문화사.
- 강인욱, 2008, 「日帝強占期 咸鏡北道 先史時代 유적의 조사와 인식」 『한국상고사학보』 61.
- 박선애, 2008, 「1910년대 총독부의 조선문화재 조사 사업에 관하여」 『역사와 경계』 69. 사의 제도적 장치(1)-」 『嶺南考古學』 51.
- 정상우, 2008, 「1910~1915년 조선총독부 축탁(囑託)의 학술조사사업」 『역사와 현실』 68.
- 鄭仁盛 외, 2009, 『일본 소재 고구려유물』 II, 동북아역사재단.
- 정인성, 2009, 「일제강점기 『慶州古蹟保存會』와 모로가 히데오(諸鹿央雄)」 『大邱史學』 第95輯, 大邱史學會.
- 이기성, 2009, 「朝鮮總督府의 古蹟調査委員會와 古蹟及遺物保存規則 -일제강점기 고적
- 조장신, 2009, 「3·1운동 직후 잡지 『동원』의 발간과 일선동원론(日鮮同源論)」 『역사와 현실』 73.
- 박천수, 2009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와 내셔널리즘」 『동아시아의 고고학연구와 내셔널리즘』 韓國考古學會.
- 吉井秀夫, 2009, 「일본고고학사에서 본 조선고적조사사업과 조선총독부박물관-교토제국대학교고고학연구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 세미나』, 국립중앙박물관.
- 鄭仁盛 외, 2010(近刊), 『일본 소재 고구려유물』 III, 동북아역사재단.
- 윤용구, 2010 「일제강점기 낙랑유적의 조사와 이해」 『일제강점기와 우리 문화유산의 오늘』 한국고대학회.
- 이기성, 2010 「일제강점기 『石器時代』의 조사와 인식」 『일제강점기와 우리 문화유산의 오늘』 한국고대학회.

〈日 文〉

- 朝鮮總督府, 1915, 『朝鮮古蹟圖譜1』
- 今西龍, 1933, 『新羅史研究』
- 關野貞, 1941, 『朝鮮の建築と芸術』 關野貞記念事業會.
- 藤田亮策, 1948, 『朝鮮考古學研究』 高桐書院.
- 藤田亮策, 1953, 『朝鮮考古學研究』 高桐書院.

- 西川宏, 1970, 「日本帝国主義下における朝鮮考古学の形成」 『朝鮮史研究會論文集』 第 7集.
- 小泉顕夫, 1986 『朝鮮古代遺跡の遍歴』 六興出版.
- 外村 大, 2005 「朝鮮總督府の古蹟調査保存事業と朝鮮民衆」 『コロニアリズムと朝鮮文化』, 早稲田大學朝鮮文化研究所.
- 有光教一, 2007 『朝鮮考古学の七十五年』 昭和堂.
- 早乙女雅博, 2010 「植民地期の朝鮮考古學」 『月刊 考古學ジャーナル』 月刊 考古學ジャーナル編輯委員會.
- 高久健二, 2010 「植民地期における樂浪郡の考古学史」 『月刊 考古學ジャーナル』 月刊 考古學ジャーナル編輯委員會.
- 吉井秀夫, 2010 「植民地時代慶州における古蹟調査事業」 『月刊 考古學ジャーナル』 月刊 考古學ジャーナル編輯委員會.
- 早乙女雅博, 2010 「植民地期の朝鮮考古學」 『月刊 考古學ジャーナル』 月刊 考古學ジャーナル編輯委員會.
- 高橋, 2010 「朝鮮考古学の始まりと日本考古学」 『月刊 考古學ジャーナル』 月刊 考古學ジャーナル編輯委員會.

* 이 글은 발표자가 이전에 발표한 내용을 크게 참고하여 봉니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여 크게 고쳐 쓴 것이다. 발표문이라 참고문헌의 인용 등에서 분명하지 않은 부분과 누락이 있다. 그 책임은 발표자에게 있으며 추후 보완할 것이다.

<발표 4>

한군현의 문헌기록과 고고학자료 비교

복기대 (인하대 융합고고학과)

한군현의 문헌기록과 고고학자료 비교

- 낙랑군을 중심으로 -

복기대 (인하대 융합고고학과)

1. 머리말

조선시대 몇몇 학자들이 제기한 ‘조선의 평양에 한의 낙랑군이 있었다’는 주장이 1910년대 일본 학자들이 중국계 유물 몇 점을 근거로 주장한 ‘한반도 중부지역이 漢의 영토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설로 이어지면서 ‘한국사의 기반은 만주지역이다’라는 통설은 조용히 공식문서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흐르면서 1960년대에 들면서 역사학계 일각에서는 한의 영토로 대변되는 낙랑군이 한반도에 없었다는 주장을 다시 제기하였다. 이렇게 작은 낙숫물처럼 시작된 낙랑군의 위치비정 문제는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이제는 기존의 주장에 대비되는 하나의 큰 물줄기로 성장하게 되었다.¹⁾ 그러면서 이 낙랑군의 위치 논쟁은 전체 한국사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이며, 학문적인 논쟁을 넘어 이념적인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심지어는 국가행정기관에까지 그 사실여부를 가려달라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1) 첫 번째 물줄기는 학계의 대체적인 입장으로 일본학자들이 확정해놓은 한반도에 낙랑이 있었다는 설을 지지하거나 인정한다. 이와 다른 줄기는 일반시민들이 자발적인 역사공부를 하면서 판단한 지식을 근거로 한국 전통사학에서 주장하는 입장인 낙랑군은 만주지역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다다른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이 한사군 문제 속에는 즉 ‘역사는 곧 안보’라는 동아시아의 특수상황에서 이 문제를 잘못 다루면 과거 백 년 전의 일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트라우마’가 작용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글쓴이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비켜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고 많은 고민을 하였고,²⁾ 그간의 낙랑 관련 연구사를 되짚어 보았다. 그 결과 한 나라의 작은 행정구역(낙랑)에 대한 연구가 제목으로만 확인해보아도 거의 1,000여 편에 가까운 업적들이 있었다.³⁾ 그동안 낙랑연구에 큰 영향을 준 중요논문을 선택적으로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낙랑을 연구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 문헌자료들을 시대적으로 꼼꼼하게 분석하지 않았다. 낙랑군은 기원전 108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문헌기록이 풍부하게 남아 있다. 그러므로 문헌기록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누구도 인정하는 역사연구방법에 있어서 기본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

둘째, 낙랑군은 중국 서한시대부터 중국 영토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중국사의 입장에서 연구해야 했는데, 한국학계에서는 중국사에서 다루지 않고 한국사 입장에서 다루었다.⁴⁾

셋째, 고고학 자료를 역사해석에 활용하는데 있어, 고고학의 기본원칙을 무시하였다. 고정된 근거가 무시되고 이동이 가능한 유물이 우선 된 것이다.

넷째, 고고학 자료를 활용하면서 ‘교역’의 존재에 대한 가능성이 무시되었다. 100년전 실증사학에서는 교역이 충분히 무시될 수 있었지만 적어도 1980년대 이후는 교역의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연구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4가지는 낙랑군 연구에서 중심축이 되는 점들이지만 세밀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되는 혼란을 야기하였다. 이에 글쓴이는 상기 4가지 사실들을 중심으로 낙랑군 문제를 접근해보고자 한다.⁵⁾

2) 글쓴이는 현재 고구려시기 평양위치에 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과제에는 한사군문제를 풀어야 하는 단계가 있다. 그러므로 한사군문제를 비켜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3) 동아시아 역사에서 이런 고대 행정구역에 대한 대규모 연구는 없다.

4) 중국학계나 일본학계는 중국사 입장에서 한사군을 연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응용하는데 있어 중국학계나 일본학계는 과감하게 한국사의 출발을 중국사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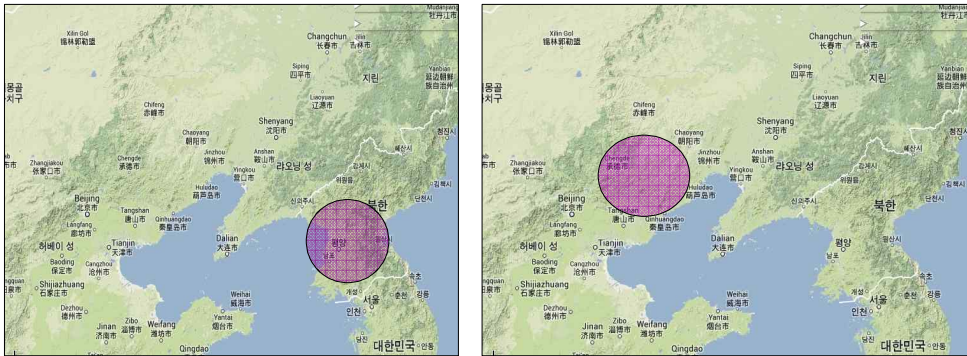
5) 글쓴이 역시 과거에 낙랑군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다. 당시 발표한 것은 중국학계에서 발굴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인데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북기대, 『臨屯太守章 封泥를 통해 본 漢四郡의 위치』, 『백산학보』 61, 백산학회, 2001.

이 글에서 활용하는 사료들은 주로 중국사료를 우선으로 한다. 그 이유는 한사군은 중국의 행정구역이었기 때문에 중국사료에 가장 잘 남아 있다. 그러므로 중국사료를 우선으로 한다.

2. 한사군의 인식

현재 동아시아 학계에서 한사군의 위치에 대한 견해는 두 방향에서 연구되고 있다. 아래의 지도에 나타난 것처럼 한사군의 위치에 대한 양 견해의 차이는 아래 지도와 같다. 현대의 동북아시아 역사는 두 견해 중 ①의 견해를 축으로 짜여있다.



① 한사군 한반도설

② 한사군 요서설

[그림 1] 학설에 따른 한사군 위치

위와 같은 정반대의 두 견해들이 제기된 배경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 분석을 위해 먼저 중국과 한국의 사료부터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⁶⁾

6) 시간 관계상 正史 위주로 분석하였다.

관련기록의 검토

한사군은 중국의 행정구역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기록에 잘 남아있다. 이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사 25사의 기록이 우선이다. 그러므로 먼저 중국기록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1) 중국 ‘기록’ 검토

중국 정사에 실린 ‘낙랑’에 관한 기록들을 확인한 결과 서한부터 남북조시대까지 낙랑군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시대별로 ‘낙선군’이라고 부르거나 ‘낙랑’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이 낙랑의 행정 책임자도 ‘태수’, ‘왕’ 등으로 각 시대별로 달리 불렀다.

연(燕)의 땅은 미성(尾星)과 기성(箕星)의 분야(分野)이다. 무왕(武王)이 은(殷)을 평정하고 소공(召公)을 연에 봉하였다. 그 후 36세(世)가 되어 6국과 더불어 모두 왕을 칭하였다. 동으로 어양(漁陽), 우북평(右北平), 요서(遼西), 요동(遼東)이 있고, 서로는 상곡(上谷), 대군(代郡), 안문(雁門)이 있으며, 남으로 탁군(涿郡)의 역(易), 용성(容城), 범양(范陽)을 얻고, 북으로 신성(新城), 고안(故安), 탁현(涿縣), 양향(良鄉), 신창(新昌) 및 발해(勃海)의 안차(安次)를 얻는데, 모두 연의 부분이다. 낙랑, 현토도 마땅히 속한다.⁷⁾

낙랑군 한무제 원봉 3년에 설치하였다. 왕망은 ‘낙선(樂鮮)’이라고 하였다. 유주에 속한다. 62,812호(戶), 46,748명이다. 운장(雲鄣)이 있다. 25현(縣)으로 조선, 남한(誦邯), 패수 물은 서쪽으로 증(增)의 땅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왕망은 ‘낙선정(樂鮮亭)’이라고 하였다. 함자(含資) 대수의 서쪽 대방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점제(黏蟬), 수성(遂成), 증지(增地) 왕망은 증토(증토)라 하였다. 대방, 사망(駟望), 해명(海冥) 왕망은 해환(海桓)이라고 하였다. 열구, 장잠(長岑), 둔유(屯有), 소명(昭明) 남부도위의 치소이다. 누방(鑊方), 제계(提奚), 혼미(渾彌), 탄열(吞列) 분려산(分黎山)을 나누며, 열수가 나오는 곳이다.

7) 『史記』, 列國分野.

서쪽으로 점제(黏蟬)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가며 820리를 흐른다. 동이(東暉), 불이(不而) 동부도위의 치소이다. 잠대(蠶臺), 화려(華麗), 사두매(邪頭昧), 전막(前莫), 부조(夫租)이다.⁸⁾

낙랑군은 무제때 설치하였다. 낙양(雒陽) 동쪽 5천리이다. 18성, 61,492호, 257,050명이다.⁹⁾

환(桓)·영(靈)의 말기에, 한예(韓濊)가 강성하여, 군현(郡縣)이 제어할 수 없었고, 인민 다수가 한국(韓國)으로 유입하였다. 건안 중에, 공손강(公孫康)이 현(縣)이 있는 남쪽의 황무지에 분할·주둔하여 대방군(帶方郡)으로 삼았다. 공손모(公孫模)·장창(張敞) 등을 파견해서 유민을 수용·결집하고, 군사를 일으켜 한예를 정벌하니, 옛 인민이 조금 탈출하였다. 이 뒤에 왜한(倭韓)이 드디어 대방에 소속되었다. 경초 중에, 명제(明帝)가 대방태수 유흔(劉昕)·낙랑태수 선어사(鮮於嗣)를 몰래 파견하여 바다를 건너 2군(郡)을 평정하고, 여러 한국 신지(臣智)에게 읍군(邑君)의 인수(印綬)를 추가로 하사하였으며, 그 다음은 읍장(邑長)을 수여하였다. 그 풍속이 의책(衣幘)을 좋아하였는데, 하호(下戶)가 군(郡)에 가서 조공·알현함에 모두가 의책을 가장하였으며, 스스로 인수·의책을 착용한 것이 천 여 인이었다. 부종사(部從事) 오림(吳林)은 낙랑이 본래 한국을 통치하였으므로, 진한 8국을 분할하여 낙랑에게 수여하였다. 서리의 통역이 전달됨에 차이기 생겨서, 신지가 한의 분노를 격발하였고, 대방군 기리영(岐離營)을 공격하였다. 이때 태수 궁준(弓遵)·낙랑태수 유무(劉茂)가 군사를 일으켜 정벌하였고, 준이 전사하였으며, 2군이 드디어 한을 멸망시켰다.¹⁰⁾

평주(平州)는, 우공 기주의 강역을 경계로 한다. 주(周)에서 유주(幽州) 경계가 되었고, 한(漢)에서 우북평군(右北平郡)에 소속시켰으며, 후한(後漢) 말에 공손탁(公孫度)이 스스로 평주목(平州牧)이라고 호칭하였다. 그 아들 강(康), 강의 아들 문의(文懿)에 미쳐 아울러 요동(遼東)을 제멋대로 점거하니, 동이(東夷) 9종족[種]이 모두 복종하고 섬겼다. 위

8) 『漢書』, 卷二十八下 地理志第八下.

9) 『後漢書』, 志第二十三 郡國五.

10) 『三國志』, 卷三十 魏書三十 烏丸鮮卑東夷傳 第三十

(魏)가 동이교위(東夷校尉)를 설치하여, 양평(襄平)에 거처하였는데, 요동·창려(昌黎)·현토·대방(帶方)·낙랑 5군을 분할하여 평주(平州)로 삼았다. 뒤 다시 통합하여 유주(幽州)로 삼았다. 문의가 멸망한 뒤에, 호동이교위(護東夷校尉)가 있었는데, 양평에 거처하였다. 함녕 2년 10월에, 창려·요동·현토·대방·낙랑 등 군국(郡國) 다섯을 분할하여 평주(平州)를 설치하였는데, 통할하는 현(縣)이 26이고, 호(戶)가 18,100이었다. 창려군(昌黎郡)은 한(漢)이 요동(遼東)에 소속시키고, 국도위(國都尉)에 예속시켰으며, 위(魏)가 군(郡)을 설치하였다. 통할하는 현(縣)이 2이고, 호(戶)가 900이다.¹¹⁾

기록에 나타난 낙랑군의 위치를 볼 때 현재 한서의 기록에 약간 의아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중국 하북성 북부에서 요녕성 서남부 지역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다가 『당서』가 쓰일 무렵부터 낙랑군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서』가 기록될 당시부터는 평양으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다

2) 한국 ‘사서’의 기록

한국 사서에서 낙랑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나오는 것은 『삼국사기』이므로 이 책에 기록된 낙랑관련 기록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30년 여름 4월 기해(己亥)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낙랑(樂浪)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침공해 왔다가 변경 사람들이 밤에도 집의 문빛장을 걸지 않고 노적가리가 들에 뒤덮여 있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기를 “이 지방 백성들은 서로 도둑질을 하지 않으니 [신라는] 도(道)가 있는 나라라 할 수 있다. 우리들이 몰래 군대를 내어 습격하는 것은 도둑질과 다르지 않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라고 하고 물러나 돌아갔다.¹²⁾

11년 왜인이 병선 백여 척을 보내 해변의 민호(民戶)를 약탈하자 6부의 군세 병사들을 보내 이를 막았다. 낙랑은 내부가 비었다고 여겨 매우 급하게 금성(金城)을 공격해 왔다.¹³⁾

11) 『晉書』, 卷十四 志第四 地理上.

12) 『三國史記』, 卷 第一 新羅本紀 第一 始祖 赫居世居西干 三十年.

13) 『三國史記』, 卷 第一 新羅本紀 第一 南解次次雄 十一年.

13년 가을 8월에 낙랑이 북쪽 변경에 쳐들어와 타산성(朶山城)을 공격해 함락시켰다.¹⁴⁾

여름 4월에 왕자 호동(好童)이 옥저(沃沮)로 놀러 갔을 때 낙랑왕(樂浪王) 최리(崔理)가 출행하였다가 그를 보고서 묻기를 “그대의 얼굴을 보니 보통사람이 아니구나. 어찌 북국신왕(神王)의 아들이 아니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함께 돌아와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다. 후에 호동이 나라로 돌아와 몰래 사람을 보내 최씨 딸에게 알려서 말하기를 “만일 그대 나라의 무기고에 들어가 북과 뿔피리를 찢고 부수면 내가 예로써 맞이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맞이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이에 앞서 낙랑에는 북과 뿔피리가 있어서 적의 병력이 침입하면 저절로 울었다. 그런 까닭에 이를 부수게 한 것이다. ¹⁵⁾

20년 왕이 낙랑을 습격하여 멸하였다.¹⁶⁾

여름 5월에 왕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동쪽에는 낙랑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다. 그들이 변경을 침공하여 편안한 날이 없다. 하물며 요즈음에는 요사스러운 징조가 자주 보이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으며, 나라의 형세가 불안하다. 반드시 도움을 옮겨야겠다. 내가 어제 순행하는 중에 한수(漢水)의 남쪽을 보니, 토양이 비옥하였다. 따라서 그곳으로 도움을 옮겨 영원히 평안할 계획을 세워야겠다."¹⁷⁾

살펴보건대 《한서(漢書)》와 《후한서(後漢書)》에는 “낙랑군(樂浪郡)은 낙양(洛陽) 동북 5천리”라 하였고, 주(主)에서는 “유주(幽州)에 속하여, 옛 조선국(朝鮮國)이다.”라 말하였다.¹⁸⁾

이 기록들을 보면 한국 사서에서는 낙랑에 관한 인식이 매우 혼란스럽다. 특히 백제와 낙랑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면 낙랑은 백제의 동쪽에 있고 말갈은 백제의 북쪽에

14) 『三國史記』, 卷 第一 新羅本紀 第一 儒理尼師今 十三年.

15) 『三國史記』, 卷 第十四 高句麗本紀 第二 大武神王 十五年.

16) 『三國史記』, 卷 第十四 高句麗本紀 第二 大武神王 二十年.

17) 『三國史記』, 卷第二十三 百濟本紀 第一 濫祚王 十三年.

18) 『三國史記』, 卷第三十四 雜志 第三 地理一 新羅.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은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풀어 보면 다음과 같다. 백제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반도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동쪽에 낙랑이 있었다면 현재 강원도 어디쯤에 낙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백제의 북쪽에 말갈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 기록을 그대로 믿으면 바로 평양지역이나 그 이북쯤에 말갈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낙랑은 강원도 어디에 박혀있는 세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낙랑이 신라를 침략하고 하는 일들이 충분히 설명된다. 그런데 중국사서에 나오는 기록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즉 유주의 넓은 땅에 낙랑이 있었는데, 유주를 한반도 강원도까지 가져올 방법이 없는 것이다. 또한 중앙 정부와 낙랑은 자주 왕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강원도에 있으면 왕래는 불가능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삼국사기』 신라기나 백제기에 실린 낙랑문제는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 이외에 『삼국유사』에도 낙랑군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다. 이 기사는 위치적인 내용보다는 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외에 중요사서로 볼 수 있는 『삼국사기』 「지리지」와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전반부에는 한사군 관련기록이 없다. 심지어 조선시대 전기에는 고구려 도읍이었던 평양의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만약 한반도 평양지역에 낙랑군이 있었다면 『고려사』에서는 충분히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려의 도읍이 개성이었는데 개성과 평양은 먼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설이라도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려사』에는 전혀 낙랑에 관한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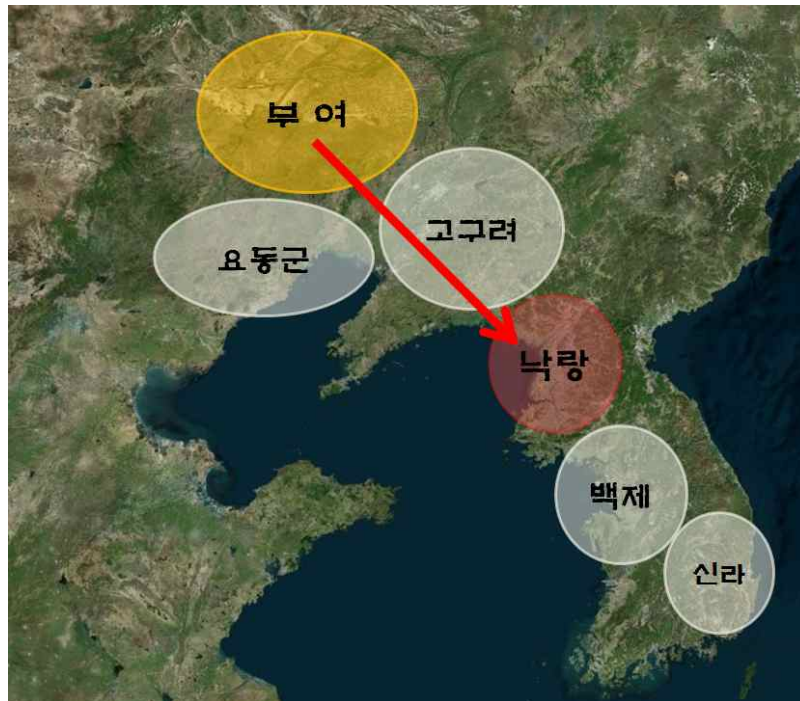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고려시대 당시에는 한반도에 평양이라는 지명이 없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한반도 지역에 평양이라는 지명이 있었으면 반드시 낙랑군과 연결을 시켰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평양이라는 지명이 없었기 때문에 낙랑군도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 관련 기록에는 낙랑군 관련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다른 문헌들도 낙랑문제는 통일된 기록이 없다. 각자의 주장을 할 뿐이다. 이런 현상들은 한반도 자체내에서 고증이 어렵기에 그렇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기사들은 향후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중국사료를 우선하기로 한다.

3) 한사군 위치 관련 기록 검토

안제 영초 5년(서기 111)에 이르러 부여 왕이 드디어 보병과 기병 7~8천명을 거느리고 낙랑을 치고 백성들을 살상하였다.¹⁹⁾

이 기록은 부여가 낙랑을 침공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이를 보면 낙랑군과 부여는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왜냐하면 전쟁은 바로 이웃나라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를 통과하여 전쟁을 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므로 이 기록을 보면 부여와 낙랑군은 이웃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현재 부여를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부여의 위치를 설명하는데 부여가 발해만 북안이나 한반도로 주장하는 연구자는 어느 누구도 없으며, 대부분이 현재 중국 요녕성 서북부에 있었다고 말한다.



[그림 2] 현행 한사군 인식에 따른 부여의 낙랑 공격루트 추정도

19)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夫餘傳.

통상적으로 부여는 현재 중국 요녕성 서북부와 길림성남서부에 있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런 인식이라면 부여가 낙랑을 공격하려면 고구려를 통과하여 낙랑을 공격하는 루트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 루트는 바로 부여가 고구려를 통과해서 낙랑을 공격해야 하는 공격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가능하지 않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여가 고구려를 통과하여 낙랑을 공격하려고 했다면 고구려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당시 고구려는 태조왕때인데 이때 고구려와 부여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런데 고구려가 부여군대를 통과시킬리 만무하다.²⁰⁾ 그렇다면 부여와 낙랑은 붙어 있었다는 것이다. 가능한 것은 아래 지도와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림 3] 부여의 한사군 공격 예상로

중국은 한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오랫동안 혼란을 겪는다. 이 혼란과정에서 황하 이북을 통일한 왕조는 위나라인데, 이 나라를 일반적으로 북위라 부른다. 북위시대의 역사서는 『北史』로, 이 책에도 낙랑군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 기록 중 낙랑군이 교치를 하는 기록이 있다.

20) 이 시기는 고구려 태조왕 때로 그는 고구려의 영역을 넓히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 후한의 요동군을 계속하여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시기에 부여와 낙랑이 전쟁을 하였는데 이때 혹자는 이때 낙랑군이 이미 현재 중국 요서지역 어디로 교치가 되었을 때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천관우씨는 지금 평양에서 지금 요녕성 의현근처로 교치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만약 그렇다면 고구려가 요동군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낙랑을 공격해야 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 그런데 그런 기록은 없다. 이로 봐서 당시 고구려와 가까운 오늘날 요녕성 의현근처는 낙랑군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北史地理志》

영주		<p>營州, 治和龍城. 太延二年為鎮, 真君五年改置. 永安末陷, 天平初復. 領郡六, 縣十四. 戶一千二十一, 口四千六百六十四.</p>	<p>영주(營州), 화룡성(和龍城)에서 다스린다. 태연(太延) 2년에 진(鎭)이 되었고 진군(真君) 5년에 고쳐서 설치하였다. 영안(永安) 말에 함락되어 천평(天平) 초에 다시 회복했다. 다스리는 군은 6개이고 현은 14개이다. 가구수는 1021이며 인구수는 1664명이다.</p>
	창려군(昌黎郡)	<p>昌黎郡, 晉分遼東置, 真君八年併冀陽, 屬焉. 領縣三, 戶二百一, 口九百一十八. 龍城, 真君八年併柳城昌黎棘城屬焉. 有堯祠 榆頓城 狼水. 廣興, 真君八年併徒何 永樂 燕昌 屬焉. 有鷄鳴山 石城 大柳城. 定荒, 正光未置. 有鹿頭山 松山.</p>	<p>창려군(昌黎郡), 진(晉)에서 료동(遼東)을 나누어 설치하였고, 진군(真君) 8년에 기양(冀陽)을 병합하여 속하였다. 다스리는 현은 3개이고 가구수는 201이며 인구수는 918명이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룡성현(龍城縣), 진군(真君) 8년에 류성(柳城), 창려(昌黎), 극성(棘城)을 병합하여 속하게 하였다. 묘사(堯祠)와 유둔성(榆頓城)과 랑수(狼水)가 있다. 2) 광흥현(廣興縣), 진군(真君) 8년에 도하(徒何) 영악(永樂) 연창(燕昌)을 병합하여 속하게 하였다. 계명산(鷄鳴山)과 석성(石城)과 대류성(大柳城)이 있다. 3) 정황현(定荒縣), 정광(正光) 말년에 설치하였다. 룡두산(鹿頭山)과 송산(松山)이 있다.
	건덕군(建德郡)	<p>建德郡, 真君八年置治白狼城. 領縣三, 戶二百, 口七百九十三. 石城, 前漢屬右北平, 後屬. 真君八年併遼陽 路 大樂 屬焉. 有白鹿山祠. 廣都, 真君八年併白狼建德望平屬焉有金紫城. 陽武, 正光未置有三合城.</p>	<p>건덕군(建德郡), 진군(真君) 8년에 설치하였고 백랑성(白狼城)에서 다스린다. 다스리는 현은 3개이고 가구수는 200이며 인구수는 793명이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성현(石城縣), 전한(前漢) 때에는 우북평군(右北平郡)에 속했고 후에 속했다. 진군(真君) 8년에 료양(遼陽)과 로(路)와 대락(大樂)을 병합하여 속하게 하였다. 백록산사(白鹿山祠)가 있다. 2) 광도현(廣都縣), 진군(真君) 8년에 백랑(白狼) 건덕(建德) 망평(望平)을 병합하여 속하게 하였다. 금자성(金紫城)이 있다. 3) 양무현(陽武縣), 정광(正光) 말년에 설치하였다. 삼합성(三合城)이

			있다.
	요동군	遼東郡, 秦置, 後罷. 正光中復. 治固都城. 領縣二, 戶一百三十一, 口八百五十五. 襄平, 二漢晉屬後罷正光中復有青山. 新昌, 二漢晉屬後罷正光中復.	요동군(遼東郡), 진(秦)에서 설치하였고 후에 폐하였다. 정광(正光)년 간에 다시 설치하였다. 고도성(固都城)에서 다스린다. 다스리는 현은 2개이고 가구수는 131이며 인구수는 855명이다. 1) 양평현(襄平縣), 두 한(漢)과 진(晉)에 속했으며 후에 폐하였다. 정광(正光)에 다시 설치하였다. 청산(青山)이 있다. 2) 신창현(新昌縣), 두 한(漢)과 진(晉)에 속했으며 후에 폐하였다. 정광(正光) 년간에 다시 설치하였다.
	낙랑군(樂浪郡)	樂浪郡, 前漢武帝置二漢晉曰樂浪後改罷正光末復治連城. 領縣二, 戶二百一十九, 口一千八. 永洛, 正光未置有鳥山. 帶方, 二漢屬晉屬帶方後罷正光末復屬.	낙랑군(樂浪郡), 전한(前漢) 무제(武帝)가 설치하였고 두 한(漢)과 진(晉)에서 낙랑(樂浪)이라 했으며 후에 고쳤다가 폐하였다. 정광(正光) 말년에 다시 설치하였다. 련성(連城)에서 다스린다. 다스리는 현은 2개이고 가구수는 219이고 인구수는 1008명이다. 1) 영락현(永洛縣), 정광(正光) 말년에 설치하였다. 조산(鳥山)이 있다. 2) 대방현(帶方縣), 두 한(漢)에 속했고 진(晉)에서는 대방군(帶方郡)에 속했으며 후에 폐하였다가 정광(正光) 말년에 다시 속하였다.
	기양군(冀陽郡)	冀陽郡, 真君八年併昌黎武定五年復. 領縣二, 戶八十九, 口二百九十六. 平剛. 柳城.	기양군(冀陽郡), 진군(真君) 8년에 설치하였고 창려(昌黎)를 병합하였으며 무정(武定) 5년에 다시 되돌렸다. 다스리는 현은 2개이고 가구수는 89이며 인구수는 296명이다. 1) 평강현(平剛縣). 2) 류성현(柳城縣)
	영구군(營丘郡)	營丘郡, 正光未置. 領縣二, 戶一百八十二, 口七百九十四. 富平, 正光未置. 永安, 正光未置.	영구군(營丘郡), 정광(正光) 말년에 설치하였다. 다스리는 현은 2개이고 가구수는 182이며 인구수는 794명이다. 1) 부평현(富平縣), 정광(正光) 말년에 설치하였다. 2) 영안현(永安縣), 정광(正光) 말년에 설치하였다.
평주(平州)		平州, 晉置, 治肥如城. 領郡二, 縣	평주(平州), 진(晉)에서 설치하였고

		五. 戶九百七十三, 口三千七百四十一.	비여성(肥如城)에서 다스린다. 다스리는 군은 2개이고 다스리는 현은 5개이다. 가구수는 973이며 인구수는 3741명이다.
	요서군(遼西郡)	遼西郡, 秦置. 領縣三, 戶五百三十七, 口一千九百五. 肥如, 二漢 晉屬. 有 孤竹山祠 褐石 武王祠 令支城 黃山 濡河. 陽樂, 二漢 晉屬. 真君七年併令支 令資屬焉. 有武歷山 覆舟山 林榆山 太真山. 海陽, 二漢晉屬. 有橫山 新婦山 清水.	료서군(遼西郡), 진(秦)에서 설치하였다. 다스리는 현은 3개이고 가구수는 537이며 인구수는 1905명이다. 1) 비여현(肥如縣), 두 한(漢)과 진(晉)에 속했다. 고죽산사(孤竹山祠)와 갈석(褐石)과 무왕사(武王祠)와 령지성(令支城)과 황산(黃山) 유하(濡河)가 있다. 2) 양락현(陽樂縣), 두 한(漢)과 진(晉)에 속했다. 진군(真君) 7년에 령지(令支)와 령자(令資)를 병합하여 속하게 하였다. 무력산(武歷山)과 복주산(覆舟山)과 름유산(林榆山)과 태진산(太真山)이 있다. 3) 해양현(海陽縣), 두 한(漢)과 진(晉)에 속했다. 횡산(橫山)과 신부산(新婦山)과 청수(清水)가 있다.
	북평군(北平郡)	北平郡, 秦置. 領縣二, 戶四百三十, 口一千八百三十六. 朝鮮, 二漢晉屬樂浪後罷延和元年徙朝鮮民於肥如復置屬焉. 新昌, 前漢屬涿後漢晉屬遼東後屬有盧龍山.	북평군(北平郡), 진(秦)에서 설치하였다. 다스리는 현은 2개이고 가구수는 130이며 인구수는 1836명이다. 1) 조선현(朝鮮縣), 두 한(漢)과 진(晉)에서는 낙랑(樂浪)에 속했으며 후에 폐하였다. 연화(延和) 원년에 조선(朝鮮) 사람을 비여(肥如)로 옮겨 다시 설치하여 속하게 하였다. 2) 신창현(新昌縣), 전한(前漢)에서 탁군(涿郡)에 속하였고 후한(後漢)과 진(晉)에서는 료동군(遼東郡)에 속하였다가 후에 속하였다. 료룡산(盧龍山)이 있다.
남영주			
	남영주(南營州)	南營州, 孝昌中, 營州陷, 永熙二年置. 寄治英雄城. 領郡五. 縣十一戶一千八百一十三, 口九千三十六.	남영주(南營州), 효창(孝昌) 년간에 영주(營州)가 함몰되었고, 영희(永熙) 2년 설치하였다. 영웅성(英雄城)에 맡기어 통치하였다. 5개의 군을 다스린다. 현은 11개이고 가구수는 1813이며 인구수는 9036이다.
	창려군	昌黎郡, 永興中置. 領縣三 戶五百九. 口二千六百五十八.	창려군(昌黎郡), 영흥(永興) 년간에 설치하였다. 다스리는 현은 3개이고 가구수는

		龍城, 永熙中置. 廣興, 永熙中置. 定荒, 興和中置.	509이며 인구수는 2658명이다. 1) 룡성현(龍城縣), 영희(永熙) 년 간에 설치하였다. 2) 광흥현(廣興縣), 영희(永熙) 년 간에 설치하였다. 3) 정황현(定荒縣), 흥화(興和) 년 간에 설치하였다.
	요동군	遼東郡, 永熙中置. 嶺縣二. 戶五百六十五, 口二千六百三十四. 太平, 永熙中置. 新昌, 永熙中置.	료동군(遼東郡), 영희(永熙) 년간에 설치하였다. 다스리는 현은 2개이고 가구수는 565이며 인구수는 2634명이다. 1) 태평현(太平縣), 영희(永熙) 년 간에 설치하였다. 2) 신창현(新昌縣), 영희(永熙) 년 간에 설치하였다..
	건덕군	建德郡, 永熙中置. 嶺縣二, 戶一百七十八, 口八百一十 四. 石城, 永熙中置. 廣都, 興和中置.	건덕군(建德郡), 영희(永熙) 년간에 설치하였다. 다스리는 현은 2개이고 가구수는 178이며 인구수는 814명이다. 1) 석성현(石城縣), 영희(永熙) 년 간에 설치하였다. 2) 광도현(廣都縣), 흥화(興和) 년 간에 설치하였다.
	영구군	營邱郡, 天平四年置. 嶺縣三, 戶五百一十二, 口二千七百 二十七. 富平, 天平四年置. 永安, 元象中置. 帶方, 元象中置.	영구군(營邱郡), 천평(天平) 4년에 설치하였다. 다스리는 현은 3개이고 가구수는 512이고 인구수는 2727명이다. 1) 부평현(富平縣), 천평(天平) 4년 에 설치하였다. 2) 영안현(永安縣), 원상(元象) 년 간에 설치하였다. 3) 대방현(帶方縣), 원상(元象) 년 간에 설치하였다.
	낙랑군	樂浪郡, 天平四年置. 嶺縣一, 戶四十九, 口二百三. 永樂, 興和二年置.	낙랑군(樂浪郡), 천평(天平) 4년에 설치하였다. 다스리는 현은 1개이고 가구수는 49이며 인구수는 203이다. 1) 영락현(永樂縣), 흥화(興和) 2년 에 설치하였다.
4. 동연주(東燕州)		東燕州, 太和中, 分恒州東部置燕州, 孝昌中陷, 天平中嶺流民置, 寄治幽 州宣都城. 嶺郡三, 縣六. 戶一千七百六十六, 口六千三百一十七.	동연주(東燕州), 태화(太和) 년간에 항주(恒州) 동부(東部)을 나누어 연 주(燕州)를 설치하였는데 효창(孝 昌) 년간에 함락되었으며, 천평(天 平) 년간에 류민을 다스려 설치하 였다. 유주(幽州) 선도성(宣都城) 에 맡기어 다스린다. 다스리는 군 은 3개이고 현은 6개이다. 가구수

			는 1766이고 인구수는 6316명이다.
	평창군	平昌郡, 孝昌中陷, 天平中置. 嶺縣二, 戶四百五十, 口一千七百一十三. 萬言, 天平中置. 昌平, 天平中置. 有龍泉.	평창군(平昌郡), 효창(孝昌)년간에 함락되었고 천평(天平) 년간에 설치하였다. 다스리는 현은 2개이고 가구수는 450이며 인구수는 1713명이다. 1) 만언현(萬言縣), 천평(天平) 년간에 설치하였다. 2) 창평현(昌平縣), 천평(天平) 년간에 설치하였다. 룡천(龍泉)이 있다.
	상곡군	上谷郡, 天平中置. 嶺縣二, 戶九百四十二, 口三千九十三. 平舒, 孝昌中陷, 天平中置. 居庸, 孝昌中陷, 天平中置.	상곡군(上谷郡), 천평(天平) 년간에 설치하였다. 다스리는 현은 2개이고 가구수는 942이며 인구수는 3093명이다. 1) 평서현(平舒縣), 효창(孝昌) 년간에 함락되었고, 천평(天平) 년간에 설치하였다. 2) 거용현(居庸縣), 효창(孝昌) 년간에 함락되었고, 천평(天平) 년간에 설치하였다.
	편성군	徧城郡, 武定元年置. 嶺縣二, 戶三百七十四, 口一千五百一十三. 廣武, 武定元年置. 沃野, 武定元年置	편성군(徧城郡), 무정(武定) 원년에 설치하였다. 다스리는 현은 2개이고 가구수는 374이며 인구수는 1513명이다. 1) 광무현(廣武縣), 무정(武定) 원년에 설치하였다. 2) 옥야현(沃野縣), 무정(武定) 원년에 설치하였다.

이 기록들은 낙랑군이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즉, 낙랑군은 한 무제 때 설치되었고, 북위 때에는 영주의 속군으로 명칭이 낙랑군으로 바뀌었으며 북위가 어떤 원인에서인지 행정구역이 변화면서 영주가 남영주로 바뀌었는데, 이 때 낙랑군도 이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중국 역사서에는 행정구역으로 낙랑군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북위의 영토는 지금의 중국 요녕성 서부지역이 동쪽 경계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다.

이 한사군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세월이 흐른 뒤 당나라 때 기록부터이다. 낙랑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된 것은 당나라 때 사마징이 『사기색은』

을 지으면서 『태강지리지』를 인용하면서부터이다. 이 『태강지리지』에 기록된 만리장성의 동단을 밝히는 과정에서 낙랑군의 위치를 언급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강지리지』에 전하기를 낙랑 수성현(遂城縣)에는 갈석산이 있으며 장성이 여기서 시작한다.²¹⁾

노룡은 한나라 비여현이다. 여기에 갈석산이 있는데 해안가에 우뚝 선 모양을 보고 그 이름을 삼은 것이다. 췌나라 ‘태강지리지’에 진나라가 쌓은 장성이 갈석에서 시작한다 했는데, 지금 고려의 옛 강역에 있다.²²⁾

갈석산은 한 낙랑군 수성현에 있으며 장성이 이 산에서 시작한다. 지금 장성의 동쪽 끝은 요수를 넘어 고구려로 들어가는데, 그 유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상서에 전하기를 “갈석을 오른쪽(서쪽)으로 끼고 황하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갈석은 황하 너머 바다 근처에 있으며, 지금의 북평군 남쪽 이십여리 지점이므로 고려에 있는 것은 좌갈석이 된다.²³⁾

이 기록은 당시 고구려의 경내에 갈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갈석은 두 개가 있어 ‘우갈석’은 황하하구에 있고, ‘좌갈석’은 고구려 경내에 있는데, 장성은 ‘좌갈석’에 있다는 것이다. 이 기록을 보면 당나라 시기 고구려와 당나라는 갈석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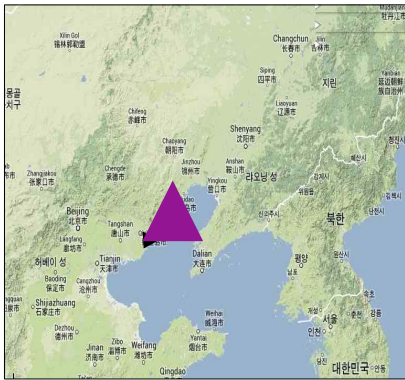
이런 기록들은 만리장성 동쪽의 시작점을 설명하면서 낙랑지역에서 시작한다고 하면서 이곳에는 갈석산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만리장성의 동쪽 시작점이 곧 낙랑지역이 되는 것이다. 만리장성의 동쪽 출발점은 오늘날 중국 하북성 진황도 부근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현재 이곳에 갈석산이 있다. 이때까지의 기록을 검토해보면 낙랑군의 위치는 현재 중국 진황도 부근으로 볼 수 있다.

21) 『史記索隱』 “太康地理志云 樂浪遂城縣有礪石山 長城所起”.

22) 杜佑, 『通典』 卷178 주군8 : “盧龍漢肥如縣. 有礪石山, 礪然而立在海旁, 故名之. 晉太康地志云, 秦築長城, 所起自礪石, 在今高麗舊界.”

23) 杜佑, 『通典』 「변방전」 ‘동이’ ‘고구려조’ : 礪石山在漢樂浪郡遂城縣, 長城起於此山. 今驗長城東截遼水而入高麗, 遺址猶存. 按尚書云: 〈夾右礪石入於河.〉右礪石即河赴海處, 在今北平郡南二十餘里, 則高麗中為左礪石.”

24) 흔히 이 기록을 무시하거나 혹은 이 사실을 동쪽으로 끌고와 맞추기도 하는데, 이 기록들은 액면 그대로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고구려 장수왕때 부터는 서쪽으로 진출하는 기록들이 매우 많은데, 언젠가부터 바로 수, 당과 고구려가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기록들이 종종 발견된다. 이를 감안해보면 위의 기록들을 모두 무시할 수는 없다.



[그림 4] 갈석산의 위치(좌)와 갈석산 전경(우)

위와 같은 인식이 지속되다가 6세기경 북위의 관리였던 역도원이 『수경주』를 저술하는데 여기에서 처음 고구려 도읍지에 낙랑군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다.²⁵⁾

“한무제 원봉 2년에, 누선장군 양복과 좌장군 순체를 파견하여 우거를 토벌하게 했다. 패수에서 우거를 격파하여 마침내 이를 멸망시켰는데, 만약 패수가 동쪽으로 흐른다면 패수를 건너지 않는다. 그 지역은 지금의 고구려 치소이다. 그래서 나는 고구려 사신을 방문하여 물어보았더니 그는 말하기를 "고구려의 도성이 패수의 북쪽에 있다"고 하였다. 그 강은 서쪽으로 흘러 옛 낙랑군 조선현을 지난다. 조선현은 낙랑군의 치소로서 서한의 무제가 설치한 것이다. 그 물은 서북으로 흐르는데 옛 지리지에는 패수가 증지현에 닿아 바다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옛날과 지금의 이러한 증거들을 살펴볼 때 차이가 있으니, 《수경》은 잘못 고증한 것이다.”

이 책이 출판된 후 중국기록들은 대부분 역도원의 주장과 비슷해진다. 당나라에 이르러 장수절이 『史記正義』를 편찬하는데, 이 책에서는 『括地志』²⁶⁾를 인용하면서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고 기록하였다.

25) 『水經註』 ‘武帝元封二年，遣樓船將軍楊僕左將軍荀彘討右渠，破渠於淇水遂滅之。若淇水東流，無渡淇水之理。其地今高句麗國治，余訪蕃使，言城在淇水之陽，其水西流逕故樂浪朝鮮縣，卽樂浪郡治，漢武帝置。而西北流。故地理志曰，淇水至增地縣入海。考之古今，於事差謬，蓋經誤證也。

26) 『括地志』는 당나라 시기인 638~642년에 당 태종의 넷째 아들인 이태가 만든 것으로 당나라 황실에서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실여부를 떠나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괄지지』에서 고려의 도읍 평양성은 본래 한나라 낙랑군 왕험성이고 또한 옛날에는 조선 땅이라 일컬었다²⁷⁾

이 기록은 『괄지지』를 인용하고 있지만, 이 『괄지지』보다 빠른 것이 역도원의 『수경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경주』를 당나라 황자인 이태가 『괄지지』를 편찬하면서 인용한 것으로 추정된다.²⁸⁾ 그 후 『사기정의』에 인용되었지만 훗날 많은 역사서에 인용이 되거나 참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²⁹⁾

고려는 부여로부터 나왔는데 별종이다. 평양에 도읍하였는데 이는 바로 한나라의 낙랑군 옛 땅으로, 경사에서 동쪽으로 5천 1백리 떨어져 있다. 동쪽으로 바다를 건너 신라에 이르고 서북쪽으로 요수를 건너 영주에 이르며 남쪽으로는 바다를 건너 백제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말갈에 이른다.³⁰⁾

고려는 본래 부여의 별종이다. 땅은 동쪽으로 바다를 넘어 신라에 이룩 남쪽으로도 바다를 넘어 백제에 이르는데 서북쪽은 요수를 건너 영주와 접하였고 북쪽은 말갈이다. 그 군주는 평양성에 거주하는데 장안성이라고도 부르며 한나라의 낙랑군이다.³¹⁾

위의 기록들을 볼 때 평양이 낙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의 동일한데, 이 평양이 어디인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북방민족이 세운 나라인 원나라 말엽에 몇 나라의 역사를 정리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遼史』이다. 이 『遼史』에도 낙랑군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다.

27) 括地志云：〈高麗都平壤城，本漢樂浪郡王險城，又古云朝鮮地也。〉

28) 이 기록을 근거하여 고구려의 평양성이 오늘날 하북성 북부라는 주장을 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너무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곳으로, 그 지역에서 고구려 도읍이 몇 백년간 존재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29) 참고로 말하면 이 『괄지지』의 저자는 당 태종의 넷째 아들인 이태인데 황자가 편찬한 『괄지지』의 내용을 일반 학자들이 무시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고구려의 평양은 오늘날의 평양은 아니다.

30) 『舊唐書』卷199上「列傳」第149上「東夷」高麗：“高麗者，出自扶餘之別種也。其國都於平壤城，即漢樂浪郡之故地，在京師東五千一百里。東渡海至於新羅，西北渡遼水至於營州，南渡海至於百濟，北至靺鞨，東西三千一百里，南北二千里。”

31) 『新唐書』卷220，「列傳」第145，「東夷」高麗：“高麗，本扶餘別種也。地東跨海距新羅，南亦跨海距百濟，西北度遼水與營州接，北靺鞨。其君居平壤城，亦謂長安城，漢樂浪郡也。”

동경도, 동경(東京) 요양부(遼陽府)

본래 조선(朝鮮) 땅이었다.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기자(箕子)를 옥중에서 풀어주고 그가 조선으로 가자 그 땅에 책봉하였다. 그가 8조 법금(法禁)을 만들어 예의를 숭상하고, 농상(農桑)을 장려하여 생활이 풍족하게 되자, 대문을 닫지 않아도 도적질하는 백성이 없었다. 40여 대를 전해 내려왔다. 연(燕)나라 때 진번(眞番)과 조선(朝鮮)에 속하였으며, 처음으로 관리를 두고 성벽을 쌓았다. 진(秦)나라 때에는 요동의 변방에 속하였다. 한나라 초에 연(燕)나라 사람 위만(衛滿)이 옛 공지(空地)에서 왕이 되었다. 무제(武帝) 원봉(元封) 3년에 조선을 평정하고 진번(眞番)·임둔(臨屯)·낙랑(樂浪)·현도(玄菟) 4군으로 삼았다. 후한 때에 청주(靑州)와 유주(幽州) 두 주에 오가며 편입되었으며, 요동(遼東)과 현도는 그 연혁이 일정하지 않았다. 한나라 말년에는 공손도(公孫度)가 이곳을 차지하여, 아들 공손강(公孫康)에게 전해지고 손자 공손연(公孫淵)이 연왕(燕王)을 자칭하고 소한(紹漢)이라 연호를 세웠으나, 위(魏)나라에 멸망되었다. 진(晉)나라가 고려(高麗: 고구려임)를 함락시키자 뒤에 모용수(慕容垂)에게 귀의하였다가 그 아들 모용보(慕容寶)가 고구려 왕 고안(高安)을 평주목사(平州牧使)로 삼아 그곳에 살게 하였다. 원위(元魏) 태무제(太武帝)가 그가 살고 있는 평양성(平壤城)으로 사신을 보내니, 요나라 동경(東京)이 본래 이곳이다.³²⁾

또한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元史』에도 이와 비슷한 기록이 있다.

동령로는 본래 고구려 평양성인데, 또 장안성이라고도 한다. 한이 조선을 멸망시키고 낙랑, 현도군을 설치하였는데, 이곳이 낙랑 땅이다. 진(晉) 의희(義熙) 후에 고구려가 처음으로 거주하기 사직하였다. 당이 고구려를 정벌하자 평양은 그 나라 동쪽 압록강 동남쪽 천여리로 옮겨갔다. 지금 평양은 옛 평양은 아니다.³³⁾

32) 『遼史』〈지리지〉, 東京道

“東京遼陽府，本朝鮮之地。周武王釋箕子囚，去之朝鮮，因以封之。作八條之教，尚禮義，富農桑，外戶不閉，人不為盜。傳四十餘世。燕屬眞番、朝鮮，始置吏、築障。秦屬遼東外徼。漢初，燕人滿王故空地。武帝元封三年，定朝鮮為眞番、臨屯、樂浪、玄菟四郡。後漢出入青、幽二州，遼東、玄菟二郡，沿革不常。漢末為公孫度所據，傳子康；孫淵，自稱燕王，建元紹漢，魏滅之。晉陷高麗，後歸慕容垂；子寶，以勾麗王安為平州牧居之。元魏太武遣使至其所居平壤城，遼東京本此。”

33) 《元史》卷五十九 志 第十一 〈地理〉 二

東寧路，本高句驪平壤城，亦曰長安城。漢滅朝鮮，置樂浪、玄菟郡，此樂浪地也。晉義熙後，其王高麗始居平壤城。唐征高麗，拔平壤，其國東徙，在鴨綠水之東南千餘里，非平壤之舊。 _

이 기록들은 구체적으로 낙랑군의 위치를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요사』에서는 요나라 동경 요양부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곳은 주지하다시피 요나라 때 동경은 오늘날 중국 요녕성 요양시이다. 이것에 대하여는 누구도 다른 의견이 없다. 이렇게 볼 때 『水經註』 이래로 낙랑군의 위치는 현재 중국 요녕성 요양시 일대로 비정되었던 것이다. 이 기록들을 볼 때 7세기 이전 기록들은 현재 하북성 북부로, 7세기 이후부터 14세기까지의 기록은 고구려 평양성으로 기록하고 있다.

16세기 이후의 위치에 관한 기록들 중에는 낙랑군의 위치가 한반도 평양이라는 설과 만주지역에 있었다는 두 설로 나뉘고 있다. 중국의 사신단은 한반도 평양지역에 기자이래로 중국사의 영역으로 인정하였고, 조선 사람들 역시 일부에서는 명나라 의견에 동조하는 부류도 있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부류도 있었는데 특히 만주지역을 다녀온 사람들은 낙랑군이 만주지역에 있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런 논쟁은 결국 한반도 낙랑설로 기울어 가고 있었다.

이런 가능성은 조선왕조 초기에는 고려시대 이래로 한반도 평양이 한사군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다가 만주지역 어딘가에 있던 평양이 한반도에 자리 잡히면서 원래 있었던 그곳의 역사도 하나하나 끌어 들여진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 예로 명나라 때 쓰여진 『원사』를 보면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

동령로는 본래 고구려 평양성인데, 또 장안성이라고도 한다. 한이 조선을 멸망시키고 낙랑, 현도군을 설치하였는데, 이곳이 낙랑 땅이다. 진(晉) 의희(義熙)후에 고구려가 처음으로 거주하기 사직하였다. 당이 고구려를 정벌하자 평양은 그 나라 동쪽 압록강 동남쪽 천여리로 옮겨갔다. 지금 평양은 옛 평양은 아니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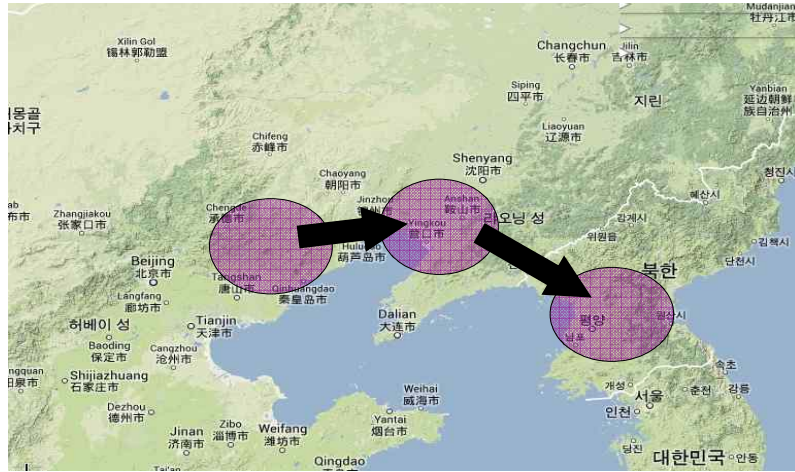
이 기록을 보면 평양이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다. 원래 평양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요녕성 요양시였는데, 당나라의 공격으로 평양성이 무너지면서 평양지역 사람들이 대거 어딘가로 이동하였다. 그곳은 압록강 동쪽 천여리로 이동해갔다. 즉, 지금의 평양지역으

34) 《元史》 卷五十九 志 第十一 《地理》 二
 東寧路，本高句驪平壤城，亦曰長安城。漢滅朝鮮，置樂浪、玄菟郡，此樂浪地也。 晉義熙後，其王高麗始居平壤城。唐征高麗，拔平壤，其國東徙，在鴨綠水之東南千餘里，非平壤之舊。

로 이동한 것이다. 이런 이동은 여러 번에 걸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13세기 이후 요양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몽골의 침략을 피해 대거 오늘날 평양지역으로 옮겨간다. 또 홍건적의 난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옮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에서 원래 만주지역에 있었던 지명이나 역사까지도 점점 이동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이라는 지명이 새로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에는 한반도에서 한사군 관련 기록들이 나타나지 않다가 15세기 이후부터 오늘날 평양이 고대의 평양으로 인식되면서 원래 평양지역의 역사까지도 고스란히 옮겨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학자들도 낙랑군이 평양이 있었다거나 혹은 만주에 있었다는 설왕설래를 하게 된 것이다.

사료를 근거로 한사군의 관련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한사군은 중국의 동북지역 국경선과 고구려의 서남쪽 국경선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서로 뺏고 빼앗기는 지역이었다. 그러다가 수·당 시기에 구체적으로 낙랑군을 고구려의 중심부인 평양지역에 못 박았고, 수와 당은 원래 고구려의 영토 중 평양지역은 그들 조상들의 영토였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계속해 공격했던 것이다. 결국 고구려가 무너지자 고구려의 평양성에 있었던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반도 지역으로 피난을 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에도 원래 평양지역에 거주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은 평양지역과 왕래를 했을 것이며, 원나라 때 원래 평양이던 요녕성 요양시 일대가 원나라 동녕로에 편입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만주지역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도 같이 옮겨오는데, 특히 낙랑군 또한 같이 이동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가 혼란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5] 낙랑군 인식변천도

위의 내용들을 간추려 보면 한사군은 6세기 이전의 낙랑군은 갈석산 부근이었고, 6세기경부터는 역도원의 주장에 따라 요녕성 요양지역이었다가 16세기경부터 한반도 평양 지역으로 옮겨온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낙랑군의 위치는 원래 갈석산 지역이었지만 중국세력이 팽창을 하면서 기록으로만 계속 동쪽으로 옮겨진 것이다. 현재는 16세기경에 인식된 한반도 평양 낙랑설을 따르고 있다. 낙랑군 이동에 관한 견해는 천관우도 주장을 하였다.³⁵⁾ 그는 한반도 지역에 있다가 중국 요녕성 의현 부근으로 이동하였다가 최종적으로 갈석산 부근으로 옮겨갔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 견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론을 할 수 있다. 일단 천관우의 주장은 관련기록이 너무 빈약하여 개인의 추측이 강하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서기 2~3세기 남만주지역의 국제정치 구도를 고려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 세력들은 계속하여 팽창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천관우의 주장은 간혹 보이는 낙랑군의 위치 이동관련 기록을 무시할 수 없고, 갈석산관련 기록이 반복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동선을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비슷한 기록이 『북사』의 ‘영주’, ‘남영주’ 관련 기록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글쓴이도 낙랑군이 옮겨진 것은 동의한다. 그러나 그 이동 범위가 넓은 것이 아니고 바로 근처에서 움직였다는 것이다.

35) 천관우, 『고조선사-삼한사연구』, 일조각, 1989년.

3. 고고학 자료 검토

1910년대 일본은 대한제국을 침략하면서 한국사의 본모습을 왜곡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들의 이런 노력은 한국은 모든 것이 뒤떨어지는 민족이기 때문에 일본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정치공작이었다. 이들이 한사군을 연구한 목적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한국사의 수동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사의 시작은 한민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중국세력의 지배하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헌 연구로는 그들의 계획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유물을 근거로 하였다. 그들의 계획은 당시 독일에서 랑케에 의해 시도되었고, 기독교를 고고학으로 증명하기 위해 도입된 이른바 랑케의 실증주의 사학을 받아들여 고고학을 통한 한사군 위치 규명을 시도하였다.

일본학자들은 한사군의 위치를 규명하면서 먼저 패수의 위치를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패수 주변의 유적들을 발굴하였다. 그 이유는 패수와 낙랑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³⁶⁾ 이런 기본적인 이해는 글쓴이가 머리말에서 지적하였듯이 고고학에서 가장 중요한 1차 사료는 자연 지형물이라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패수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다음 순서를 밟았던 것이다. 패수의 위치에 대해서는 那河通世가 대동강 설을 제시한 이래³⁷⁾ 稻葉岩吉도 이를 따랐다.³⁸⁾ 이들의 설은 곧 정설로 받아들여지면서 대동강 유역을 낙랑군 지역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 대동강 유역에서 많은 무덤을 발굴하였는데, 중국계 유물이 많이 나오는 무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를 근거로 평양지역 대동강 유역의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낙랑군과 관련된 자연지형지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자료를 확인해보도록 한다. 많은 사서에 낙랑군은 갈석산과 장성이 연결된다. 전자는 자연 지형지물 중에 이름은 변할 수 없지만 그 위치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산이다. 후자는 약간 변화가 가능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이다. 그러므로 가장 확실한 자료는 갈석산인 것이다. 강도 때에 따라서는 하구도 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큰 산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먼저 갈석산의 위치를 확인해보기로 한다.

36) 『水經』 涇水出樂浪郡鏤方縣, 東南過臨涇縣, 東入於海.

37) 那河通世, 「朝鮮樂浪女菟帶方考」, 『史學雜誌』5-4, 東京大學文學部內史學會, 1894.

38) 稻葉岩吉, 「秦長城東端及王險城考」, 『史學雜誌』21-2, 東京大學文學部內史學會, 1910.

1) 자연 지형지물 유적

태산으로부터 다시 동으로 해상을 순행하여 갈석에 이르렀다. 요서로부터 북쪽 변방의 구원을 지나 감천으로 돌아왔다.³⁹⁾

마침내 옛 영역을 개척해 천리를 넓혔다. 진나라의 장성새를 회복하였는데 온성에서 갈석에 이르렀으니, 산과 골짜기를 서로 이은 것이 거의 삼천리였다. 군을 나누어 지키게 하여 봉화대와 돈대가 서로 바라보았다. 이로 말미암아 변경이 안정되어 도둑을 경계할 일이 없어져, 한나라와 위나라가 진압한 이래로 이보다 안정된 적이 없었다.⁴⁰⁾

(태안) 4년 봄 정월 병오일 초하루에 처음으로 금주법을 설치하였다. 을묘일에 광령 온천궁에 행차하였고, 마침내 동으로 평주를 순수하였다. 경오일에 요서 황산궁에 이르러 며칠간 유람하며 주연을 베풀어 친히 고령자를 대하고 환자들을 위문하였다. 2월 병자일에 갈석산에 올라 창해를 바라보고 산 아래에서 여러 신하들과 크게 연회를 하였는데, 상을 나누어 주고 작위를 올려줌에 각기 차등을 두었다. 갈석산을 고쳐 낙유산이라고 하고, 바닷가에 단을 쌓아 행적을 기록하였다.⁴¹⁾

(정시 4년) 겨울 10월 정묘일에 황후인 우씨가 죽었다. 갈석으로부터 검각에 이르기까지 동서 7천리에 22군위를 설치하였다.⁴²⁾

... 우갈석을 낀 것이 북연이 되었다. 또 동쪽은 모두 내이의 땅이니, 한의 북해·천승·지천을 얻었다. 제남·제군 및 평원·발해·구하의 옛 길의 남쪽이 갈석에 잇닿아있다. 옛날 제·기·축·순어·내·담·한 및 짐심·유과·유격·포고씨의 나라⁴³⁾

39) 『漢書』 卷6 武帝紀 第6.

40) 『晉書』 卷42 列傳 第12 王渾 子濟.

41) 『魏書』 卷5 高宗紀 第5.

42) 『北史』 卷3 魏本紀 第4.

43) 『新唐書』 志 第21 天文 1.

위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갈석산은 행정적으로 시대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유성, 평주, 영주 등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 행정구역이 현재 중국 허북성 중, 북부와 요녕성 서남부 지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2) 성곽 및 거주지 유적

다음으로 장성관련 기록을 살펴보자. 장성은 갈석산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에 같이 나오는 경우가 존재한다.

『태강지리지』에 전하기를 낙랑 수성현에는 갈석산이 있으며 장성이 여기서 시작한다.⁴⁴⁾

노룡은 한나라 비여현이다. 여기에 갈석산이 있는데 해안가에 우뚝 선 모양을 보고 그 이름을 삼은 것이다. 췌나라 ‘태강지리지’에 진나라가 쌓은 장성이 갈석에서 시작한다 했는데, 지금 고려의 옛 강역에 있다.⁴⁵⁾

갈석산은 한나라 낙랑군 수성현에 있으니, 장성이 이 산에서 일어났다. 지금 증험하던 때, 장성이 동으로 요수를 끊고, 고구려 땅으로 들어가니, 지금도 그 흔적이 있다. 살펴보건대 상서에서 이르기를, “우갈석을 끼고 황하로 들어간다.”라고 하였으니 우갈석은 곧 황하가 바다에 다다르는 곳으로 지금의 북평군 남쪽 20여리에 있으니 고구려 가운데가 좌갈석이다.⁴⁶⁾

위의 기록들은 진시황이 쌓은 장성이 갈석산 부근에 있다는 기록이다. 즉 갈석산과 장성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낙랑도 이곳에 있다는 기록을 분명하게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토성리 유적은 평양 소재의 낙랑시대 대표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에

44) 『史記塞隱』 “太康地理志云「樂浪遼城縣有礪石山，長城所起。」

45) 『通典』 卷 178 주군 8.

46) 『通典』 「변방진」 ‘동이’ ‘고구려조’.

서는 몇 개의 성이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평양시 낙랑구역에 있는 낙랑 토성 유적이다. 이 토성은 전체 길이가 1.5km 정도 되는 것으로 주변에서 많은 무덤이 발견되었다.⁴⁷⁾ 이곳에는 청동활촉, 고리자루긴칼, 마름쇠 등의 무기류와 순금 목걸이, 청동가락지, 유리, 뼈, 돌로 만든 구슬 등의 치릿거리, 그리고 청동방울과 청동 거울, 맏돌, 시루, 질그릇이 출토되었다. 또한 고사리 무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무늬가 있는 막새기와와 大吉, 吉 등의 글자와 사선격자무늬를 새긴 벽돌 등의 건축부재들도 확인되었다고 한다. 다만 의문이 가는 것은 한 행정구역이 400여 년간 존재한 것에 비해서 유적들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고려의 475년 도읍이었던 개성이나, 조선의 왕도로서 500년을 도읍한 한양, 심지어는 고구려 황성시대 100년간의 도읍이었던 길림성 집안보다도 적은 유적이나 유물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의아스러울 뿐이다.

갈석산 주변지역, 즉 현재 요서지역에 위치한 당시 유적들의 현황을 살펴보자. 이곳에서는 기원을 전후한 시기부터 기원 2세기의 대형 성터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 유적들은 발굴을 통하여 그 연대나 유구의 성격들이 확인되었다. 대표적으로 금서 태집둔 유적은 여러 개의 층위가 확인되었는데, 유물을 통해 서한 중기에 해당하는 층과 그 이전 층은 확연하게 구별되었다.

무덤유적들을 살펴보면 평양지역에서는 여러 형태의 무덤들이 등장한다. 귀틀무덤, 전실무덤 등 많은 무덤이 등장한다. 특실 전실무덤은 평양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무덤이다. 비슷한 양식의 무덤들은 요양지역이나 요동반도 지역에서 많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하북성 북부지역이나 조양지역에서는 많이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소수의 무덤들이 확인되었다. 이런 현상은 한나라 세력권을 가늠해볼 때 요동반도나 요양지역보다 하북성과 조양지역이 훨씬 많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런 현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무덤 양식들은 단시간에 바뀌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고고학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써 취급한다. 이런 원칙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무덤양식을 통해 하나의 문화권이 새로 설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평양지역에서 발견된 유물 또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유물에는 여러 종류가 다양하게 발견되었는데, 연대는 서기 2세기 이후 것이 많이 발견되었다. 중국에서는 동한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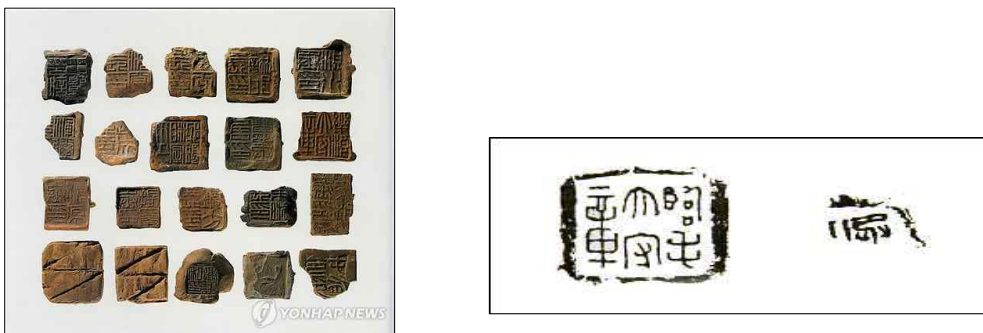
47) 아래 사진의 출처는 북한지역정보(<http://www.cybernk.net>), 평화문제연구소(<http://www.ipa.re.k>)

유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다시 분류하는 과정에서 동한 계통의 유물도 있지만 그 지역특색을 가지는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문자가 남아있는 유물도 발견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封泥라고 불리는 도장이다. 이 봉니⁴⁸⁾는 문서를 수발할 때나 보관할 때 문서를 포장한 후 마지막으로 매듭에 진흙을 바르고 행정책임자의 도장을 찍는 것이다. 때문에 이 문서를 열어보게 된다면 봉니는 부서지게 되는 것이 정상이며, 간혹 표면이 그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봉니가 남아있다면 이런 형태들이 남아있어야 한다.

봉니는 평양지역에서 매우 많이 발견되었다. 봉니가 한 지역에 한정되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매우 희귀한 경우이다. 만약 그곳이 문서고라면 가능한 일이나 그렇지 않고 여러 지역에서 수집한 것이라면 이 봉니를 유물로서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금서지역에서도 봉니가 몇 점 발견되었는데 臨屯郡太守章 봉니와 丞 이라는 글자가 찍혀있다. 이 봉니는 임둔군이 설치될 당시의 것으로 현재 주변지역의 공개된 발굴에서 확인된 유일한 봉니이다.



[그림 7] 평양출토 봉니(좌)와 요서출토 봉니 탁본(우)

다음으로 평양에서 발굴된 금제 대구장식이다. 이 장식은 평양지역 낙랑의 대표적인 유물 중 하나로 중국 기술의 우월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계통의 유물이 요동반도와 몽골북부지역에서도 무덤에서도 확인되었다.

48) 봉니는 도장과 다르다. 봉니는 진흙에 도장이 찍힌 흔적이고 도장은 찍는 도구 그 자체를 의미한다.

지역	한반도 서북지역	요동반도	몽골 흉노무덤
금제교구 (金製鉸具)			
재갈 및 재갈멈추개			
마면	 	 	 

하지만 유물을 통해 낙랑의 위치 비정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일한 양식의 유물들이 거리가 떨어진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다는 점이다. 크기가 작은 유물들은 사람에 의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지역과는 다른 양식의 유물이 발견된다면 원적지에서 이동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일부 중국계 유물들은 해당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여온 것이

다. 최근에 발견된 일명 ‘낙랑목간’ 역시 그렇다. 문장의 구조상 진위도 의심되지만 국가의 인구통계문서가 일반 민간인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되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보다 훨씬 더 큰 무덤에서는 이런 국가문서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데 엉뚱하게 규모가 작은 무덤에서 발견되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낙랑 고고학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고고학은 말 그대로 유적, 유물을 근거로 시대를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문헌기록과 일치되는 유적이거나 유물이 발견되면 더 없이 중요한 자료가 된다. 고고학을 해석할 때 가장 큰 근거로 활용되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람의 움직임에 대한 흔적과 유물이다.

이 원칙에 낙랑고고학을 대입시켜 보아야 한다. 먼저 6세기 이전 문헌기록에서 나타나는 낙랑 관련 지형과 유적이 갈석산과 만리장성이다. 이 둘이 현재 중국 허북성 동북부에 위치한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둘은 움직일 수 없는 당대의 고고학 자료이며 기록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낙랑고고학은 두 지역에서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낙랑고고학의 연구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왔고, 낙랑 출토 유물들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평양지역은 고대 문화가 발전했던 곳이며 그런 흔적으로 부근에 왕릉급을 포함한 대형 무덤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곳에는 큰 도시가 형성되었을 것이고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해 교역 또한 활발했을 것이다. 위와 같은 특성을 가진 도시는 타국인이 와서 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춘 곳이다. 낙랑 고고학도 이런 측면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⁴⁹⁾

일본학자들은 낙랑군이 만주지역에 위치했다는 연구를 철저히 무시했다. 일본의 초기 학자들이 문헌에 근거하여 낙랑군이 만주지역이 있었다는 연구를 했고,⁵⁰⁾ 1930년까지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지만⁵¹⁾ 일본학계는 이런 의견을 철저히 무시했던 것이다.

일본학계의 이런 행태에 대해 한국학자들은 당시의 열악한 사정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일본은 조선총독부라는 점령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있었고, 식민지 내에서 일본이 추구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역사문제는 점령군

49) 평양 지역에서는 낙랑 무덤만 발견되었지 그 시기의 중구 계통 대형 건물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400여년 낙랑의 실체가 있었던 곳이라면 반드시 대규모의 관청 건물지나 거주지역이 발견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양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실 100년 전 발굴기술로 발굴한 유물에 대해 100% 신뢰를 가지기는 어렵다.

50) 西川權, 『日韓古代史ノ裏面』, (東京:偕行社), 1910.

51) 大原利武, 『滿鮮に於ける漢代五郡二水考』, (東京:近澤書店), 1933.10.

정부의 총책임자와 정무총감의 직접적인 관심사였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생각대로 밀고 나갔다. 역사정책은 역사연구의 특성상 고도의 이론을 배우고 많은 기초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했지만, 위의사정과 준비된 학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반론다운 반론을 할 수 없었다.

4. 평양설의 배경

앞에서 낙랑군의 위치에 대한 문헌기록과 고고학적인 자료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낙랑군은 한반도 평양이 아닌 중국 하북성 북부와 요녕서 서부지역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양에 낙랑군이 있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기인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풀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기록의 시작은 북위의 관리였던 역도원의 『水經註』에 기록되었다. 이 『水經註』는 2세기 전후에 상흠이라는 사람이 쓴 『水經』의 주석서이다. 『水經』이라는 책이 쓰이고 400년이 흐른 후에 나온 주석서인 것이다. 역도원은 여기서 패수 관련 기록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역도원이 살던 시기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쓰여진 『水經』의 기록을 논박한 것이다. 『水經』의 기록에는,⁵²⁾

패수는 낙랑군 누방현에서 나와, 동남쪽을 통과하여 패현에⁵³⁾ 이르러 동쪽 바다로 들어간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을 보면 패수는 분명 서북쪽 낙랑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있다. 이 기록을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는 낙랑군이 설치되었을 때의 기록이다. 그런데 3백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뒤 북위의 관리였던 역도원이⁵⁴⁾ 고

52) 『水經』 涇水出樂浪郡鏤方縣, 東南過臨涇縣, 東入於海.

이 기록은 역도원의 수정주보다 약 400년 전 기록이라고 추정된다.

53) 패수(涇水)라는 강이름은 아마도 패현(涇縣)에서 큰 물줄기가 형성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구려 사신을 만났다. 이때 역도원은 고구려 사신으로부터 고구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인데, 고구려 사신으로부터 고구려의 도성이 패수의 북쪽에 있다는 것과 이 패수는 동에서 나와 서로 흐른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⁵⁵⁾ 이 이야기를 들은 역도원은 다음

- 54) 역도원은 북위의 중앙관리였기 때문에 고구려사신을 만난 것은 당시 북위의 도읍인 낙양이었을 것이다.
 55) 당시 고구려는 장수왕이 평양으로 도읍을 옮긴후인데, 이때 고구려 도읍은 오늘날 중국 요녕성 요양일대였다.

참조:

북기대, 「고구려 도읍지 천도에 대한 재검토」, 『고조선단군학』, 22, 2010년 pp. 199-243.

북기대, 「고구려 ‘황성’시대에 대한 시론」,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지』, 6권 1호, 2016년.

연번	출전	원문	해석
3	「泉男生墓誌銘」(679)	大唐故特進行右衛大將軍兼檢校右羽林軍仗內供奉上柱國卞國公贈并州大都督泉君墓誌銘并序 ... 公姓泉諱男生字元德遼東郡平壤城人也原夫遠系本出於泉既託神以隕社遂因生以命族 ...	대당(大唐)의 고(故) 특진(特進), 행우위대장군(行右衛大將軍), 겸(兼) 검교우우림군(檢校右羽林軍) 장내공봉(仗內供奉), 상주국(上柱國), 변국공(卞國公), 증병주대도독(贈并州大都督) 천군(泉君)의 묘지명(墓誌銘) 및 서(序) ... 공(公)의 성(姓)은 천(泉)이며 휘(諱)는 남생(男生)이고 자(字)는 원덕(元德)으로서, 요동군(遼東郡) 평양성(平壤城) 사람이다. 멀리 계보를 살펴보면 원래 천(泉)에서 생겨났으니, 이미 신(神)에 의탁하여 퇴지(隕社?)하였으므로 마침내 생겨난 데에 따라 그 족(族)을 불렀다. ...
4	「泉男産墓誌銘」(702)	君諱男産，遼東朝鮮人也，昔者東明感氣，踰瀝川而開國，朱蒙孕日，臨瀝水而開都，威漸扶索之津，力制蟠桃之俗，雖星辰海嶽，莫繫於要荒，而俎豆書，有通於聲教，承家命氏，君其後也。	君의 諱는 男産이니 遼東 朝鮮人이다. 옛날에 東明이 氣를 느끼고 瀝川을 넘어 나라를 열었고, 朱蒙은 해를 품고 瀝水에 臨해 수도를 열어, 위엄이 해 뜨는 곳의 나무에 미치고 세력이 동쪽 지역의 풍속을 제압하였으니 비록 星辰과 바다와 산악이 변방지역에 걸려 있지 않았어도 예절과 詩書는 聲教에 통하여, 家를 잇고 氏를 받았으니 君은 그 후예이다...
5	『舊唐書』 「東夷列傳」高句麗	高麗者，出自扶餘之別種也。其國都於平壤城，卽漢樂浪郡之故地，在京師東五千一百里，東渡海至於新羅，西北渡遼水至于營州，南渡海至于百濟，北至靺鞨。東西三千一百里，南北二千里。	高[句]麗는 본래 扶餘의 別種이다. 그 나라는 平壤城에 都邑하였으니, 곧 漢 樂浪郡의 옛 땅이다. 長安에서 동쪽으로 5천 1백리 밖에 있다. 동으로는 바다를 건너 新羅에 이르고, 서북으로는 遼水를 건너 營州에 이른다. 남으로는 바다를 건너 百濟에 이르고, 북으로는 靺鞨에 이른다. 동서로는 3천 1백리이고, 남북으로는 2천리이다.
6	『新唐書』 「東夷列傳」高句麗	高麗，本扶餘別種也。地東跨海距新羅，南亦跨海距百濟，西北度遼水與營州接，北靺鞨。其君居平壤城，亦謂長安城，漢樂浪郡也，去京師五千里而羸，隨山屈紆爲郛，南涯瀝水，王築宮其左。又有國內城·漢城，號別都。水有大遼·少遼。大遼出靺鞨西南山，南歷安市城，少遼出遼山西，亦南流，有梁水出塞外，西行與之合。有馬訾水出靺鞨之白山，色若鴨頭，號鴨淥水，歷國內城西，與鹽難水合，又西南至安市，入于海。而平壤在鴨淥東南，以巨鱸濟人，因恃以爲塹。	高麗는 본래 扶餘의 別種이다. 국토는 동으로는 바다를 건너 新羅에 이르고, 남으로는 역시 바다를 건너 百濟에 이른다. 서북으로는 遼水를 건너 營州와 접하고, 북은 靺鞨과 접한다. 그 나라의 임금이 살고 있는 곳은 平壤城으로 長安城이라고도 부르는데, 漢代의 樂浪郡으로 長安에서 5천리 밖에 있다. 山의 굴곡을 따라 外城을 쌓았으며, 남쪽은 瀝水와 연해 있다. 王은 그 좌측에 宮闕을 지어 놓았다. 또 國內城과 漢城이 있는데 別都라 부른다. 물은 大遼와 少遼가 있다. 大遼는 靺鞨의 서남쪽 산에서 흘러나와 남으로 安市城을 거쳐 흐른다. 少遼는 遼山의 서쪽에서 흘러나와 역시 남으로 흐르는데, 梁水가 塞外에서 나와 서쪽으로 흘러이와 합류한다. 馬訾水가 있어 靺鞨의 白山에서 흘러나오는데, 물빛이 鴨頭와 같아서 鴨淥水로 불리 운다. 國內城의 서쪽을 거쳐 鹽難水와 합류한 다음, 다시 서남으로 [흘러] 安市[城]에 이르러서 바다로 들어간다. 平壤은 鴨淥江의 동남쪽에 있는데, 큰 배로 사람이 건너다니므로, 이를 해자(天塹)

과 같은 견해를 밝힌다.⁵⁶⁾

“한무제 원봉 2년에, 누선장군 양복과 좌장군 순체를 파견하여 우거를 토벌하게 했다. 패수에서 우거를 격파하여 마침내 이를 멸망시켰는데, 만약 패수가 동쪽으로 흐른다면

		東京道 東京遼陽府, 本朝鮮之地. 周武王釋箕子囚, 去之朝鮮, 因以封之. 武帝元封三年, 定朝鮮為真番, 臨屯, 樂浪, 玄菟四郡. 後漢出入青, 幽二州, 遼東, 玄菟二郡, 沿革不常. 漢末為公孫度所據, 傳子康; 孫淵, 自稱燕王, 建元紹漢, 魏滅之. 晉陷高麗, 後歸慕容垂; 子寶, 以勾麗王安為平州牧居之. 元魏太武遣使至其所居平壤城, 遼東京本此. 唐高宗平高麗, 於此置安東都護府; 後為渤海大氏所有.	로 여긴다. 동경도: 동경요양부 본래 조선의 땅이었다.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옥중에서 풀어 주고 그가 조선으로 가자 그 땅에 책봉하였다. 한나라 초에 연나라 사람 위만이 옛 공지(空地)에서 왕이 되었다. 무제 원봉 3년(B.C.108)에 조선을 평정하고 진번, 임둔, 낙랑, 현도 4군으로 삼았다. 후한 때에 청주와 유주 두 주를 오가며 편입되었으며, 요동과 현도는 그 연혁이 일정하지 않았다. 한나라 말년에는 공손도가 이곳을 차지하여, 아들 공손장에게 전해지고 손자 공손연이 연왕(燕王)을 자칭하고 소한(紹漢)이라 연호를 세웠으나 위나라에 멸망되었다. 서진 때 고려에 함락되었다. 뒤에 모용수에게 귀의하였다가 그 아들 모용보가 고구려 왕 고안을 평주목사로 삼아 그곳에 살게 하였다. 원위(元魏) 태무제(太武帝)가 그가 살고 있는 평양성으로 사신을 보내니, 요나라 동경이 본래 이곳이다. 당나라 고종이 고구려를 평정하고 이곳에 안동도호부를 두었다. 후에 발해 대씨의 소유가 되었다.
9	『遼史』 「志」 地理志	耀州, 刺史. 本渤海椒州; 故縣五, 椒山, 貉嶺, 漸泉, 尖山, 巖淵, 皆廢. … 巖淵縣. 東界新羅, 故平壤城在縣西南. 東北至海州一百二十裏.	요주(耀州) : 자사(刺史)를 두었다. 본래 발해의 초주였는데, 예날 다섯 개의 현이 있었다. 초산현, 초령현, 시천현, 첨산현, 암연현인데 모두 폐지되었다. … 암연현(巖淵縣) : 동쪽 경계는 신라이며, 옛 평양성은 암연현의 서남쪽에 있었다. 동북쪽으로 1백 20리를 가면 해주(海州)에 이른다.
10	『全遼金詩』 권113 - 허항정행정록(1125년)(許亢定行程錄) 王寂宿 - 瀋州懷古	明昌改元春二月十有二日丙申 子以使事出按部封 是日宿瀋州 州在有唐時嘗為高麗侵據 至高宗命李勣東征 置安東都護府於平壤城以領遼東 其後或治故城 或治新城 實今之瀋州也 …	명창 개원(1190) 춘2월 12일 병신, 나는 사신의 일로 部封을 살피러 나갔다. 이날 瀋州에서 묵었다. 심주가 당의 땅에 있었을 때 일찍이 고려가 침략하여 근거를 두었다. <u>고종대에 이르러 李勣에게 명하여 동쪽을 정벌하게 하여, 안동도호부를 평양성에 두고 요동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 후에 혹 故城을 다스렸다 하고, 혹 新城을 다스렸다고 하나 실제로는 지금의 심주이다.</u> …
11	『元史』 「志」 地理	… 東寧路, 本高句驪平壤城, 亦曰長安城. 漢滅朝鮮, 置樂浪, 玄菟郡, 此樂浪地也. 晉義熙後, 其王高璉始居平壤城. 唐征高麗, 拔平壤, 其國東徙, 在鴨綠水之東南千餘裡, 非平壤之舊. 至王建, 以平壤為西京. …	… 동녕로는 본래 고구려 평양성인데 또 장안성이라고도 한다. 한나라가 조선을 멸하고 낙랑, 현토군을 두었는데 이 낙랑의 땅이다. 진(晉) 의희(義熙, 405-418) 이후에 그 왕 고연(高璉)이 처음으로 평양성에 살았다. 당이 고구려를 정벌하고 평양을 빼앗자, 그 나라를 동쪽으로 옮겼는데, 압록강 동남쪽 천 여리 되는 곳이다. 옛 평양이 아니다. 왕건에 이르러 평양으로서 서경을 삼았다. …

참고로 중국 기록 중 고구려 장수왕이 천도한 곳이 중국 요녕성 요양시 지역이라는 근거를 몇 개 간단하게 적어 놓도록 한다.

56) 『水經註』 ‘武帝元封二年, 遣樓船將軍楊僕左將軍荀彘討右渠, 破渠於沮水遂滅之. 若沮水東流, 無渡沮水之理. 其地今高句麗國治, 余訪蕃使, 言城在沮水之陽, 其水西流逕故樂浪朝鮮縣, 卽樂浪郡治, 漢武帝置. 而西北流. 故地理志曰, 沮水至增地縣入海. 考之古今, 於事差謬, 蓋經誤證也.

패수를 건너지 않는다. 그 지역은 지금의 고구려 치소이다. 그래서 나는 고구려 사신을 방문하여 물어보았더니 그는 말하기를 "고구려의 도성이 패수의 북쪽에 있다"고 하였다. 그 강은 서쪽으로 흘러 옛 낙랑군 조선현을 지난다. 조선현은 낙랑군의 치소로서 서한의 무제가 설치한 것이다. 그 물은 서북으로 흐르는데 옛 지리지에는 패수가 증지현에 닿아 바다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옛날과 지금의 이러한 증거들을 살펴볼 때 차이가 있으니, 《수경》은 잘못 고증한 것이다.”

고구려 사신으로부터 패수가 동에서 나와 서로 흐른다는 새로운 소식에 역도원은 앞 뒤를 따져 보지도 않고, ‘패수’라는 말만 중시하여 패수는 곧 낙랑군 지역에 있었던 강인데 이 강이 고구려 도읍인 평양에 있다면 곧 고구려 도읍인 평양이 낙랑군 지역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패수의 방향도 고구려 사신의 말을 그대로 따라 동에서 서로 흐르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런 인식은 『水經』의 기록이 틀렸다면 고구려 사신의 말을 주석으로 써놓은 것이다.

역도원의 분석에 의하면 상흠이 말했던 패수가 북위 땅에는 없지만 고구려 땅에 남아 있었으니 상흠의 기록을 뒤 짚어 옛 『水經』의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도원의 『水經註』 이후 기록은 모두 낙랑의 위치를 평양으로 기록하기 시작하였다.⁵⁷⁾ 이 과정에서 역도원은 몇 가지 큰 실수를 하였다.

첫째, 『水經』의 기록은 낙랑군이 존재했을 당대의 기록이다. 그러므로 역도원은 그 이전 기록들을 참고로 하여 서한시대의 낙랑을 통과하였던 강 이름을 찾아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패수라는 강 이름만 찾았던 것이다. 그는 지리연구가로는 큰 실수를 한 것이다.

둘째, 같은 강의 하구의 위치가 일부 변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180도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즉, 동쪽으로 바다로 들어갔던 하구가 서쪽바다로 들어가는 일은 없다.

이런 면에서 역도원이 고증한 패수는 현장을 답사하거나 혹은 관련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패수를 고증하고, 낙랑군의 위치를 정한 것이다. 한국 속

57) 역도원의 『수경주』를 근거로 하여 중국역사서에서 낙랑은 모두 평양으로 비정되기 시작했는데, 훗날 많은 사람들이 역도원의 『수경주』를 참고하여 낙랑군의 위치가 평양이라는 등식이 성립한 것이다. 아마도 『史記正義』이나 『括地志』도 이를 인용하면서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고 기록한 것으로 추측된다.

답에 한양에 가보지 않고 승례문의 현판이 남대문이라고 쓰였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것이다.⁵⁸⁾

이런 기록들로 인해 고구려의 도읍인 평양성이 낙랑군으로 비정되기 시작하였고,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공식이 성립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사서의 기록에서는 낙랑군에 관한 기록이 나오질 않는 것이다. 만약 평양성이 한사군의 낙랑땅이었다면 『삼국사기』 평양관련 기사에서 어디에서든지 낙랑관련 기록이 나올 수 있을 것인데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려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기록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문제는 두 가지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첫째, 역도원의 『수경주』에서 말하는 것처럼 평양과 낙랑은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것일 것이고, 둘째, 고려시대 영역은 낙랑군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것일 것이다. 앞서말한 바와 같이 실제 조선전기 기록에서도 한사군이 한반도 평양에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뿐만 아니라 조선전기에는 고구려 도읍이었던 평양의 위치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은 건국을 하면서 그들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일 것으로 보이는 일련의 행동을 하는데, 그중에 평안도지역의 행정중심지였던 평양에 고조선, 고구려관련 흔적을 설치하였다. 이런 일련의 계획들이 평양지역이 역사의 중심지로 점점 굳혀지면서 한사군도 평양이라는 지명이 교차되어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덩달아 따라 들어 온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분위기는 결국 조선중기를 넘어 후기에 들어오면서 일부 학자들에게 고착이 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한다.

58) 조선시대 역사지리에 관한 책을 저술한 사람 중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정약용이다. 그는 그 원전기록이 어떻게 쓰였던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한국사를 편집하였다. 그 결과를 훗날 일본학자들이 정약용의 『강역고』를 많이 참조하면서, 한국사의 틀을 짰는데, 오늘날 많은 문제가 있음이 점점 밝혀지고 있다. 일본학자들은 박지원이나 최부의 저술은 참고하지 않았다.

5. 맺음말

동북아시아 3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자국사의 유구성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유구한 역사는 동북아시아 지역사회에서 우위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들의 위엄성을 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와 민족의 생존전략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동북아시아는 유럽처럼 한 권역 내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종교나 이념이 없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역사를 근거로 풀어가기 때문이다.

외교적 문제에서 역사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의 안보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⁵⁹⁾ 물론 이런 현상은 동북아시아 지역 내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유럽에도 알사스 로렌 지방 같은 곳에 비슷한 현상이 있었지만 동북아시아와 유럽은 상황이 다르다. 유럽은 그들이 공통을 믿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평화적인 해결이 가능했으나 동북아시아는 그런 것이 없어 어떤 형태로든지 경쟁하여 승자와 패자만이 남는다. 결국 동북아시아에서 역사는 곧 안보의 첫 걸음이 되는 것이다.

필자는 평소부터 역사학은 곧 ‘안보의 시작’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이런 소신을 갖게 된 것은 동아시아 역사를 이해하면서부터이다. 한국사에서 잘 알려진 서희가 주도한 ‘고려-거란’ 간 전쟁에서 승리한 명분 중 하나가 고구려의 계승권이 누구한테 있었는가를 밝힌 것이 좋은 예이다. 이런 사례는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이미 흘러간 역사이고 현실적으로 자신과 상관이 없었던 일이었기에 잊고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최근 이런 실례가 또 다시 발생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의 동북공정이다. 이 계획의 요지는 현재 중국 영토 내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가 중국의 역사라는 것인데, 이런 이론에 근거하여 현재 중국의 동북지역에 있었던 모든 역사 역시 중국사에 포함된다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사실여부를 떠나 중국정부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자기들의 입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역사적 근거를 활용하여 현실적인 국가 영토에 역사 속의 영토를 덮어씌운 것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동북공정 내용의 근거는 중국 서한이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후 설치한 한사군이 오늘날 한반도 평양지역이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이 발표 이후 역사서의 기록을 근거로 한국의 일부 학자와 국민들은 중국의

59) 조어도 문제나 독도 문제의 해결방식도 이와 같다.

동북공정의 역사적 근거가 허구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재 국사학계에는 중국의 주장이 문제가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주장하는 한사군의 위치가 한반도 평양이라는 것을 한국학계 역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제사회의 이런 인식은 중국의 한사군 위치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것은 아니며 중국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이런 국제사회의 현실 인식은 평화시기에도 문제가 있지만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중국의 동북공정을 계기로 동북아시아 역사를 살펴보면 동북아시아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한사군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사군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다. 이는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미 전통시대에도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동안 이 문제를 잊고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 다시 국민적인 문제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글쓴이 역시 전공영역과도 관계가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연구사업 중에 이 한사군을 반드시 다뤄야 하는 의무가 있다.

글쓴이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한사군의 위치는 문헌기록으로 볼 때에는 한사군이 설립된 당시의 위치가 분명 현재 중국 하북성 동북부와 요녕성 서남부 지역이었다. 그 후 계속되는 수, 당의 세력이 동쪽으로 확장하면서 역사지리 인식 또한 점점 동진하는데, 이 때 중국세력의 최동단에 있었던 낙랑도 점점 동진하게 된 것이다. 이 동진의 최후는 바로 한반도 평양에 있었다고 기록되기에 이르렀고, 일본학자들은 이 기록을 근거로 하고, 이 지역에서 확인되었다고 주장한 중국계 유물을 근거로 하여 논리를 더욱 더 공고하게 다졌고, 국적을 불문하고 후학들은 이들의 견해를 믿어 의심치 않고 더 많은 논문을 발표해 한반도 평양성을 공고히 해주었다. 물론 이와 반대되는 견해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러나 현재 만주지역 역사학계의 흐름을 보면 과거 백여년 전의 어설픈 주장이 용납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새롭게 알려진 많은 문헌자료들 그리고 수많은 유적들이 조사되면서 과거 일본학자들이 주장한 ‘한반도 평양=낙랑’설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새로운 연구방법론과 연구이론이 도입되면서 한 세기 전의 단선적인 역사해석은 설득력이 없어지고 있다. 다만 이미 한 세기 이상을 주장했던 내용이나 이를

근거로 주변국과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기존의 견해를 부정하지 못할 뿐이다.

동북아시아 역사연구를 위한 제언

현재 동아시아 역사연구는 고고학자료를 통한 선사시대, 혹은 고대사 연구, 그리고 문헌을 통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연구결과들이 계속하여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 양산된 결과들은 단지 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격한 감정이 섞이게 되고, 이는 더 확대되어 이념논쟁으로 치닫게 된다. 글쓴이는 10년전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중국학계에 말하기를 역사연구에 있어서 여러 분야의 학문이 모여 통섭적인 연구를 해야된다고 주장 및 건의를 하였다. 당시 중국학계는 거의 냉소적이었으나 지금은 문, 이과가 모두 참여하는 통섭으로 방향을 바꿨다.

중국학계와 상관없이 본인은 여러 분야의 기초를 공부해가며 한국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조금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 최근 들어 이런 확신은 점점 더해져 간다. 이런 연구방법을 동북아시아 고대사 연구에 대입시켜 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특히 ‘교역’이라는 타이틀 아래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교역은 분명, 권력체제가 다른 상황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슬람원리주의 권력체와 기독교중심의 국가가 물물교역을 하듯이 이 교역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권력체에게 이득만 안겨주면 그만인 것이다. 물론 근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다. 신라후기 중국과의 교역을 위해 산동성에 신라방이 있었듯이 말이다. 이런 흔적은 교역의 규모가 얼마나에 따라 크기도 비례로 일어날 것인데, 과거 전통시대 고전고고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권력체에 포함시켜 해석하기도 하였다. 한반도 평양지역에서 중국계유물이 있기 때문에 낙랑군지역이었다는 것과 같은 이해방식이다.

그러나 현재는 다르다. 1800년대 후반에 시작된 랑케의 실증사학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면서 많은 역사연구 방법론이 개발되었다. 그 결과 ‘교류와 교역’이라는 방향에서 역사를 보기시작하면서 역사연구에 많은 문제점이 해결되었다. 동아시아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분야의 학문분야가 참여하여 역사연구를 한다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들이 오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체 동아시아

아에 확산된다면 쌓였던 오해들이 많이 풀릴 것으로 본다. 이런 책임은 학자들이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런 열린 역사연구 방법의 도입은 한국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 생각한다.

※ 이 글은 주체측의 요청을 늦게 받아들여 새롭게 글을 쓸 시간이 없어 이미 발표된 글들을 기반으로 약간 수정을 한 것이다. 물론 주체측에 사전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하여 글쓴이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이다.